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시간선택제 일자리 · 직무능력중심 채용
고졸채용 · 청년인턴 · 지역인재 채용

2015.11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목차

I PART

시간선택제 일자리

1. 행복한 미소맘(美笑mom) 8
2. 가족과 함께하는 미래를 설계하다 12
3. 시간선택제로 우리 집에도 슈퍼맨이 돌아왔다?! 16
4. 든든한 백(back)!! 시간선택제 21
5. 멋진 엄마, 멋진 아내, 멋진 직장인 세 마리 토끼를
잡게 해준 희망의 등불 25
6. “나에게, 내 아이에게 딱!” 시간선택제 근무 28

II PART

직무능력중심 채용

1. 최고령 신입사원, 능력만 보고 선발됐다 34
2. 지금 필요한 것. 화려한 스펙이 아닌 수수한 두 가지 단추 38
3. NCS로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43
4. 조금해 말재! 취업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 46
5. Impossible? I'm possible! 51
6. 굵는 과? No! 국문과도 할 수 있다 55
7. '실'을 '득'으로 만드는 기회 60
8. 나의 특별한 '한 방' 64

III PART

고졸채용

1. 내일의 성공은 꿈꾸는 자의 몫이다 70
2. 미생에서 완생으로 75
3. 내 자리를 갖기까지 79
4. 성공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 84
5. 끝없는 도전, 마침표는 없다 89
6. 열아홉, 홀로서기 94
7. 마라톤 출발선에 선 지금, 즐기면서 달려라! 99
8. 우리는 고졸 마라토너입니다 104

IV PART

청년인턴

1. Miss, Ghana 110
2. 청년인턴제도? 취업의 연결고리! 115
3. 10개월, 뚝배기가 끓기 위해 필요한 시간 120
4. 배달중인 나의 꿈 124
5. 인턴, 20대의 또다른 배움의 전당 129
6. 청년인턴으로 꿈꾸게 된 내일 134
7. 청년인턴으로 취업난 뛰어넘기 139
8. 선택과 집중 그리고 성취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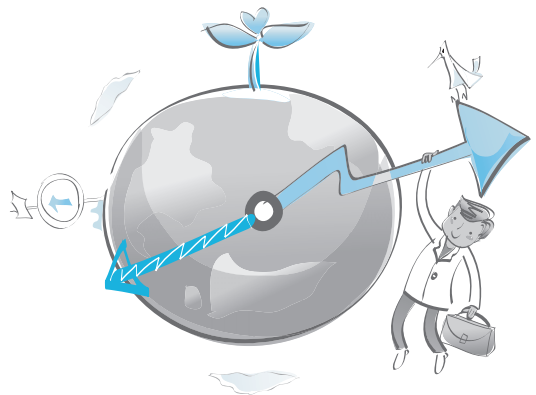
V PART

지역인재 채용

1. 지역소외 극복 경험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긍정적 영향 150
2.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그 의미 있는 한 걸음 155
3. 대학생활 Road Map, 이제 전문가로 Leading하라 159

PART I

시간선택제 일자리



1

행복한 미소맘(美笑mom)

오○○/한국에너지공단

지금으로부터 4년 전, 나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현 직장인 ‘한국에너지공단’에 입사한 신입 직원이었다. 정장에 구두를 신고 회사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지난 4년 동안 나에게는 많은 일이 일어났고, 출퇴근길의 풍경도 많이 변했다. 내 어깨에는 내 가방과 함께 어린이집 가방이 들려 있고, 내 옆에는 ‘엄마, 엄마’를 외치며 내 손을 꼭 잡는 아들이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수립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입사 후 내가 처음 배정받은 업무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 업무였다. 회사 생활을 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존경할 만한 멋진 분들을 만났다. 또한, 좋은 인연을 만나 또래 친구들보다 빨리 결혼을 했다.

그 무렵 내 인생의 시계는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다. 이번엔 결혼 후 한 달 만에 아기가 생겼다. 입덧이 심해 괴로웠지만, 이 또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기만을 바랐다. 그때까지도 ‘육아’, ‘워킹맘’, ‘유연근무’ 같은 단어들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출산 후 곧 돌아올게요, 하고는 설레는 마음으로 육아휴직을 냈다.

휴직 기간 동안 내 시간의 대부분을 아기를 위해 내어주었다. 아기는 참 귀엽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러웠지만, 종종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그리기도 했다. 특히 같은 회사에 다녔던 남편을 통해 가끔 회사 소식을 들을 때면 더욱 그랬다. 또한, 부부 두 명이 벌어서 둘이 살던 때와는 달리 한 명이 벌고 셋이 살다 보니 경제적인 아쉬움

도 컸다.

휴직 기간이 참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눈 깜짝할 새에 해가 바뀌고 어느새 복직할 시간이 다가왔다.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아기를 봐주실 수 없던 상황이었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다행히도 입소대기를 걸어두었던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다. 갓 돌이 지난 우리 아이는 어린이집의 막내였다.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다.

생각보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는 듯했다. 그런데 작은 문제가 생겼다. 아이가 어려서 그런지, 외부환경에 노출되면서 갖가지 병들을 달고 오기 시작했다. 매주 꼬박꼬박 집 근처 병원에 출석을 했다. 대부분의 작은 병원들은 오후 6시경이면 문을 닫기 때문에 복직 후에도 제때에 가긴 어려울 것 같았다. 게다가 어린이집 대부분의 아이들은 4시 이후 무렵에 우르르 하원을 했다.

온종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었기에 어린이집 하원 후 돌봐주실 오후 하원도우미를 찾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집 근처에 사시는 분이 되신다고 하기에 한숨 돌리려던 찰나, 며칠 뒤 어렵겠다는 연락이 왔다. 복직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었다. 어린이집도 시간을 차츰차츰 늘려가며 겨우 적응을 시켰는데, 급하게 새로운 사람을 찾는다 해도 아기가 적응해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주변 친구 중에 결혼한 친구들도 거의 없었기에, 마땅히 조언을 구할 곳도 없었다. 그래서 그 무렵, 시중에 판매되는 육아서적들을 읽으면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 대부분 육아서적에는 ‘어릴 땐 엄마가 돌보아야 한다’,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은 함께 놀아줘야 한다’, ‘엄마가 없으면 아기는 불안하다’는 내용이 가득했다. 복직하겠다는 게 내 욕심인 것만 같아서 점점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다.

그러던 중 퇴근을 하고 집에 온 남편이 불쑥 프린트물을 내밀었다. 회사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안내였다. 어렵פות이 유연근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했지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본 적은 없었기에 세세한 지침은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첫 장을 보자마자 ‘시간제근무’가 눈에 들어왔다.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며,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5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였다. 남편이 이 제도를 써보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지금 상황에서 어린이집 하원 시간을 고려한 4시 퇴근이 가능하다면, 정말 더 바랄 게 없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에 문의했다. 걱정과 달리 인사팀도, 내가 속해 있는 부서에서도 선뜻 승낙을 해 주셨다. 그렇게 나는 복직을 했다.

복직하고 처음에는 오후 4시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어려웠다. 다들 일하고 있는데 나 홀로 인사를 하고 나오자니, 괜히 민망한 기분이 들었다.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업무 분담에도 조정이 필요했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을 가게 되면 신데렐라의 12시처럼 오후 4시의 마지노선이 따라다녔다. 공통 업무에서는 내가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싶어 걱정이 되었다. 시간이 부족해 하던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나올 때면 마음이 무겁기도 했다.


그래도 회사의 많은 분이 응원해주시고, 고충을 이해해주셨다. 또한, 기존에 근무하던 부서로 돌아와서 그랬는지, 오랜만에 돌아왔지만 업무에 곧 적응할 수 있었다. 다만 전보다 근무 시간이 짧아졌기에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일해야 했다. 출근 후 그날 해야 할 일을 적어두고, 계속 점검하면서 그날 업무를 다 하려고 노력했다. 다음 날이나 그다음 주 업무도 미리 확인하고, 최대한 허투루 쓰는 시간이 없도록 움직였다. 단축근무를 하고 있긴 했지만, 퇴근 후 집안일과 육아를 하다 보니 출산 전과 달리 시간도 부족하고 몸도 힘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뿌듯했다. 예전보다 월급날이 설레기도 했다. 무엇보다 퇴근하고 어린이집으로 달려가면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내게 안길 때의 기분이란! 퇴근하고 아이와 병원도 갈 수 있고, 동네의 또래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함께 놀 수도 있었다.

주변의 많은 아이 엄마들이 내 상황을 듣고는 많이 부러워했다. 일하고 싶어도 상황이 나 시간적·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서 그만두신 분들도 많았고, 일이 바빠서 하루에 한 시간만 아이 얼굴 보는 것도 많이 보는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나도 복직 전 그런 고민을 했기에 그 마음이 다 이해가 되기도 했고, 그분들보다는 좋은 기회를 얻었기에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시간 단축근무를 한다고 하니 누구보다도 기뻐하셨다. 사실 손자를 봐주셔야 하는 게 의무도 책임도 아닌데, 계속 미안해하시고 신경이 쓰이셨던 것 같았다. 친정엄마는 결혼하시고 고향을 떠나와 나와 동생들을 낳으시면서 일을 그만두셨다. 본인의 삶에 후회는 없다고 하시면서도 너는 엄마보다 기회도 많고 선택의 폭도 넓어서 참 잘 된 거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신다.

최근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시 시간제근무를 활용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다. 회사에서는 이런 경우를 가리켜 ‘미소맘(美笑mom) 제도’라는 예쁜 이름을 붙였다. 해당 직원은 현업으로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어서 웃고, 아기도 엄마와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웃고, 안정적으로 복귀한 직원 덕분에 회사도 웃을 수 있는 제도라는 의미이다.

사실 아이를 낳고 회사에 복직하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감정은 미안함이었다. 회사에 민폐가 되는 것 같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집에서는 좋은 엄마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다. 일과 아이 사이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속 갈등도 상당했다. 하지만 시간제근무를 하게 되면서 두 가지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확대되고 보완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미안해하기보다는 행복한 미소맘(美笑mom)이 되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

가족과 함께하는 미래를 설계하다

손○○/ 한국철도공사

지나온 나의 삶도 행복했습니다

결혼과 함께 시작한 학원강사,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했던 15년의 세월...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즐겁고 행복했지만, 아이들을 출산하면서, 육아의 부담과 함께 나의 직장 생활에 대한 남편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남편의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 나는 더욱 열심히 살아야했고, 한 치의 빈틈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여섯시에 시작된 나의 하루는 다음날 강의할 자료 준비가 완료되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끝났고, 학원강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출산 하루 전까지도 근무해야 했으며, 출산 후에 한 달도 쉬지 못하고 다시 출강해야 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초등수업에서 밤 11시에 끝나는 고등부 수업까지 이를 악물고 해야 했지만, 못다 이룬 선생님의 꿈을 이루었다는 기쁨과, 나를 믿고 따르는 학생들의 밝은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가족들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여유로운 저녁식사는 거의 가질 수 없었고,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같이 잠드는 달콤한 추억도 갖지 못했지만, 그런 가족들의 희생 덕분에 나는 강사로 일하던 학원을 인수하여 경영하게 되었고, 그렇게 나의 인생은 계속 성장해 가는 듯 보였습니다.

가족의 희생을 통해 나는 그렇게 이기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진실로 행복한 삶이 아닌,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아내와 엄마가 될 수는 없을까?

일을 가진 여성들은 항상 갈등을 합니다. 나의 꿈을 위해 나 자신을 이렇게까지 채찍질해야 하는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명목 아래 나는 나쁜 아내, 나쁜 엄마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 또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가족과 함께가 아닌 나를 위한 나만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은, 아내이자 엄마인 나에게 항상 아픔을 주었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과 한쪽 팔의 마비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아무런 불평없이 조건없이 곁에서 나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뒤늦은 후회와,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이기적이었는데...

막막한 일상에 남편이 찾아준 돌파구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낮과 밤이 바뀐 생활로 가족들과 따로 떨어져 혼자 사는 듯한 생활에서 벗어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나를 믿고 따라주었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학원을 정리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이룬 학원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좌절감, 나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세상속에서 나의 존재가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은 하던 일을 포기하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려는 나를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일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사교육 억제정책과 출산을 저하로 인한 학생 수의 감소로 학원사업은 급격하게 기울었고, 계속되는 건강 이상으로 더 이상 학원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을 때, 멈추지도 나아가지도 못하는 나에게 남편은 “당신은 능력있는 멋진 여자이며, 존경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나의 아내이고 아이들의 엄마야. 지금은 힘들겠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길을 찾아간다면 기회는 꼭 다시 올거야. 나를 믿어...!”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학원사업을 정리하고 난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용기를 내어보았지만, 내 속에 버티고 있던 불안함과 좌절감을 이기지 못했던 나에게 우울증이 찾아왔고, 하루하루 아무런 의욕도 없이 세상을 원망하고, 가족을 나의 우울함의 분풀이 대상으로 여기며, 또다시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생활하는 나 자신을 미워하며, 나는 끝없는 우울함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한국철도공사 시간선택제사원 1기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고, 시간선택제근무라면 그동안 내가 힘들어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응시하게 된 시간선택제사원 채용과정은 쉽지않았지만, 영주에서 대전 본사를 오가는 면접과 인적성검사 시험을 치를 때, 먼 길을 함께해주고, 우황청심환을 건네주며 꼭 합격할거라 안아주던 남편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경북본부 시간선택제사원 1기에 당당히 최종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선택제가 선물해준 300명의 남자들

한국철도공사 영주기관차승무사업소 발령과 함께 저에게는 책임져야 할(?) 300명에 가까운 남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영주기관차승무사업소의 소장님, 팀장님과 기관사님들이십니다.

철도의 핵심가치 안전을 위해 기관사님들에게는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기에, 그들은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 정확한 기준과 매의 눈, 그리고 일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가진 분들이었으며, 각자의 개성 또한 강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한 분 한 분의 스타일에 맞게, 그들의 개성과 자존감을 지켜드리면서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학원강사로 15년을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창의성과 활동성은 높았지만, 생활방식과 사고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 사회성은 다소 떨어져 있었기에,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유능한 직원이 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시간선택제사원 1기로 입사해 1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통해 내가 나아갈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300명의 남자들 속에 유일한 여사원으로서의 장점을 발휘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서류와 물품을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기관사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며, 힘든 기관차 운전으로 긴장된 기관사님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밝은 웃음과 편안함으로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미래를 설계하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선물해준 300명의 영주기관차승무사업소 소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기관사님들과 함께하는 나의 소중한 일터는, 나의 유일한 남자이자 동반자인 남편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저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나만의 일과 더불어, 가족을 위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퇴근하는 남편을 반갑게 맞이하며,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저녁을 보낼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동안 나는 자의든 타의든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위로하지만, 일을 한다는 것 또한 나 자신과 더불어 가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찾아온 내 인생의 새로운 기회, 시간선택제사원! 나로 인해 힘들었던 가족들과 함께하는 현명한 워킹맘이 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의 시간선택제사원 1기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3

시간선택제로 우리 집에도 슈퍼맨이 돌아왔다?!

정○○/한국수자원공사

아빠 어디가?

귀여운 우리 둘째, 사랑스런 딸내미 인하는 아빠 껌딱지입니다. 출근할 땐 울며불며 매달리고, 퇴근하면 신발을 채 벗기가 무섭게 쫓르르 달려와 ‘아빠’하며 와락 안기고서는 제가 가는 곳마다 쫓르르 쫓아다닙니다. 그 와중에 첫째는 제 어깨에 대롱대롱 매달리네요. 숨털처럼 가볍던 아이들이 어느새 커서 묵직합니다. 다른 집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빠는 찬밥 신세라는데 저희 집에서는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자랑같이 들릴지는 몰라도 우리 애들은 아빠 없이는 죽고 못 살거든요. 언젠가 한번은 온종일 아이들과 실랑이 하며 보낸 아내가, 엄마 좋다며 매달릴 땐 언제고 아빠가 퇴근하자마자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날름 아빠에게 안기는 아이들을 보니 내심 서운하기까지 하다고 했죠. 이쯤되면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따르는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육아의 반은 내게 맡기시라! 의기양양하게 육아전선에 뛰어들어 이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어엿한 슈퍼맨이 된 저의 비결은 바로 제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빠를 부탁해!

저도 처음부터 육아 만렙 아빠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수자원공사에 입사하기 전, 육군 대위 출신인 전 가족보다는 항상 부대원과 조직이 우선이었습니

다. 첫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한창 진행중인 훈련으로 잠깐의 특별휴가를 얻어 풀면서 출산 장면만을 보고 다시 훈련으로 복귀할 정도였으니, 가정에 충실하기는커녕 부족하기만 한 아빠였습니다. 그 후로도 육아에 많은 참여를 하지 못하였고, 가끔씩 보는 아이가 조금만 컨디션이 나빠도 어쩔 줄 몰랐고, 나를 낮설어하는 아이한테 서운하면서도 미안한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연년생으로 둘째가 태어나고 나니, 아내랑 마주 보고 밥을 먹어본 게 언젠가 싶도록 서로 번갈아가며 식사를 하고 돌보고 한 놈 재우면 다른 한 놈이 짹하고 울어대는 통에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게다가 육아를 위해 잠시 일을 쉬게 된 아내를 대신해 든든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커서 오로지 일에만 빠져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당시의 저는 행복이란 것이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어야만 가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바쳐온 균 생활을 불의의 사고로 중도하차하게 되었고, 건강을 회복하면서 준비 없이 접하게 된 사회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에서 두 아이를 돌보느라 녹초가 된 아내는 점점 더 우울한 표정이 되어갔지만, 이를 쓰다듬어줄 여유조차 제게는 없었습니다.

사회생활에 뛰어들고, 든든한 가장이 되고자 회사에 몸 바쳐 일하는 술한 아버지들을 보았습니다. 새롭게 입사한 직장에서 매일 밤낮으로 이어지는 야근과 주말근무에 지쳐 있을 때, 한번은 이사님이 잘하고 있다고 저를 다독이시며 자신도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일 외에는 모든 걸 버렸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근엄한 말투에서 큰 자부심도 느껴졌지만 표정은 조금 쓸쓸해 보였습니다. “지금은 행복하세요?” 라고 묻고 싶기도 했지만 저조차 행복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나 역시 행복할 겨를도 없이 그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저 버티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든든한 가장이 되어야지’,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지’라는 마음이 모든 시간을 오롯이 일에 쏟아 붓게 만들었다는 게 참 모순 같지만,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그래 왔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노년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빠와의 추억을 손에 꼽을 정도로 만들고 싶진 않았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일에 매몰되어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에 소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오로지 일에만 매달리며 내달리던 것을 잠시 멈추고 가족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슈퍼맨이 돌아왔다!


좀 더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고 함께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자발적 수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도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는 일자리입니다. 자녀양육, 자기계발 등 시간선택제 근로를 희망하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정부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었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적합직무를 개발하여 2014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최초로 채용한다는 소식은 마치 나를 위한 선물처럼 소중한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함께 입사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동기들은 새롭게 일자리를 찾던 두 아이의 엄마, 임신을 하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둘 수밖에 없었던 30대 초반의 초보엄마부터 자격증을 준비하는 열혈청년까지 모두 다양한 얼굴이었지만 시간선택제라는 새로운 제도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한 것은 같았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믿던 저 또한 시간선택제라는 날개를 달고, 슈퍼맨이 되어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7년간의 군생활과 야근을 일삼던 전 부서에 길들여져 있던 제게 처음에는 시간선택제 근무가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통상근무자와 다르게 6시간의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내가 조직에서 조금 다른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남자로서의 야망이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온 것 같다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통상근무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직원들은 다수 있었지만, 처음부터 시간선택제로 직원을 채용한 경우는 처음이었기에 직원들도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퇴근을 하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서장님과 동

료들의 도움으로 점차 제 근무제도에 대해 많은 직원들이 관심도 가지고 이해해주었고, 많은 응원도 해주었습니다. 공사 자체적으로 시간선택제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요일선택제 등 다양한 시간선택제 근무유형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갔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제도에 대한 전 공사적인 공감대와 근무여건 확립이 빠르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또한 교육훈련이나 복리후생도 통상근무자에 비해 불리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조직의 적응에도 어려운 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육아에 전념하느라, 남편을 따라 이리저리 이사를 하느라 친구도 많이 못 사귀고 우울해 하던 아내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며 집안에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여가 지난 지금 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뤄냈습니다. 남들보다 짧은 근무시간이기에 더욱 집중해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육아를 전담하면서 회사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는 직원으로, 집에서는 아내와 아이의 다정한 아빠로 2가지 역할을 모두 성공적으로 해내는 '슈퍼맨'이 되었습니다. 아이만 안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제게도 좋은 아빠가 되는 저만의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간단히 공개한다면,

① 아직 서툴수록 좋은 아빠가 될 기회! 분유 먹이기,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책 읽어주기 등 부족하기에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꾸준히 시도하다 보면 내공이 쌓이며 아이와의 친밀도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② 아내에게 잘한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아빠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아이들의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감정이 전달되도록 아내에게 잘해야 하는데 사실 여자들이 거창한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다정하고 따뜻하게 말해줄 때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③ 함께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든다! 아이와 공통 관심사나 취미가 있다면 서로 공감하고 거리도 가까워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은 보드게임을 알고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기에 아내와 아이들과 저녁에는 다함께 간단한 보드게임을 즐깁니다. 너무 간단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 간단한 노하우를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꼭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시차출퇴근제, 유연근무제, 남성육아휴직 장려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아빠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많은 아빠를 보면 마음은 있지만 바쁘다 보니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며, 또한 함께 놀고 싶어도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 부지런히 돈을 벌어 놓은 다음에 놀아줘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빠들도 있습니다.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좀 더 돈을 번 다음에 아이들과 놀아주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아빠들의 착각입니다. 아빠가 시간과 돈에서 여유로워질 때쯤이면 아이들도 자라서 더는 아빠가 필요없게 되기 때문이며 아빠 역할을 자꾸 포기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들이 그랬듯이 가정에서 소외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더욱 나를 따르고, 보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처음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막연하게 꿈꿔왔던 행복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이를 이뤄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일·가정 양립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4

든든한 백(back)!! 시간선택제

채○○/한국철도공사

<그래, 내 비록 나 예전 꽃단장하고 출근하던 이 시간에 개기름 얼굴로 이도 못 닦고 너와 아침부터 계단 무한반복 오르내리기, 하수구 물 무한 쳐다보기, 남의 불편함 무한 열고 닫기, 허리 구부려 개미 관찰하기, 자전거 바퀴 자동차 휠 무한 돌리며 만지기를 하고 있는 지금이 출근하던 그때보다 더 값지고 보람차다고 말은 못하겠지만...그래도 이 민폐 행동들을 도우미 아주머니나 할머니가 아닌 엄마인 나와 할 수 있고, 네가 그런 것에 행복해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이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련다.

아가야! 내년 봄엔 짤 없다. 넌 어린이집 가고 엄마 화장하고 회사가는 거다잉~~~~>
한참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15개월 아이를 두고 쓴 2년 전 일기입니다.

결혼 6년 만에 아이를 어렵게 갖고 낳았습니다.

사기업이라 육아휴직은 꿈도 못 꾸고 주어진 출산휴가 3개월을 조금이라도 더 아이와 같이 보내고 싶어 출산하는 당일 5시까지 근무하고 7시에 병원에 입원하여 아이를 출산 하였지만, 출산휴가 3개월이 끝나갈수록 아이를 남의 손에 맡겨 키울 자신이 점점 없어졌고, 결국 12년간의 직장생활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 쭉 직장생활을 하였고, 업무수행능력을 인정받으며 그 속에서 얻는 자신감과 만족감에 지지치 않는 12년이었지만 출산 후 아이가 한참 엄마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내'가 아닌 '엄마'를 선택하는 게 지금은 맞다는 결정을 내려 일을 그만두었고 전업주부로서 육아 3년, 아이에게 집중하며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 과연 나를 다시 오라고 할 수 있을 직장은 있을는지, 직장에 복귀 하더라도 아이를 키우며 빠빠한 출퇴근 시간을 어찌 지켜낼 수 있을지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육아를 하는 동안 경력이 '단절'된 제게 정부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방침은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시행 초기 대기업에서 한참 뽑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지방소도시까지는 그 기회가 내려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구인광고만 주시하던 때 드디어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구인광고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은 경기도나 서울에 집중되어 있지만, 공공기관은 각 지방에도 인원배치를 하기에 지방에 거주하는 지역 소외계층의 저 같은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구인광고를 보는 순간 정말 가슴이 떨렸고, “아~내가 정말 잘 할 수 있겠구나..정말 하고 싶구나...”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들쳐업고 졸업증명서 및 경력단절을 증명하는 건강보험공단 서류 등 여러 기관을 다니며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이력서도 다시 작성하고, 정성들여 자기소개서도 며칠 밤을 고심하며 썼다지웠다를 반복하여 1차 서류합격을 얻어냈습니다.

2차 필기시험을 준비해야 했기에 오전에는 아이랑 최선을 다해 놀아주고, 낮잠잘 때 맞춰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가 더운 여름 커피숍에 앉아 요즘 부러웠던 대학생들마냥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필기시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깨고 나면 다시 전업주부로 돌아와 아이와 또 한 번 놀아주고, 저녁밥 먹이고, 집 치우고, 씻기고, 아이가 잠들면 다시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공부는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켰고, 아직 늦지 않았음을, 육아로 지쳐있던 내 삶에 채○○이라는 자아를 다시 심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의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전 끝에 지금의 한국철도공사 3차 면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위해 오랜만에 백화점에 가서 옷도 사 입고, 머리도 하

고, 메이크업도 받았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는 긴장된 긴 면접시간을 이겨내고 한국철도공사 1기 시간선택제 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합격의 기쁨은 12년 전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보다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제2의 인생 시작을 알렸고, 아이도 돌봐줄 수 있으면서 일도 같이할 수 있는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대한민국의 여성에게 너무 좋은 기회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선택제는 말 그대로 시간을 선택하여 그 시간 동안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저는 10시에 출근하여 3시에 퇴근하는 하루 4시간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10시 출근이기에 재촉하지 않고 아이의 아침밥을 챙겨 먹일 수 있고, 다른 아이들 엄마 같이 등원하는 유치원 버스 창문 너머로 아이에게 손 흔들어주며 아이 등원을 도와준 뒤, 출근하여 비록 4시간 근무일지언정 4시간만 일할 수 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여 업무처리를 하려 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왔다는 자신감에 하루하루 만족하며 즐겁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 3시면 퇴근하기에 다른 사람이 아닌 엄마가 직접 아이의 하원을 지켜볼 수 있고 비록 회사에서 퇴근 후 가정이라는 곳에 다시 출근하는 서글픈 마음도 들 때가 있지만, 오후시간마저 간식을 직접 먹고 엄마와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전일로 근무하는 워킹맘들에게 너무 미안할 정도로 만족스럽습니다.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부서는 전일 상주하는 사무직원 없이 교번제로 바뀌는 시스템의 남자분들만 계신 부서입니다. 비록 어리고 예쁜 젊은 아가씨가 발령받진 못했지만, 남자 대 여자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정을 나누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포지션에서 능력을 펼치며 일할 수 있는 고마운 자리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다시 재취업시킨다는 의미는 구직자에게 경력과 경제력을 다시 한번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기업에겐 그들의 노하우를 시행착오 없이 바로 업무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간 업무공백이 있던 제게 일자리를 나누어 주었고, 사무직원 없던 사무실에 미약하나마 존재감을 펼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한 제도입니다.

물론, 처음 업무배치를 받고 시간선택제 도입이 처음인 공사에서 서로간의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발령받은 곳이 교번근무에 사무직종이 아닌 분들이 근무하시다 보니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소소한 근무 팁을 눈치로 알아가는 게 갑갑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모든 회사일이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할 순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큰 틀을 공사의 집중된 오리엔테이션이나 일대일(1:1) 멘토링제를 통해 근무의 정확성과 유연성을 높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덧붙여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간선택제가 전일근무가 아닌 반일근무의 형태이다 보니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전문적이지 않은 보조업무가 주를 이루는 한계점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고도 승진이나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반일근무 형태가 적합하지만 아이가 엄마의 손을 덜 필요로 할 시점에선 그때까지 쌓은 업무경력과 근무만족도로 근무형태의 전환도 자유로울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희망을 가져 봅니다.

저 같은 시간선택제 사원이 늘어나면 그 정책과 노하우 또한 더욱 쌓이리라 믿습니다.

이제 저는 12월이면 둘째아이 출산휴가에 들어갑니다. 첫째아이 출산때 처럼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을지, 아이를 양육하며 일과 가정을 다 지킬 수 있을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은 이제 없습니다.

이 또한 시간선택제 근무라는 든든한 백(back)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아실현, 나아진 가정경제는 물론이고 일자리 증가로 침체된 한국경제에도 온기를 불어넣어준 이 일자리에 감사하며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맡은 바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엄마이자 직장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멋진 엄마, 멋진 아내, 멋진 직장인 세 마리 토끼를 잡게 해준 희망의 등불

최○○/한국자산관리공사

엄마!! 나 합격했어!!

눈을 떠보니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서 예쁜 딸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서 열심히 회사를 다니다 연애도 하고 결혼을 하면서 내 삶은 크게 달라졌다. 법학을 전공하여 첫 직장을 저축은행으로 입사를 하였고 예금과 대출업무를 맡으며 부동산과 금융, 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대학원에 진학을 하여 부동산법학을 전공하였다. 내 일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기에 가능한 도전이었다. 하지만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그리고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열정만 가지고 도전하기에는 무모하리라고 느껴질 만큼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해보니 목도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두고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 상황이 아이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들게 하고 회사와 동료들에게도 누를 끼칠 것만 같았다. 결국 내 커리어를 포기하고서라도 내 아이를 위해 육아에 전념하기로 하였다.

아이를 키우며 한 아이의 엄마로서 받는 기쁨과 행복함이 너무나 컸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이 크게 느껴졌다. 주변 친구들은 여전히 직장생활을 하고 자기 꿈을 펼치며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난 집에서 아이와 지내며 사회와 등지고 사는 것은 아닌지, 괜한 불안감이 생기며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계발을 했던 일들이 떠올라 스스로 주눅이 들 정도로 일에 대한 간절함이 더욱 커져갔다. 일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육아를 하며 마치지 못한

대학원을 끝내고 직장생활까지 해내야 하는 슈퍼맘으로 도전해야 했기에 쉽사리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아이를 좀 더 키우고 사회생활을 시작해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아이가 크는 시간만큼 내 시간과 나이도 흐른다는 것을 느끼니 내 자신이 더욱 초라해지는 것만 같았다. 신입으로 지원하기에는 늦은 나이가 아닌지, 경력으로 지원하려면 경력단절 기간이 더 길어지기 전에 당장이라도 빨리 지원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한 마음까지 더해져 선뜻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무더운 여름, 아이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부채 하나를 받게 되었다. 육아를 하면서 티브이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접할 시간이 없어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나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홍보 부채는 새로운 꿈을 가지게 하고 도전할 용기를 주었다.

유연근무라면 일을 하면서 내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함께 지켜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긴 것이다. 채용이 된 것도 아닌데 마치 채용된 것처럼 들뜨고 기뻐 신이 났던 그날의 기분을 잊지 못할 것 같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아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한 만큼 채용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산국제금융센터로 입주하게 된 것이 나에게 운명처럼 느껴졌다. 더군다나 전 직장의 5분 거리에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있어 출·퇴근길에 유심히 봤던 곳이라 감회가 남달랐다. 마침 석사논문도 다 마친 상황이었고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 누구보다 나에게 맞는 채용광고라는 생각에 첫 입사할 때의 기분처럼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6년 만에 쓰는 자기소개서를 몇 번이나 고쳐 읽고 내가 찍은 제일 예쁜 모습의 사진과 한 아이의 엄마로서의 책임감까지 더해 정성스럽게 면접준비에 임했다. 수험생의 마음으로 책상에 앉아 다시금 책을 펼치고 공부를 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했다. 지원자들의 다수가 사회에서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혼과 출산, 육


아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된 분들이었기에 경력이 만만치 않았고 일에 대한 열정과 간절함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기를 친정어머니께 맡겨 가며 공부를 하고 면접준비를 했기에 합격에 대한 간절함과 기대감이 절실했고 부담감은 더욱 커졌다. 나의 이 간절함이 전달이 된 건지 최종 합격발표를 보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엄마!! 나 합격했어!!”

어머니는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육아를 하는 딸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었는데 마음의 짐이라도 푼 듯 합격소식에 덩달아 우셨다. 나도 우리 엄마의 딸이었던 걸 그동안 잊고 있었나 보다.

“안녕하십니까? 국민행복지원부 신용회복지원팀 최○○입니다.” 시간선택제의 유연근무로 내 아이의 성장과정을 지켜보고 내 스스로의 커리어를 쌓으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육아와 직장생활의 병행이 어려운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시간선택제의 유연근무제도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게끔 나에게 희망의 디딤돌이 되었던 만큼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 업무를 통해 과도한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에게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고 금융 소외자들에게 희망의 디딤돌이 되어야겠다는 희망찬 포부로 일을 시작해본다.

부산에서 가장 멋진 건물인 BIFC 40층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해가며 누구보다 멋진 엄마로, 누구보다 멋진 아내로, 누구보다 멋진 사회인으로 발전할 내 모습을 그려본다. 

6

“나에게, 내 아이에게 딱!” 시간선택제 근무

우○○/한국주택금융공사

2013년 유독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던 어느 추운 겨울날, 아기 천사를 만났다. 2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아이의 웃음소리에 함께 웃고, 울음소리에 함께 아파했던 실수투성이 초보 엄마의 아름다운 성장은 지금껏 내가 해낸 일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일이었다.

하지만 성장한 만큼 온종일 아이만을 생각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 기간의 끝도 가까워졌기에 종종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것도 사실이었다. 모유 수유를 하면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언제나 함께했기에 아이를 두고 다시 회사생활을 하려니 복직이 가까워질수록 근심은 깊어져만 갔다.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퇴사를 고민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은행원으로서의 내 모습을 잃는다는 생각에 서글픈 마음도 들었다.

열정 가득했던 직장생활, 그러나 퇴사 고민

“어서오십시오. 고객님!” 누구보다 큰 목소리, 환한 미소를 띠고 고객을 맞이하는 나는 전문가이다. 고객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고 나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재테크상담을 끝낸 후 고객만족까지 이끌어내어야 비로소 만족하는 열정 가득한 은행원이었다. 단 1원이라도 고객에게 이익이 되도록 고민하고 그 일을 해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은행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나의 열정은 CS친절직원, 그

립실적 1위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직 후 엄마인 은행원은 항상 시간이라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출근시간은 있지만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은행 업무의 특성상 육아를 하기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아이가 엄마를 보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일이 빈번해질 것은 볼 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래도 회사를 그만두는 것보다는 지금은 힘들어도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게 나중에 가서는 아이에게 더 좋을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안하며 복직 준비를 했다.

복직을 일주일 앞둔 아침, 아이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다가 엄마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해 하는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는 순간 ‘내가 이 소중한 시간을 버리고, 무엇을 하려는 거지? 복직을 하는 것이 정말 아이를 위한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나의 이기심 때문에 아이와의 다시 오지 못할 소중한 시간을 포기하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퇴사만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운명처럼 다가온 한국주택금융공사 시간선택제 채용공고

하지만 무턱대고 퇴사를 하려니 직장을 잃는다는 공허함이 생각보다도 컸다. 일과 육아를 양립하고, 그 두 가지 모두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이 현실적으로 존재할지가 의문이었다.

복직한 동기에게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은행 복직 후 아기의 잦은 병치레로 퇴사를 한 뒤 1년 전 신한은행 시간선택제에 채용된 다른 동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일과 가정의 병행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사실 시간선택제라는 채용 형태를 말로만 들었을 때는 막연히 전일제에 비해 불합리한 근무조건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일제와 동일한 근무조건에 다만 일한 시간에 비례한 보상이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였다. 또한 나처럼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자 하는 워킹맘, 혹은 일과 다른 무언가를 함께 해나가야 하는 많은 이들을 위한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획기적이고 사려 깊은 채용방법이 아닐 수 없었다.

다양한 시간선택제 채용 중 ‘한국주택금융공사 시간선택제 정규직 채용’ 공고가 가장 눈에 띄었다. 4시간의 근무시간과 정규직 채용, 전일제와 동일한 복지혜택 등 양질의 근무조건과 이전 직장과 동일한 직종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완벽했다.

마치 운명처럼 나에게 다가온 것이다!

내 아이는 유독 다른 아이들에 비해 엄마와의 유대가 강하였다. 긴 시간 동안 모유 수유를 했기 때문에 애착 대상이 엄마이다 보니 엄마가 없으면 불안감을 느껴 잠을 이루지도 못했다. 그런 아이를 떼어놓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시간선택제 정규직을 준비하는 동안 비록 가슴은 미어졌지만, 힘든 시간을 지나 1차, 2차, 3차, 4차... 한 계단 한 계단씩 이루어내어 마침내 최종합격을 하던 그날, 주체할 수 없었던 그 기쁨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4시간의 열정’ 시간선택제의 하루


첫 출근날, 전 직장에서는 수신업무 위주로 경력을 쌓았다면 공사에서의 업무는 여신 업무였기에 새로운 업무를 배우고 새로운 환경에서 일을 한다는 설렘 반과 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까?, 시간선택제라서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반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회사를 향했다.

그러나 걱정과 달리 생각지도 못한 따뜻한 환영을 받아 오히려 얼떨떨했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기기업으로서 가장 먼저 시간선택제를 채용한 곳으로, 채용에 앞서 인사부와 전 직원이 함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간선택제에 대한 이해와 그에 맞는 업무에 대한 고민을 우선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특히 원하는 근무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큰 배려이며, 이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주어진 업무는 디딤돌-보금자리 대출심사와 주택연금, 그리고 각각의 사후관리이다. 욕심 같아서는 개인보증과 사업자보증까지 배우고 싶지만 4시간이라는 시간적 한계와 아직은 신입이기에 시기상조이다. 지금은 주어진 업무를 실수 없이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도 내 손으로 국민의 보증자리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면 그 뿌듯함이 크다. 또한 상담전화 중 고객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 직장의 업무지식을 활용하여 고객만족을 이끌어 낼 때 그 기쁨은 배가 된다. 더불어 공기업이라서 기업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다. 대출금리를 높이 받아 기업이익을 높이는 고민보다는 0.01%라도 고객에게 금리 인하를 해줄 수 있는 고민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알아주듯 때때로 홈페이지를 통해 올라오는 고객의 칭찬 글은 열정을 북돋아주는 원동력이 된다.

오늘도 나는 4시간에 맞춰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업무를 분배하고, 더 집중력 있게 심사와 고객상담을 한다. 전일제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열정이 가득하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퇴근 후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와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간절하고 보고꿨던 마음을 담아 더 큰 사랑으로 육아를 한다. 이직을 하면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풍성해지고 행복한 만큼 나는 시간선택제 근무자가 된 것을 매 순간 감사히 여긴다.

시간선택제 근무는 정말 “나에게, 내 아이에게 딱!”이다. 

PART **II**

직무능력중심
채용



1

최고령 신입사원, 능력만 보고 선발됐다

하○○/국립공원관리공단

2015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직으로 입사한 신입사원 하○○입니다. 올해 49살로 우리 공단 신입사원 중 최고령자이지만,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15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무턱대고 시작한 장사가 실패한 후 자포자기하던 차에 심신을 추스르기 위해 산에 폭 빠져 지내던 2010년, 저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첫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정부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이었던 ‘재난지킴이’ 사업에 참여하여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분소, 인수대피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저는 북한산 인수봉, 백운대 등에서 부상으로 생명의 위협에 처한 탐방객을 응급처치 후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탐방객 구조활동과 재난예방을 위한 낙석방지시설, 탐방로 정비사업 등을 하며 지난 5년을 보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던 때 자살을 예고하고 실종된 탐방객 시신을 찾았을 때 그 처참한 모습에 너무 놀라 악몽을 꾸기도 하고, 한동안 식사를 못하는 등 충격이 꽤 오래 갔습니다. 그렇지만 시신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보내준 후 실종자 가족의 고맙다는 인사에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처리하고, 어려움에 처한 탐방객을 도와주는 일을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실제 여러 상황에서도 주도적으로 업무에 임해 왔습니다. 일찍이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재능을 찾아내어 매일매일 즐겁게 근무하고, 직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법 강사와 산악안전법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배운 전문적인 안전사고 대처 방법은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매우 유용했으며, 저의 특기를 활용해 휴일에는 서울시 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을 가르치는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매년 100시간 이상 꾸준히 해오는 등 제 일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사업의 특성상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게 되면 일할 수 있는 자격마저 소멸되는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 왔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었지만, 불안정한 신분엔 많은 고민이 되다 보니 항상 불안감은 마음 한 편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정규직 직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북한산 곳곳을 누구보다 잘 알고, 사고현장에서 탐방객 구조와 현장 수습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데, 사회에서의 저는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2015년 5월 1일 북한산 노적봉 삼거리에서 발생한 심정지 탐방객을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해 살려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저의 두 손으로 그분의 가슴을 압박하여 숨이 돌아오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생명이 경각에 달린 탐방객들을 구조하다 보면 항상 구조자의 2차 사고예방에도 신경써야 하지만 저는 몸을 돌보지 않고 구조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우만 해도 나뭇가지에 긁히고, 바위에 부딪혀 생겨난 상처가 온몸에 있으며, 움직이지 못하는 탐방객을 들것에 싣고 신속하게 헬기로 이동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산길을 뛰어다니다 보니 무릎통증과 근육통에 시달린 적도 많았습니다.

제가 정규직원이 되는 길은 오직 공개채용 시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나이와 고졸이 전부인 학력, 내세울만한 스펙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정규직 공채시험은 저에게 너무 요원한 꿈이었습니다. 2010년 입사 이후 매년 정규직 공채시험이 있었지만, 이러한 이유로 한번도 응시할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5년 직무 전문성을 특정하는

NCS 기반 채용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묵묵히 직무와 관련된 경험과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던 저에게 경쟁력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계발 차원에서 2014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직무 무관사항으로 입사지원서에는 제출하지 못함)을 취득하고, 평소 시사·상식 공부를 꾸준히 해오고 있었으며, 직무 관련 자격증은 이미 취득한 상태여서 마치 저를 위한 한줄기 빛이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 5년간 익혀온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구조능력을 고용에 대한 불안감 없이 더 큰 무대에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면서도 과연 나이와 학력, 스펙을 무시하고, 직무능력만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할까 하는 노파심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제출하고, 작년에 보았던 한국사 수험서와 일반상식 수험서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올해 처음 도입된 실기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서툰 연습, 인공암벽장 실습과 평소 익숙하던 매듭법은 무의식적으로도 할 수 있게 반복연습을 계속했으며, 119특수구조대와 적십자사를 찾아가 최신의 심폐소생술을 배웠습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그리고 인성검사를 통과하고, 면접시험을 앞두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메르스까지 유행하는 시점이어서 재채기를 하고 몸에 열이 나면 면접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몸관리까지 잘해야 하는 압박감에 체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긴장하고 걱정하던 면접을 큰 문제없이 잘 치르고 드디어 합격자 발표일, 합격을 확인한 순간 저와 아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정말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빠도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성취해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큰 교육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직무능력을 인정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에서 동기생들을 보니 다양한 연령층의 유능한 사람들이 선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기들은 학력과 어학점수가 높거나 스펙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안전방재, 자원조사, 연구, 선박 등 실제 직무에 적합한 인재들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배우지 못했던 우리 공단의 여러가지 모습을 학습하면서 국립공원관

리공단 레인지임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인재개발부, 안전방재처 선배님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나도 그분들처럼 일하고 싶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선배님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육은 업무와 사회생활을 하는 저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증가하는 중국인 탐방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작년 10월에 시작한 중국어 공부를 계속해서 우리의 선진 공원관리 기술을 중국에 전파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안전방재분야에서 최고의 실무전문가가 되기 위해 부단히 배우고, 어디에서든 진심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공단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대한민국의 취업 준비생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NCS는 제2의 스펙이 아닙니다. 미래를 불안해 하며, 불필요한 스펙에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입니다. 모든 시간을 책상에 앉아 수험공부에만 할애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신의 적성과 꿈, 잘할 수 있는 끼를 발견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아간다면 여러분에게도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긍정의 열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2

지금 필요한 것. 화려한 스펙이 아닌 수수한 두 가지 단추

박○○/한국도로공사

정말 많은 ‘것’이 필요했다. 대학교 졸업 후 취업을 위해서는, 그 많은 ‘것’ 중 토익점수, 그것도 변변찮은 점수밖에 갖추질 못 했다.

하지만 토익점수가, 많이들 다녀온다는 어학연수가,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컴퓨터 자격증이 내가 얻을 직업에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은 사라지질 않았다.

그리고 그 의문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의 능력중심채용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풀리게 되었다.

그 첫 단추, 보여주기 위한 스펙 쌓기는 답이 아니다

2014년 봄, 공부하던 시험에 낙방했다. 2년여간의 공부가 수포로 돌아가자 후폭풍은 거셌다. 중간 수준의 학점, 흔하다는 컴퓨터 자격증과 인턴경력도 전무, 어학연수도 갖다오지 못한 상황에서 취업으로 가는 첫 단추는 찾을 길이 없어 보였다. 가장 기본 취업 스펙이라는 토익점수를 위해 학원을 다녀보았지만 짧은 시간에 높은 점수를 만들 수는 없었다. 그리고 높은 토익점수와 취업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문만 커져가는 도중 우연히 그곳을 가게 되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기획재정부 주최하에 100여개의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 관련 채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박람회였는데, 각 공공기관마다 인사담당자와 최근 입사자들이 홍보부스에 자

리하여 정확하고 생생한 채용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취업으로 가는 첫 단추를 발견했다.

한국도로공사 홍보부스에 앉아서 설명을 들을 때였다. 도로공사 채용과정에 대해 설명하시던 2014년 입사자 분이 채용설명 프린트를 옆으로 치우시더니 대뜸 질문을 하셨다.

“무슨 공부 하다가 오셨어요?”

당황하여 ○○공부 하다가 왔다고 답하였다. 그랬더니

“하시던 공부 계속 하셔서 시험 보시면 됩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천둥이 쳤다. 소위 스펙을 위해 보여주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공(公)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해온 공부가, 쌓아올린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인정받는 것 같아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았다. 토익점수, 어학연수, 컴퓨터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돌아온 답은 명료했다.

“물론 토익점수가 높으면 좋고, 어학연수 경험과 컴퓨터 자격증이 있으면 좋지만 그 점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대학교에서 하시던 공부는 공사 직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쓰이고, 1차 시험 또한 공부하셨던 내용이 공사 직무와 관련하여 문제로 나옵니다.”

남들이 하기에 따라하는 스펙 쌓기는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스스로가 원하는 직업, 직무와 관련된 공부와 노력. 이것이 취업으로 가는 첫 단추임을 어렵듯이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단추, NCS 기반 채용제도의 도입과 이에 따른 준비

2015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제도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일대 혼란을 불러왔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NCS에 대한 기초 정보는 분명하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지원하려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지식과 역량은 무엇이며, 이를 사전에 세세하게 구분해 놓은 제도. 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한 시간을 줄여주고 취업 준비생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직무역량을 알려주기 위한 제도. 또한 기존의 인·적성 검사가 자신이 지원하려는 회사의 직무와는 관련 없이 단순한 지식평가를 위한 시험이었다면 NCS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회사와 관련된 지식과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심층적인 평가를 하는 제도이다. 두 번째 단추는 이러한 NCS 제도의 도입과 이에 따른 준비였다.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제도의 도입으로 여러 회사에 문어발식 입사지원서를 지원하는 방식은 빛을 보기 힘들다고 생각했기에 상반기에는 관심이 있던 도로공사 한 곳을 목표로 삼았다. 직무역량을 기르기 위한 전공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는 한편 도로공사를 알기 위해 도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도로공사의 연혁과 조직, 하는 업무, 관련된 직무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데 시간을 할애하였다. 시험에서 직접 답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도움이 되리라는 믿음과 함께. 이러한 준비는 도로공사 1차, 2차, 3차의 모든 채용과정에서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1차 서류전형부터 NCS 기반 채용제도가 도입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기존과는 다르게 최소요건만을 갖추면 2차 필기전형을 응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특히 토익점수. 높은 토익점수와 취업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회의를 느끼던 나에게 700점 이상이면 1차 서류를 통과, 후에는 평가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큰 의미로 다가왔다. 또한 직무기반 역량기술서를 작성 시에도 도로공사에 대해 미리 공부했기에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2가지. 거대한 스펙들이 아닌 최소요건만을 갖추고 필기시험을 볼 수 있었다. 어느 회사의 채용과정이든 필기시험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필기시험 내용을 공개하는 회사도 있지만 비공개하는 회사도 있는데 NCS 기반 채용제도에서는 어떤 회사의 필기시험이든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응시했던 직렬의 도로공사 필기시험 또한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시험문제

가 출제되었다. 도로공사에서 많이 나타나는 상황을 케이스화하여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고, 몇 문제는 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이 직접적으로 출제되기도 했다. 2차 필기시험 또한 NCS 기반 채용제도가 도입되었음을 그리고 그에 따라 준비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합격자임을 통보받았다.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알 수 있었던 전형이 바로 3차 면접전형이었다. NCS 기반 시뮬레이션 PT 면접이었는데 도로공사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상황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등을 반영한 구조화된 면접지를 통해 응시자의 상황을 해결하는 직무수행능력과 역량을 평가하였다. 휴게시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법, 야간운전과 졸음운전의 방지를 위한 노력, 노인운전자의 증가에 따른 대책 등 도로공사 실무와 관련된 내용이 PT 면접문제로 출제되었는데 그 중 한 문제를 면접지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임원 분들 앞에서 발표하였다. NCS 기반 채용제도의 목적은 자신이 지원한 회사가 하는 직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는 점을 면접전형에서 몸소 느꼈다. 그리고 최종 합격 후 현재 나는 도로공사에서 근무 중이다.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제도에서 느낀 점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제도는 취업 준비생에게는 불필요한 스펙쌓기를 위한 시간낭비를 줄임과 동시에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능력을 평가하여 능력중심의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제도이다. 내가 NCS 기반 채용 시험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이와 같은 방향성에 알맞게 나아가고 있는 채용문화였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기에 이에 대해 적어보고자 한다.

먼저, 시험에 대한 정보공개가 많은 부분 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NCS를 도입, NCS 기반 시험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시험문제와 면접질문 등 중요한 정보가 비공개이기에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정보를 모으는 데 시간을 쓰고 있으며, 실제로 NCS 기반의 시험이 나오는지에 대한 불신도 나타나고 있다.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각 공기업마다 예시문제 등을 만들어 NCS 기반 시험을 실시하고 있음을 미리 알려주면 좋겠다. 이럴 경우 지원자는 관련 공기업의 직무가 무엇인지 수월하게 파악하여 직무역량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공기업은 직무에 알맞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어 서로에게 득이 되며 능력중심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

두 번째로, NCS 기반 채용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신입직원으로 구성된 홍보 인력풀을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NCS 제도의 확실한 정착을 위해서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한 홍보, 권역별 설명회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작년 혹은 이번 연도 신입 직원들의 생생한 입사후기야말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인데 신입직원들의 경우 많은 부분 위와 같은 홍보매체의 구성원에 속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NCS 기반 채용제도의 사회적인 정착을 위해 각 공기업마다 신입직원으로 구성된 홍보 인력풀을 확보하여 2~3년간 한시적 운영을 한다면 NCS 제도의 조기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NCS 기반 채용제도의 도입을 통해 처음 선발된 도로공사 신입직원이기에 NCS 채용제도에 대한 의미가 남다르다. 고스펙 위주의 채용문화를 개선하여 공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도와주는 NCS 제도 덕분에 도로공사와 연을 맺을 수 있었고 지금의 내가 있다. 또한 시험 준비 시부터 도로공사에 알맞은 직무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NCS 제도 덕분에 나의 역량에 맞는 업무를 맡아 도로공사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다. 보여주기 위한 스펙이 아닌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제도인 NCS.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채용제도로서 성공적인 정착을 할 것이라 믿는다. 

3

NCS로 두드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조금 늦게 찾은 직업의 방향, 그리고 좌절

‘이래도 되는 걸까?’ 잘 다니던 전시회사를 그만두고 동기들보다 다소 늦은 나이에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항상 머리를 떠나지 않는 생각이었습니다. 대학원을 마치면 서른을 넘긴 나이였기에 다른 직종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무모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박물관 교육’ 분야에 몸담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기에 의구심과 걱정 속에서도 막연한 희망으로 꾸준히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동향을 연구하며 대학원 생활을 보냈습니다.

졸업을 하고 꿈을 펼치고자 여러 박물관의 교육담당 자리를 알아보았지만 채용공고도 거의 나지 않았고 응시하는 시험에서도 번번이 낙방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분야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고학력에 유학파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헛된 꿈을 꾸는 것 같다는 후회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육 분야에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자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국가 산하기관에 파견직으로나마 들어갔습니다. 비록 불안정한 신분이었지만 실무에서 1년간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높아진 경험치 만큼 다시 꿈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공공기관과 박물관 교육 분야의 정규직 채용을 집중적으로 찾아보고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다

름없이 천편일률적으로 학력, 자격증, 어학성적,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입사포부에 대해서만 묻는 채용과정을 보며 결국 취업의 당락이 이전과 다름없이 스펙 중심일 것이라는 생각에 실망감만 커지고 몇 개월 동안의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낙담 속에 찾아온 ‘NCS 기반 채용’의 기회

지원서를 쓰고 면접을 보며 계속되는 낙방에 다른 직종을 알아보는 등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며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취업과 관련해서 자주 가던 인터넷 카페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박물관 교육담당을 뽑는다는 공고가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본 공고문에는 특이하게도 이제껏 보지 못했던 NCS 기반의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으로 NCS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각 채용분야에 관한 기초역량과 직무능력이 단위별로 상세하게 기재된 자료가 별도로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JDC에서 제공한 NCS 기반 채용에 관한 내용을 읽을수록 제가 해온 기존의 학업과 경력 활동 속에서 직무와 관련된 모든 경험과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번이 정말 마지막 두드림이라는 생각으로 학부 때부터 쌓아온 관련 업무경험을 되짚으며 박물관 교육과 관련된 직무능력 단위에 해당하는 저만의 스토리를 뽑아 한 땀 한 땀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원서 작성을 위해 관련 직무능력과 기초능력을 숙지하는 과정에서 취업 후의 업무에 대한 그림이 그려졌기에 지원동기에 대해서도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서류가 통과 여부를 알 수 없어 기다림이 한없이 초조하고 괴로웠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곳에 더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또 내가 잡을 수 없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NCS 기반의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생긴 업무에 대한 확신이 제게 찾아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서류 발표를 기다리면서 직무능력과 관련된 그동안의 경험을 되새김질하고


이미 JDC의 박물관 교육담당자라는 마음으로 유사 기관의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고 대안을 구상하며 논술과 면접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NCS로 두드린 문이 기어코 열렸습니다!

취업 후에도 나의 길잡이, NCS!

지금 저는 새롭게 열린 문 앞에서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신입 교육자입니다. NCS로 채용된 만큼 선배님들의 큰 기대에 부담도 느끼지만 때로 저의 업무 수행에 흠족해 하시는 모습에 사무실에 출근하는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비록 아직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량만을 갖추고 있는 상태이지만 앞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길 역시 국가에서 인정한 능력인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항상 NCS 단위들을 염두에 두고 업무 수행에 있어 제 자신을 점검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음 해에도 NCS 기반 채용으로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역량을 갖춘 후배를 동료로 맞이해 선배님과 함께 국가표준능력을 갖춘 ‘박물관 교육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NCS! 

4

조급해 말자! 취업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

양○○/한국국토정보공사

지방대학 출신에 3점대 학점, 토익520점, 수상경력이나 어학연수 없이 직무관련 자격증 3개와 인턴 경험만으로 NCS채용전형을 통해 공공기관 취업에 성공한 양○○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며 몇 번이나 넘어지고 실패하며 포기할까 망설였지만 ‘언젠간 이런 자리에서 취업 성공기를 후배들에게 알려줘야지!’ 이런 각오로 준비했던 저의 공공기관 취업 후기를 말할 수 있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끄럽고 초라하지만 쉬지 않고 달려온 저의 공공기관 취업사례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음만 급했던, 그래서 실패했던 취업준비

스무살이 되던 해, 수능점수에 만족하지 못한 저는 지인의 추천으로 지적부동산학과가 있는 전문대학에 입학하여 지적업무에 관련한 전공수업을 이수하였습니다. 이듬해 지적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지적학이 단순히 측량만이 아니라 토지관련 법규를 비롯한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폭넓은 공부를 위하여 법학과로 편입학 하였습니다.

군입대를 할 때는 지적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육군 포병 측지병으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야전에서 측량장비를 다루고, 풀을 잡고 뛰어다니며 전투력 측정에서 다른 부대보다 우수한 성적을 냈던 군생활을 통하여 측량업무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대 후 지적관련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취업을 위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노량진과 학교 도서관에서 지냈습니다. 친구들을 따라 스피크 쌓기에도 치중하였지만 취업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낸 대학생활은 제대로 면접 한 번 볼 기회 없이 초조한 마음으로 졸업을 하였고, 공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인턴자리를 알아보던 중 지적자격증 보유와 군대에서의 측량경력을 인정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인턴으로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적성을 찾아 나선 소중한 첫걸음 인턴생활

2010년 3월 사회에 첫발을 내딛던 날, 바람은 차가웠지만 햇살처럼 따뜻하게 맞아주 시며 훗날 정규직이 되어 함께하자는 직원들의 용기에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꿈을 키워 보자 다짐했습니다.

직장생활은 적성에 맞았기에, 정규직과 같은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였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토털스테이션을 활용한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 측량 등 세부측량의 외업과 내업을 해보았고, GPS 장비를 이용한 베셀좌표계와 세계측지계의 기준점 측량 경험을 쌓았습니다.

근무하는 지사마다 업무 목표량 100%를 초과달성하였으며 CS 우수팀으로 선정된 적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일반업무를 경험하였고, 특수업무를 수행하며 업무관련자들을 만나 협의하는 회의 참석 및 납품서류들도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매일같이 직접 발로 뛰는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퇴근 후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목표 달성을 위해 퇴근 후엔 지친 몸을 이끌고 항상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지적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본격적인 채용시험을 준비하였지만, 그해 모자란 가산점과 부족한 실력으로 인하여 필기시험부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실패하였습니다.

측량 및 지형정보공간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여 자격가점과 경력가점을 갖춘 후에 다시 도전하였습니다.

2013년 처음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하였고, 실기시험 및 면접을 보았지만 지방대 출신의 부족한 스펙탓에 스스로 위축되며 자신감 없는 답변들은 최종합격을 눈앞에 두고 또 다시 취업 준비생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활용한 직무능력평가

절망도 하였지만 계속되는 저의 도전은 기존의 지원서와 달라진 역량기반지원서를 시작으로 지난해와 달라진 유형의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후 실기시험, 경험면접과 상황면접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꿈에 그리던 공공기관에 최종합격까지 성공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대기업을 비롯한 서류전형 통과도 힘들었던 입사지원서는 학력, 학점, 어학 점수, 봉사활동 및 해외연수 경험 등을 물어보는 데 그치지 않고 본적, 아버지 직업과 직급, 가족의 최종학력, 지원하는 회사에 아는 직원이 있는가, 그리고 업무와 관련 없는 아르바이트 경험 등을 적으며 한 줄이라도 더 채우려 노력하였습니다.

2014년 공공기관 최초로 NCS를 도입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채용제도는 기존의 지원서에서 볼 수 없었던 역량기반지원서를 바탕으로 지적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지적관련된 경력이나 직무관련 항목 위주의 지원서를 물어보았으며 자격증 또한 지적측량업무에 관련된 자격증만을 지원서에 쓸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공공기관 필기시험은 영어와 상식과목이 보편적이었지만 영어와 상식과목이 없어지고 공인어학성적(토익기준 500점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에 불필요한 과목을 없앤 전공과목 위주의 필기시험은 전공지식의 깊이를 넓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2013년 최종 문턱에서 실패의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면접의 경우, '본인의 최종 꿈은 무엇인가? 회사에 입사한다면 어떠한 각오로 지내겠는가? 최근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인가?'를 비롯한 어학점수와 학교, 스펙에 관련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합격의 일등공신이었던 올해의 역량면접방식은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

다. ‘인턴생활을 하면서 보람있고 잘한 일은 무엇이었으며 느낀 점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떠한 일에서 그런 점을 느꼈는가? 왜 그부분에서 그렇다고 느꼈는가?’ 등의 생생한 경험면접을 질문하였고 ‘앞으로 입사해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가?’ 등 저의 실무능력이 업무 적용에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봤고 이에 대해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경쟁자들보다 부족한 스펙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현장에 대한 경험이나 갖춰진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14년 6월 14일 정직원으로서의 입사한 첫 날, 언제나 나를 믿고 응원해준 가족에게 당당히 “다녀오겠습니다” 외치고 집을 나선 그날, 그날의 설렘을 기억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및 정책 제언

인턴 경험을 통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입사의 목표를 정하기 전 막연히 공무원, 대기업 입사를 위한 준비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대학시절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의 방향을 잡았더라면 취업의 목표를 정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며 인턴학점제를 제시하겠습니다.


구직자는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단순히 높은 학점, 어학점수 올리기가 아닌 대학시절부터 필기시험의 학점이수보다 자신이 원하는 기업을 찾아 인턴 경험으로 학점을 취득하고 직장생활의 현장체험을 통해 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기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지 파악할 수 있고, 동시에 업무관련 멘토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은 보여주기 위한 높은 스펙을 갖춘 사람이 아닌 인턴학점제를 통하여 자사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기업 홍보와 함께 잠재력 있는 인재채용 및 양성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각기 다른 경험을 한 취업 준비생들은 각자 근무한 기업들의 장단점을 교류하며 취업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목표가 정해지면, 대학시절부터 관련 교육과목 이수와 직무관련 자격사항 등 적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취직하기 위해 보낸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저의 공공기관 취업성공기가 능력 있는 후배들이 꿈을 펼치는 데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Impossible? I'm possible!

김○○/한국도로공사

2015년 NCS 도입이 시작되면서부터 공공기관의 채용방식이 달라지고 그에 맞추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변화된 입사전형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NCS를 도입하여 입사전형을 바꾸어 여태 준비했던 스펙 외에 또 다른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상 NCS 도입의 취지는 실제로 직무에 필요한 능력 중심으로 평가하여 직무역량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스펙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고스펙의 돌고 도는 악순환 제도를 없애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입사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에 NCS 채용이 도입되었지만, NCS가 도입되는 것은 저에게 그다지 큰 벽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꾸준하게 학과 공부를 했던 제게, 직무능력채용이 졸업 후 공백 기간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불가능이란(Impossible) 단어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가능이라는(I'm possible) 단어가 됩니다. 시각을 다르게 보면서부터 시작된 저의 입사 과정을 서술하려 합니다.

저의 취업준비는 돌이켜보면 단기간에 준비한 것이 아닌 차근차근 준비한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기본적인 학과공부를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요즘 학점은 서류전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토스나 오픽 또는 공모전

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공공부보다 다른 스펙을 쌓는 데 투자하라는 사람들과 달리, 학과공부에 더 신경을 쏟았고 나중에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이 가까워지면서 막연하게 취업준비라 했지 어디를 목표로 하거나 공공기업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해보진 않았습니다.

취업준비라는 말조차 단지, 졸업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TV나 인터넷 뉴스에 보면 심심찮게 나오는 내용인 취업난, 삼포세대 등 그 상황 속에 있는 취업 준비생 중 한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공공기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는 한국도로공사에 최근에 입사한 선배들을 만날 수 있는 교내 채용설명회에 참석하는 기회가 생겨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주관하여 매년 열리는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 가게 되었을 때 확고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공공기관은 필요한 기본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사기업에서 요구하는 많은 스펙보다는 직무에 필요한 능력 위주로 채용한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고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공공기관 중 직무능력에 좀 더 비중을 두는 회사를 찾아 보니 한국도로공사가 다른 공공기관보다 직무능력을 중요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도로공사를 목표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프로세스는 원서접수 후 1차적으로 시험 자격이 주어지고 필기전형 응시대상자 선정이 2차적으로 이루어지며 3차적으로 면접을 본 후 최종 발표가 납니다.

원서접수는 NCS 기반 입사지원서라 하여 최소 지원 자격 검증이 이루어지며 기술직은 어학점수인 토익 700점 이상과 기술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토익 700점은 그리 높은 점수가 아니며, 기사자격증은 졸업 전에 대부분 쉽게 취득을 하게 되니 기본적인 스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고 직무기반 역량 기술서를 쓰게 되는데, 역량 기술서는 NCS에 맞추어 직업윤리·대인관계능력·자기개발능력·조직이해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서류전형은 기본적 지원 자격만 갖추면 통과되므로, 지원자 대부분이 필기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필기 전형에서도 직무지식인 전공과 직무능력평가 문제를 적절한 비율로 보게 되며, 면접에서는 NCS기반 시뮬레이션 PT면접이라 하여 직무와 관련된 경험과 상황을 반영한 구조화된 면접지를 통해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 필기시험은 공사 중 가장 어렵다고 소문이 자자하지만 그만큼 단기간 고스펙 쌓기가 아닌 꾸준히 전공공부를 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면접 또한 새롭게 도입된 NCS를 반영하여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회사 상황이나 앞으로 발생할 상황 등을 문제화하여 면접자가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또는 발전방안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여 NCS로 인해 기존에 진행된 전공면접보다 다양한 평가요소가 반영된 듯 보였습니다.

입사를 한 후 지금 5개월 정도 지났기에 아직 많은 것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실무에 적용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은 공공기관 외에 많은 기업들이 NCS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점점 도입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회사 입장에서도 직무능력중심으로 채용하는 것이 업무 외에 스펙으로 채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짐으로써 기업이 평가하는 지표 또한 많아지고 취업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NCS 도입으로 인해 취준생을 위한 사교육 또는 많은 스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학생의 자리에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물로 능력을 평가받는 사회로 점차 변화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지금 전공분야에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것처럼 누구든지 노력하

면 그에 따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취업난 속에 힘들어 하는 취준생들에게 힘내라는 말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과 그에 따른 노력이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응원하고 싶습니다. 

*When we do the best that we can,
we never know what miracle is wrought in our life,
or in the life of another.*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혹은 타인의 삶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 헬렌 켈러

6

젊은 과? No! 국문과도 할 수 있다

한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전공이 어떻게 되십니까?”

“국어국문학과입니다.”

“..... 아 그러시구나. 힘드시겠습니까.....”

언제부터였는지 저는 이런 상황이 매우 익숙합니다. 질문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왜 내가 힘들어야 하지?’와 같은 의문은 아직도 품고 있습니다만 저는 항상 대답 후에 이어지는 어색한 침묵과 우려의 목소리, 그리고 질문자의 걱정스런 시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현 취업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문돌이’들의 취업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저 역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의 서류전형 불합격이라는 고배를 마셨고, 이른바 스펙을 쌓는 데에 소비했던 시간은 남들 못지않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익 만점을 맞으면 해외 영입파트에서 무리 없이 일을 소화해 낼 수 있을까?’, ‘자격증이 많으면 다양한 직무에서 적응하는 데 남들보다 수월할까?’

저는 공부를 하면서도 정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지, 남들이 모두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고, 실제로 고(高)스펙 친구의 고된 직장 적응기를 접한 이후, 저는 ‘아니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취업 전형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도입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은 쏟아졌고, 일각에서는 NCS의 도입이 또 다른 낙하산 인사의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기존의 취업 전형을 준비하던 준비생

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 준비하던 토익과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혼란을 겪었지만, 저는 자신의 실제 경험에서 양산되는 다양한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면 공정한 취업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불필요한 자격증 과정을 과감히 포기한 후, 공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인턴 과정을 수료하는 것이 NCS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저의 전공은 살리면서도 평소에 꿈꾸었던 기획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 고민하였고, 기회가 주어져 한 출판사의 마케팅부 일원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점 SCM 관리를 통해 신간에 대한 판매 동향 파악 및 매출 증대를 위해 프로모션 등을 기획하였고, 북클럽 운영을 통해 독자 가입 독려 및 CS관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블로그와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 활동을 하였으며, 서울 지역 서점을 방문하여 오프라인 광고 업무에도 매진하였습니다. 특히 '2013 서울국제도서전'에서 'Secret Box'라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이를 성황리에 끝마치면서 기획력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각종 보도자료를 편집하며 대외적 홍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출판사 업무를 경험하며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출판사의 방향성과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제 전공과 관련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인문학이 중시되고 있지 않은 나라로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철학이나 각종 문학들이 주목받고 있지 못하며, 사람들도 문학이나 각종 문화공연 관람보다는 유희나 흥미 위주의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뮤지컬이나 연극과 같은 각종 문화 공연 관람을 취미로 하는 저는 이러한 현실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인문학이 밥 먹여주느냐”고 말합니다. 물론 인문학이 ‘밥을 먹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문학이 밥을 먹게 하는 방법을 터득하게는 해 준다’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저는 출판사에 근무하며 ‘책’이라는 취업의 기반을 다수에게 경험하게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문학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는 실무에 있어 귀중한 자산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Think different, 아이폰으로 잘 알려진 애플사의 카피라이터이며, 한 예술가는 ‘우리는 Work hard 시대가 아닌 Think hard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아이디어가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창의와 변화라는 키워드의 중요함을 깨닫고, 나는 얼마나 독창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사회에 큰 기여와 변화를 이끌 수 있는가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생각들을 형성하게 해주었던 원동력은 인문학이며, 출판사의 경험을 있게 해 준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편, 저는 ‘맞대다’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얼굴을 맞대고 상대방과 대화하며 생각을 교류하는 것이 좋고, 머리를 맞대고 어떠한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이를 같이 해결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살을 맞대고 밴드·테니스 등의 취미생활을 공유하며 사람들과 같이 땀 흘리는 것을 즐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둘 이상의 사람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저는 사람 간의 관계를 중시하고 상대방과의 소통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미래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4개월 동안의 인턴기간을 거치며, 한국철도공사는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맞뎀’의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객들과의 접점 속에서 미소를 잃지 않는 방법, 그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신뢰를 얻게 되는 과정을 몸소 체험하면서 고객의 소리(VOC)를 통해 작은 선행을 칭찬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역 직원 분들의 격려와 더불어 인턴 동기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는 자부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철도공사의 지식 제안이라는 시스템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기업 이미지 개선과 신상품 기획 공모전 등에 관심을 갖고 주말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공모전에 참여하곤 했었는데, 저의 관심사가 기업의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신기함을 느꼈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트렌드를 파악

할 수 있는 안목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NCS 전형이 공고되었고 제가 무기로 내세울 수 있는 ‘열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규직 직원이 될 수 있는 첫 관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무기는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우선, 어느 실무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고객’ 관련 업무 부분이 주를 이루어 문제가 출제되었고, 이어 ‘기초 업무 처리 능력’과 같은 분야도 출제되어 그동안 업무 처리를 하며 쌓았던 경험, 그리고 실무 관련 자격증 취득 과정도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자격증과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덕분에 한글(문서) 사용이 익숙해졌고, Excel이나 Access 등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과도 연계하여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다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뒤이은 NCS 기반의 면접 전형에서도 청년인턴 경험 위주의 질문을 많이 하셨고, 이러한 저의 경험과 연계하여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에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만약 합격하여 신입사원이 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은지에 대해 당찬 포부를 자신 있게 밝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로 좋은 평가를 들을 수 있었는데, 현재 시, 군, 구청 등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서 문화센터 강좌를 실시 중인 것에 착안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역시 세미나실과 같은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제주 관광코스 추천 강좌,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우리 센터 채용 Tip 강좌, 각 부서별 기초업무 강좌를 개설한다면 직원과 시민들과의 눈높이 소통을 가능케 하고, 센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드디어 합격자 발표의 날, 두근거리지만 한편으로는 자신감에 차 합격자 발표 페이지를 열어보았고, ‘합격’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취업 방향성에 대한 확신과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사한 지 1개월 남짓,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소 멍한 모습의 신입사원이지만 NCS 전형을 통과한 청년으로서 취업 준비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자신만의 철학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준비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채용과정에 있어서

저의 무기는 앞서 말한 ‘경험’, ‘창의’, ‘소통’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는 취업 준비생들의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쪼록 취업 준비생 분들이 저의 수기를 통해 NCS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훌륭한 무기를 장착하여 설레는 꿈을 안고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

‘질’을 ‘득’으로 만드는 기회

정○○/ 한국철도공사

내 기억 속 할머니는 본래 무뚝뚝한 분이셨다. ‘내 손녀~’ 한 마디를 쑥스러워 하셨던, 표현이 없는 우리 할머니는 지금 꿀떡을 먹고 체한 나를 위해 매실액을 가져오시고, 배를 쓰다듬어주신다. 몇 해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할머니와 더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그런지 부쩍 살가워지신 것 같다. 물론 그 뿐만은 아닐 것이다.

“일은 할 만하나? 날이 더워가꼬 우짜노...”

집안의 유일한 손녀였던 나는 사촌오빠들에 비해 취업이 많이 늦었지만, 요즘 다시 할머니의 자랑이 되어 무뚝뚝한 할머니가 싱글벙글하신다.

“그래, 철도공사 가서 니가 무슨 일을 하노?”

뉘앙스는 다르지만 1년 전, 똑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54번 지원자는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타사의 면접시험 중 순간 당황했지만 준비한 대로 답변했던 기억이 난다. 저만의 섬세함과 꼼꼼함을 무기로 현장의 빈틈을 메우겠습니다...등등. 물론 이 말씀을 드릴 때도 면접위원은 다른 곳을 보고 계셨다. 결과는 보나마나 탈락이었다. 시종일관 같은 조의 다른 지원자들에게만 질문이 돌아갔기 때문에 큰 기대는 없었다. 이후 내 자신에 대한 기대를 줄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토목을 전공하셔서 평생 토목일을 하셨고, 아버지를 따라 토목공학을 전공한 나는 항상 아이러니함을 느꼈다. 어릴 적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놀며 자란 나는 현장

에서 단 한 번도 여직원을 본 적이 없다. 누구보다 현장에는 남자직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그 속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 그래서 씩씩하게 크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다. 아버지와 함께 오래 일하신 분들은 어릴 적부터 봐온 나에게 현장의 작은 잡일들은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지금 생각하면 커피 심부름도 신나게 뛰어가며 했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밤을 새며 공부했고, 교수님들의 칭찬을 받으며 각종 대외활동들을 병행, 결국 소위 말하는 ‘남부럽지 않은 스펙’들을 쌓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도 또 다른 ‘스펙’이 있었다. 실이 되기도, 때로는 득이 되기도 했던 성별이다. 1년이 넘는 준비기간 동안 두어 번 면접의 기회가 있었지만 매번 옆자리의 지원자에게만 질문이 돌아갔다. “54번 지원자는 옆에 앉은 남자 지원자분에 비해서 뭘 할 수 있죠?” 좌절스러웠지만 좌절할 수 없었다.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해버리면 어릴 적부터의 내 인생을 부정하게 되는 것 같았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아버지를 도와 작은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취업을 준비했다. 단순한 스펙이 아닌 내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는 올 것이라 생각하며 기다렸다.

그러던 중 올해 초, 공공기관의 직무능력중심 채용 개편이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NCS 기반 채용을 도입하였다. 단순히 서류상의 스펙이 아닌, 실제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직무능력을 발굴하고 이를 채용하여 업무 습득률을 높일 수 있는 현장맞춤형 인재를 뽑는 정책이다.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나는 다시 의욕적으로 전공책을 펼쳤다. 스펙이 아닌 지원자의 능력을 높이 사는 제도는 나에게 황금 같은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그동안 실이 되었던 또 다른 스펙이, 오랜 시간 경험을 쌓아온 내 직무능력과 합쳐졌을 때는 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와중에 대규모 채용을 예고한 한국철도공사의 NCS기반 채용공고가 발표되었다. 어느 기업에서나 토목직은 항상 소규모의 채용이 이루어지는데, 한국철도공사는 안전한 열차운행을 위한 토목직의 선로유지보수 업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타사에 비해 항상 채용인원이 많다. 뿐만 아니라 이번


채용은 NCS 기반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기회를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 여길 수밖에 없었다. 아무래도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고된 타 공공기관의 NCS 채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한국철도공사에서 원하는 NCS 채용 인재상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이었다. 지금껏 타사의 직무분석을 할 때에는 단순히 그 직무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하지만 NCS 채용은 NCS 기반 직무소개서를 각 직렬별로 제공한다. 따라서 나는 한국철도공사의 토목 직렬에서 어떤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고, 어떠한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지를 미리 알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별화된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제공받은 NCS 기반 소개서를 바탕으로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금껏 쌓아온 나의 직무능력이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내가 입사하였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업무에 중점을 두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 경험을 녹여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그동안의 직무능력으로 새롭게 바뀐 직무능력 필기시험 또한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었다. 그동안의 채용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인 것이다. 이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면접장을 나올 수 있었던 면접시험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지금껏 봐왔던 면접과는 다르게 정말 내가 가진 경험과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 긴장을 풀고 차근차근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선로유지보수의 장마철 대비, 명절 대수송기간 열차운행 등에 대해 답변을 하였고, 그동안 실이 되기도 했던 내 스펙이 직무능력과 합쳐져 득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였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나는 합격발표와 동시에 그동안의 설움을 쏟아내듯 오랫동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또 다른 생각을 한다. 그동안 나와 같은 좌절, 설움을 겪어 합격발표와 동시에 기쁨의 눈물을 흘린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스펙 위주가 아닌 지원자 스스로도 자신의 직무능력을 점검하고, 현장에 보다 확실한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스펙이 부족한 지원자들뿐만 아니라 나처럼 또 다른 스펙으로 기회를 얻을 수 없었던 소수의 지원자들에게도 꿈같은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함께 일하는 동기들 사이에서는 학벌이 의미가 없다. 수도권 명문대, 또는 전문대학교, 그리고 지방대를 나온 나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일을 시작하였다. 공인기사 자격증만 서너 개인 동기, 또는 기사 자격증이 없는 동기들도 있다. 하지만 막 입사를 한 우리들에게도 학벌과 스펙은 더 이상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스펙초월전형을 통해 합격한 우리는 모두 똑같은 일을 하며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남다른 끈끈함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뿐만 아니라 동기들 모두 업무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본래 선로유지보수는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NCS를 통해 미리 업무를 모두 파악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지원하였기 때문에 그 만족도 또한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번 NCS기반 채용은 2가지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말 그대로 스펙초월 직무능력중심 채용이다. 그동안 학벌 및 자격증, 또는 나의 경우와 같이 각양각색의 사연으로 기회를 잡기 힘들었던 많은 청년 실업자들에게 꿈과 같은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올해 첫 도입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업의 특색에 맞춘 NCS가 준비되어 이에 맞는 직무능력을 가진 지원자들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업무만족도 향상이다. 평생 직장은 옛말이라는 말처럼, 최근 많은 직장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자신의 업무에 좌절하고 이직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NCS를 통해 미리 해당 직무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고 이에 적합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금 함께 일하는 나의 동기들과 같이, 점차 우리나라의 업무만족도도 높은 지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지금 나는 비록 NCS 채용으로 입사한 인턴사원이지만, 그 누구보다 매일매일에 충실하며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꿈꾸고 있다. 과거의 모습과는 다르게 당당한 지금의 내 자신이 좋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할머니께 말씀드릴 수 있었다.

할머니, 저는 지금 아직은 현장에서 일을 배우며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저를 믿어준 회사에 반드시 보답할 수 있도록, 매일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8

나의 특별한 ‘한 방’

김○○/공무원연금공단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

3년 6개월간 바쁘게 달려오던 학교생활을 휴학한 것은 조금함 때문이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창시절 내내 아르바이트에 전념했고, 동시에 장학금으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간을 쪼개 짬짬이 공부를 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대학생살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써 본 이력서에는 빈 공간이 참 많았다. 아르바이트와 학교 공부에 치여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요즘은 흔해진 단기 어학연수나 해외 교환학생 경험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남들은 취업을 위해 기초적으로 준비한다는 자격증도 없는 것이 많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터닝 포인트가 필요했다.

본격적인 취업준비를 위해 학교를 휴학했지만, 막상 휴학을 하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감이 오질 않았다. 어학점수를 먼저 높여야 할지, 자격증을 더 따야 하는지, 혹은 지금이라도 어학연수를 다녀와야 할지, 무엇에 우선순위를 뒤야 하는지 고민이 이어졌다. 당시에는 공공기관에 도전할지, 사기업에 입사할지에 대해서도 결심이 서지 않았던 때라 더욱 그랬다.

복잡한 머리로 취업 게시판을 살펴보는데 순간 ‘이거다!’ 싶은 단어를 발견했다. 바로 ‘청년인턴’이었다. 인턴십 과정에 참여하면 직무에 대한 역량과 경험을 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입사를 위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또 직접 부딪혀 봄으로써 공공기관이 나의 적성에 맞는지 탐색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청년인턴이 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마침 공무원연금공단의 청년인턴 채용 공고가 있어 나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다.

공무원연금공단과의 만남

2015년 5월 6일, 나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생애 첫 인턴을 시작했다. 어색한 정장을 차려입고 오리엔테이션 겸 교육을 받던 첫날, '내가 진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이 끝나고 나는 공단 서울지부 퇴직공무원 지원부서에 배정되었다. 걱정과 설렘을 가득 안고 부서에 인사를 갔을 때 온화한 인상의 부장님과 반갑게 맞아주시는 선배들을 보면서 이곳에서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겠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처음에는 짧은 기간의 계약직 청년인턴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부장님과 차장님께서 나를 믿고 일을 배울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원하는 상록 자원봉사단의 소식지 창간호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통째로 맡겨주셨다. 상록자원봉사단이란 퇴직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쌓은 재능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결성된 봉사단이다.

소식지를 제작하려면 부서의 전체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약 40여개 봉사단 각각의 특색을 알아야 했다. 부서의 숙원사업이라는 차장님의 말씀에 좋은 소식지를 제작해야겠다는 막중한 책임을 느꼈다.

업무를 맡은 뒤로는 매일매일이 출장이었다. 공단 서울지부는 서울·인천·경기지역을 담당하는데 지역별 담당자를 따라 봉사단을 방문하여 퇴직공무원들의 활동 현장을 취재했다. 퇴직공무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했고, 어떤 마음과 어떤 이유로 공단의 사회공헌활동 사업에 참여하게 됐는지 인터뷰했다. 업무 담당자와 함께 퇴직공무원 봉사활동을 위해 공단이 무엇을 지원할지 고민하면서 점점 업무와 공단에 대한 애정이 쌓였다.

또한 한 페이지씩 완성되는 소식지를 보면서 일의 보람과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공단이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이런 곳이라면 보람 있게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특별한 ‘한 방’

공단 입사의 꿈을 무력무력 키워갈 무렵, 매년 8~9월을 전후로 신입사원 채용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2015년도 신규채용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청년인턴제도를 통해 내가 얻은 첫 번째 결실은 나의 진로가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직접 일하면서 공단의 분위기, 전반적 업무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 공공기관 입사라는 명확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 진로를 명확하게 정하고 나자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고 보충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도 분명해졌다.

두 번째로, 얻은 것은 든든한 동료다. 공단에 먼저 입사한 선배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은 나의 시행착오를 줄여주었고 더욱 체계적인 입사준비를 가능하게 했다. 더불어 앞으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자기계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훌륭한 나침반이 되었다.

또한 청년인턴으로 일했던 동기들과 스터디를 결성하여 함께 공단 입사를 준비하면서 혼자 준비할 때보다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었다. 업무를 끝내고 저녁에 모여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피곤할 때면 옆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동기들을 봤다. 그럼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이 샘솟았다.

이렇듯 나는 청년인턴이라는 특별한 ‘한 방’으로 사회생활과 직무를 경험했다는 강점을 얻었을 뿐 아니라 내가 입사하고자 하는 곳의 분위기와 업무에 대한 정보를 체득하고, 선배들의 아낌없는 조언으로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으며, 그 길을 함께 걸어 나갈 동료도 얻을 수 있었다. 네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셈이다.

인턴 경험과 직무능력중심 채용제도의 환상 궁합

내가 지원한 2015년도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신입직원채용에 NCS를 적용한 첫 해였다. NCS(National Coc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란 현장 직무 수행에 필

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준정부기관, 공기업 등의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제도이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곧 NCS를 기반으로 한 직무능력 중심 채용제도가 필요없는 스펙을 배제하고 해당 기업과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자는 취지라는 것을 깨달았고 나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나는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경험은 없지만, 입사하고자 하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직접 일한 경험이 있다는 강력한 한 방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단의 2015년도 공채는 서류-필기시험-면접 등 모든 전형이 NCS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필기시험에서 직업기초능력평가 문제를 풀 때는 반가웠다. 특별히 NCS에 대비해 공부하지 않아도 업무를 하면서 보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특히 청년인턴제도와 직무능력중심 채용제도가 환상의 궁합이라고 느낀 것은 PT면접 때였다. PT면접은 NCS 기반의 면접 전형 중 상황면접이 적용되었는데, 마침 내가 청년인턴으로 일하던 부서와 연관된 주제가 출제되었다. 인턴생활 동안 직접 경험하고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주제였기 때문에 더욱 자신감 있고 충실한 내용으로 PT를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업무 중 선배들로부터 전수받은 PT 작성 팁 덕분에 더 보기 좋은 PT를 작성할 수 있었다.

23살, 막내 신입사원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다

2015년 11월 2일, 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신입사원으로서 새로운 삶의 첫발을 내딛는다. 스물 셋, 평범한 내가 남들보다 조금은 이른 나이에 공공기관에 입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의 인턴생활은 내 인생의 가장 큰 기회를 제공했다. 갈팡질팡하던 진로를 결정했고, 직접 실무를 경험해보고 취업과 입사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사회 초년생을 위한 선배들의 아낌없는 조언도 들을 수 있었

다. 또한 직접 해당 기관에서 직무를 경험했다는 막강한 강점도 만들 수 있었다. 청년인턴으로서의 경험은 이렇듯 나에게 많은 선물을 안겨주었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정규직으로 입사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 아직은 부족하고 미숙한 사회 초년생이지만, 지금의 떨림을 기억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할 것이다. 사회에 성공적인 첫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나의 특별한 ‘한 방’이 되어준 청년인턴과 직무능력중심 채용제도를 잊지 못할 것이다. 

PART III

고졸채용



내일의 성공은 꿈꾸는 자의 몫이다

이○○/한국자산관리공사

깨끗이 다린 교복, 잔머리 한 가닥 없이 깔끔하게 올려 묶은 머리, 긴장되는 마음으로 실전처럼 임했던 모의면접 연습. 내 학창시절의 마지막 기억이다. 마냥 즐겁고 세상 물정 모르던 여고생이 사회에 발을 내디딘 지 벌써 2년차다. 이제 졸졸 따라와 업무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후배도 생겼다. ‘선배님’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뿌듯했던가! 명문대학에 탄탄한 스펙을 갖춰도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 요즘, 나는 고졸의 학력으로 취업에 성공했다.

특성화고등학교, 목표를 위한 최선책

중학교 시절, 나는 노는 게 좋고 공부라는 걸 해 본 적도 없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부모님은 맞벌이하시느라 나에게 신경 써주질 못하셨고, 높은 학구열에 매일 학원에 가야 하는 친구들의 모습은 나와는 전혀 달랐다.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수포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도 수학 포기자였다. 다른 과목들 또한 더 말할 것도 없었다.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고, 시험을 볼 때면 언제나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서도 속상함을 모르던 나였다.

하지만 비평준화 지역에서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선 내신점수가 중요했는데, 2학년 말에 받아본 나의 예상 점수는 생각보다 더 끔찍했다. 친한 친구들과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점수였다.

그저 친구들과 떨어지기 싫어 도전한 공부는 꽤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 3학년이 되던 해 받아본 나의 내신점수는 원했던 고등학교를 기대할 만한 점수였고, 이것이 나에게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호기심이 생긴 계기가 되었다.

간절히 원하는 장래 희망도 없었고, 배움을 얻고자 하는 분야는 더더욱 없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안정적인고 좋은 직장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나,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는 내가 인문계 학생들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없었다. 그렇게 나에게 맞는 가장 이상적인 학교가 어딘지 고민하게 되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알게 되었다. 관심을 두고 찾아보니 상업, 공업, 회계,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었고, 적성을 찾아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부모님을 설득했다.

새롭게 열린 고졸 취업의 문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나의 목표는 대학교 진학으로 확고했다. 인문계 친구들보다 더 정신없는 학창시절을 보냈다. 수업 때 졸지 않기 위해 쉬는 시간에 부족한 잠을 보충하고, 방과 후 수업을 듣고, 야간자율학습까지 하면서 스스로 나 자신을 채찍질했다. 친구들과 만날 시간조차 없었고, 설 새도 없이 바빴지만 처음으로 공부에 흥미를 느꼈다. 그저 성공한 미래의 내 모습을 그리며 행복한 상상에 힘든 줄도 몰랐다.

1학년 말,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자격증 취득 수업을 듣게 되었다. 다양한 분야에 지식을 쌓는다는 것이 흥미롭게 느껴졌다. 언젠가 하게 될 취업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때마침, 정부 정책으로 고졸 취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선배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모습을 보았다. 당연하다는 듯 대학진학을 원했던 나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마치 공식처럼 당연시 여겼는데 졸업도 안 한 고등학생이 금융·공기업에 취업이라니, 소위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아닌가!

그로 인해 나는 취업을 희망하게 되었다. 일찍이 취업 준비를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하

는 모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동아리, 진로탐색활동, 선후배 멘토링 등 나의 적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경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자 다양한 아르바이트도 했다. 평소 친화력이 좋고 사람 사귀는 것을 좋아하던 나는,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 내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했다.

2학년 1학기 때 펀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며 금융권에 입사하기를 희망하게 되었는데, 마침 대기업 증권사의 인턴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다. 고졸에서 이렇다 할 만한 스펙은 ‘자격증’과 ‘나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던 나에게 아주 좋은 기회였고, 한 달간의 인턴생활은 매우 값진 경험이 되었다.

일곱 번 넘어지면 여덟 번 일어나라

2학년 말, 인턴을 했던 증권사의 정규직 전환 최종전형에서 불합격하며 처음으로 좌절을 겪게 되었다. 이후 3학년이 되자마자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면서 고난이 시작되었다. 나는 주로 은행과 증권사에만 지원하였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인 만큼 외모를 중요시하는 바람에 키 작고, 통통하고, 예쁘지도 않은 나는 언제나 선생님의 추천 순위에서 밀려나 지원조차 하지 못했다. 고집도 센 편이라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추천하시는 선생님들과 의견충돌이 잦았고, 옆친 데 댕친 격으로 취업담당 선생님께 미운털이 박혀 매일 구박과 핀잔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나는 단점이 많았지만, 자존심이 강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몰랐다. 단점을 스스로 개선하기보다는 ‘좋은 기업은 많은데 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없을까’ 불평하기만 했다. 그러던 중 지원했던 특수은행의 필기전형에 합격하게 되었는데, 그때 나의 모습은 자만심이 하늘을 찔렀다. 다들 어렵다고 하는 필기전형에 합격했으니 더는 어려울 것이 없을 것 같았다. 마치, 이미 최종합격이라도 한 듯이 득의양양했다. 하지만 그때 취업담당 선생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나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네가 붙어도 하나도 기쁘지 않다. 어차피 면접에서 떨어질 거 뭇 하러 붙었니? 나는 아직도 걱정된다.” 선생님의 말씀은 나에게 큰 충격이었고, 내 인생의 전환점

이 되었다.

물론, 결과는 선생님의 말씀대로 보기 좋게 불합격이었다. 좌절한 나에게 선생님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원하라고 하셨다. 평소라면 금융권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겠지만, 공사의 업무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다. 기관명에 걸맞게 채무조정을 통해 국민의 신용회복을 돕고,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등 개인이 아닌 국가의 자산을 관리한다는 것이 무척 보람 있고 매력적인 일로 느껴졌다.

이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취업준비에 최선을 다했다. 매일 신문을 읽고, 내용 요약과 나의 생각을 스크랩북으로 작성했다. 학교에선 무서운 선생님들께 모의면접을 부탁드리고, 자신감을 갖고자 2학년 교실에 찾아가 자기소개를 하기도 했다. 집에서조차 쉬지 않고 연습하며 합격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다.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어김없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귀가하였다. 씻지도 못하고 쓰러지듯 잠들었는데, 다급하게 울리는 휴대전화에 정신을 차려보니 최종 결과가 발표되어 있었다. “최종 면접전형 합격을 축하합니다.” 불합격할 때도 덤덤했던 내가 가족들과 얼싸안고 펄펄 울었다. 지난 3년간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받는 느낌이었다.


R=VD 생생하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증권사 인턴 시절, 사수가 추천해 주었던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책의 줄거리는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생생하게(Vivid) 꿈꾸면(Dream) 이루어진다(Realization)는 내용이다. 그렇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어 있고, 그 기회를 잡고자 하는 ‘간절함’이 크다면 불가능이란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나는 공사에서 금융 소외계층의 신용회복을 돕고 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과 절박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업무는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보람이 있다. 내가 중학교 시절, 내 미래에 대한 고민과 계획 없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갔다

면 지금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도 남들처럼 입시전쟁과 스펙 쌓기, 취업준비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지도 모른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고졸로서 고민도 많았다. 학력이 낮다고 무시당하진 않을까, 업무를 따라가기가 힘들진 않을까 걱정하곤 했다. 하지만 입사 후엔 그런 고민이 싹 사라지게 되었다. 우려했던 것보다 직장 선배님들은 다정했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로 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다. 학교에서 배웠던 회계 및 상업 과목과 따로 취득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또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취업 후에도 필수라 여겼던 대학교 졸업장도,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배움에 뜻이 있다면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고졸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제도에 감동하기도 했다.

나의 목표 또한 아직 진행형이다. 앞으로 '과거의 나'를 떠올리며 늦었다 포기하지 말고, '미래의 나'를 기대하며 도전하고자 한다. 원하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그보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다. 우리는 아직 어리고, 꿈을 향해 도전할 기회는 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늦어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으랴. 나의 이야기가 취업을 준비하는 고졸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

미생에서 완생으로

정○○/한국국토정보공사

어느 새 입사 4년차, 아무것도 몰랐던 철부지 스무살에 입사해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회사생활에 임하고 있다. 외근과 내근을 병행하고 퇴근과 동시에 등교를 하는 지금의 나는 미생¹⁾에서 완생²⁾으로 가고 있는 ‘주경야독(晝耕夜讀)’ 청춘이다.

여자가, 거긴 왜?

중학교 3학년, 고민 끝에 나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바로 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여학생의 공업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던 당시, 지인들과 어른들은 ‘여학생이 왜 공업고등학교를 가니?’라는 불편한 질문을 하곤 했다. 하지만 내게는 뚜렷한 목표와 삶의 멘토인 친오빠가 있었다. 오빠는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먼저 입학하였고 그곳에서 학업과 학내·외 활동, 수능공부 등 피나는 노력 끝에 특성화고 전형이 없는 서울대학교에 일반고 전형으로 당당히 합격했다. 나는 오빠의 이런 모습을 보며 자랐고 나 역시 오빠가 졸업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하고 싶었다.

결과적으로 내 선택은 성공적이었다. 지적정보과에 입학하여 내게 주어지는 기회들은

1) 미생 (未生)

[명사] 〈운동〉 바둑에서, 집이나 대마가 아직 완전하게 살아 있지 않음. 또는 그런 상태

2) 완생 (完生)

[명사] 〈운동〉 바둑에서, 집이나 돌이 완전히 살아 있음. 또는 그런 상태

모두 잡아내었다. 걱정했던 지적 관련 전공교과목도 적성에 맞아 열심히 공부하며 상위권을 유지하였고 학급회장과 학생부회장 등을 도맡아 하며 활발한 학교생활을 이어나갔다.

선택의 기로와 모험의 시작

고3까지 꾸준히 학업과 학내생활을 이어온 나는 어느 학생들처럼 자연스럽게 대학입시를 준비하였다. 수시지원 기간에 희망하던 대학교들에 지원하였고, 서울 소재 대학교와 지방 소재 국립대학교에 합격하여 기분 좋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렇게 큰 고민 없이 학교생활을 마무리 해가던 어느 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고졸채용’에 대한 채용공고를 보게 되었다.

1년의 인턴기간, 1년의 보조인력. 2년의 무기계약직 총 4년을 거쳐 심사와 평가로 정규직 전환이 되는 고졸자 정규직 채용확정형 제도였다. 진학을 희망하던 나였지만 채용공고를 본 후 취업 욕심까지 생겨났다. 그러나 주위의 다양한 의견들은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아버지와 선생님들께서는 나의 입사 지원을 희망하셨고, 어머니와 오빠는 내가 20대의 청춘과 대학생활을 겪어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대학입학을 희망하셨다.

‘고졸인 내가 그곳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회적 편견으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등의 두려움과 고민이 날 괴롭혔지만 스펙을 초월한 채용제도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추구하는 비전과 실무적인 내용들은 내가 진학을 포기하고 고졸채용을 통해 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었다.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3년간 학교에서 배웠던 전공과목들을 바탕으로 면접준비를 시작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고졸채용 사례가 없었기에 무엇을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선생님들과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 공사가 추구하는 인재상을 갖추도록 노력했고 그 결과,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얻게 되었다.

입사 후 2주간의 연수교육을 받으며 더 심화된 실무와 현장실습, CS교육 등을 받았고

1년의 인턴기간 동안 멘토링제도, 즉 회사 내 멘토를 정해 업무를 배우고 일주일에 한번 씩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인터넷, 우편원격교육 지원을 통해 부족했던 업무에 대한 기초와 원리를 습득해 나갈 수 있었다. 부족한 면이 많은 채로 입사했지만 상사 분들은 조금의 편견도 없이 대해주셨고 고졸채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제도를 통해 하루하루 발전에 감사하며 적응해 나갈 수 있었다.

역시 현장이지 말입니다!

출근 후 나의 하루는 대부분 현장 출장으로 시작된다.

사회생활 경험이 전혀 없던 입사 초기의 나는 직장인으로서의 삶은 이론적인 공부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현장에서의 실전은 고등학교에서 다루던 측량 및 지적 실습과는 차원이 달랐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장비는 무겁고, 지형은 복잡함과 동시에 험했다. 체력이 약한 155cm의 작은 체구의 여성으로서 현장을 누비는 것은 내게 부담을 동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 선배들의 끊임없는 도움과 충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현장 업무에 대한 즐거움과 매력을 알 수 있었다. 아직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현장중심의 회사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는 않나?’라는 질문과 걱정을 내게 건넨다. 하지만 어느 드라마에서 나왔던 대사를 공감하면서 내가 하는 업무의 자부심과 만족감을 드러낸다. ‘역시 현장이지 말입니다!’


기회 속에 또 다른 기회

올해는 내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대학교 경영학부(야간)에 15학번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되었다. 회사에서의 업무를 마치고 주중 3일 저녁, 주말 1일 총 4일을 대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이 아닌 진학을 한 친구들의 대학생활을 보고 ‘나는 이제 쉽게 경험해보지 못할 일이 되었구나’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올해 입학할 하게 된 나는 회사 업무와 또 다른 분야의 공부에 대한 새로움을 느끼고, 겪어보지 못할 것만 같던 MT, 축제 등 꿈에 그리던 캠퍼스 생활까지 경험하고 있

는 중이다. 학업을 동반하는 것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이 따랐지만 개인의 자기계발 또한 중요하게 여겨주고 배려해주는 상사 분들과 진학에 지향적인 제도는 나를 한결음 더 성장시켜주는 발판이 되어주고 있다.

직장인임과 동시에 대학생, 자격증 취득 준비까지 나는 때때로 일에 밀리고, 학업에 밀려 피곤함과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퇴근과 동시에 등교를 하고, 과제와 시험기간에는 새벽까지 잠 못 드는 일이 허다하지만 어느 것도 놓치지 않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격이라는 점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다. 덕분에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시간 분배, 바쁜 여건에서도 효과적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법을 차차 익혀가고 있다.

괜찮아,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후 남들보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사회에 발을 들여 놓았고, 그만큼 두려운 것들이 많았지만 고졸채용 기회를 통해 취업과 진학, 양면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얻었다. 그리고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나 또한 아직 완생을 향해 가고 있는 미생이다. 나 역시 그랬듯, 고졸 출신으로서의 진학과 취업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기로에 놓였을 것이다. 어떤 선택이든 그에 따른 길이 있고, 모든 길이 순탄치만은 않지만 그 길을 멋지고 섬세히 닦아나가는 것은 본인의 몫이라 생각한다. 모든 면이 완성형이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히고 도전하여 내게 오는 기회들을 잡고, 그 기회들을 발판 삼아 완생으로 가는 멋진 길을 여러분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3

내 자리를 갖기까지

장○○/한국도로공사

2015년 3월 24일 오후 4시 59분 59초가 지나고 5시가 되자, “한국도로공사 인사팀입니다. 최종합격자 결과 확인바랍니다.”의 내용의 담긴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왔다. 떨리는 손으로 조회를 누른 결과 최종합격이었다. 2년 동안 내 뒤를 항상 졸졸 따라다니던 ‘고졸 취업 준비생’이라는 꼬리표가 시원하게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길은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모두가 그 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급회장은 물론이고 전교 학생회장, 자격증 10개, 대내외 수상 25회 이상 수상, 봉사 활동 및 각종 다양한 대내외활동 등 취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끝없이 달려왔다. 시간이 흘러, 3학년이 되고 나만의 스토리와 남들이 흔히 말하는 스펙을 무기 삼아 취업전선에 뛰어들게 되었다.

기대와는 달리 서류전형 불합격의 연속이었다. 어렵게 최종면접까지 간 기업들에서도 ‘귀하의 우수한 능력과 자질에도 불구하고...’와 같은 진심 없는 위로만 여러 번이었다. 2학기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1년이 지나가고 곧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나는 생각지도 못한 절망감을 맛보며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 그리고 내 자신에게 실망에 지쳐 있을 즈음, 한 정책금융기관의 청년인턴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무슨 청년인턴(계약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형

인턴)이냐며 넘겨버렸을 법도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상황인 만큼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꿈꿔왔던 금융 공기업에서 근무한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다가와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운이 좋았는지 결과는 최종합격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출근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해준-청년인턴제도

매일 아침 표정도 옷차림도 걸어가는 방향조차도 나와 정반대였던 그들 속에 섞인다는 그 자체가 나한테는 엄청난 의미로 다가왔다. 그렇기에 더 강한 동기부여가 되어 항상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여 선배님들을 맞이하고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이런 모습들이 기특해 보였는지 퇴근 후에 술과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

었다(지금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년인턴은 지금의 나에게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청년인턴 기간 중에도 취업준비를 계속해야 했다. 하지만 결과는 매번 ‘불합격’이었다. 같은 일상이 반복되자 나는 점점 지쳐갔다. 그래서 이런 일상의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5개월간의 청년인턴을 그만두고 잠깐 나를 되돌아보기로 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지금까지 써왔던 수십 장의 자기소개서를 다시 읽는 것이었다. 하나하나 모든 자기소개서를 다 읽고 보니 공통적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설득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내 자기소개서에 나 자신도 설득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인사담당자를 설득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파고들었다.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잊지 말자!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이러한 고민과 개선에도 불구하고 취업준비는 뜻대로 쉽게 되지 않았다. 결과는 불합

격의 연속이었다. 그러자 옆에서 묵묵히 봐주셨던 부모님께서도 조심스럽게 “군대를 먼저 갔다 오는 것이 좋지 않겠니?” 하며 말씀하셨다. 나는 그 한 마디에 그만 흥분해서 “왜 나를 못 믿어 주냐” 하며 작은 말다툼으로 번지고 말았다.

어머니께서 내색은 안하셨지만 “속앓이를 많이 하셨을 거야. 아니 나보다 더 많이 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에 부모님께 화를 낸 나 자신에게 도리어 화가 나고 스스로가 한심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도로공사 신입사원 공채’ 소식을 접했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지원해 보되, 만약 또다시 실패한다면 군 입대를 하기로 결심했다.

반복에 지치지 않은 자가 성취한다

그렇기에 한국도로공사 신입사원 공채는 나에게 있어 입대 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2015년도에 채용공고가 났지만 사실상 2014년도 마지막 고졸채용이었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진심을 자기소개서에 녹여 썼고, 서류-필기-면접전형을 통해 최종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합격자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는 혼자가 아닌 한 조직에 구성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행복하고 기뻐다. 약 한 달간의 연수를 마치고 전북본부 무주 지사로 발령을 받고 첫 출근을 하게 되었다. 쉽게 할 수 있는 업무도 긴장한 탓인지 작은 실수를 범하기도 했지만 선배님들께서 따뜻한 격려와 함께 상세히 알려주신 덕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 또한 도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멘토링제도와 OJT교육도 큰 도움이 되었다.

9월 1일부터 수습사원이 해제되고 정규직 사원이 되었고 다사다난했던 취업 준비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주변 친구들보다 약 1년 늦게 취업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노력하고 노력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성공적인 고졸신화 시대를 열려면

부실대학 급증, 학벌중심의 사회구조에서 공공부문의 고졸채용정책은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대안이 되었고 청년들의 성장과정에 ‘묻지마식 대학 지원’이라는 큰 흐름을 바

꾸어 놓았다. 그리고 이 정책으로 인해 나를 포함한 수많은 고졸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사회에 나올 수 있었다. 그렇기에 이제는 고졸취업자에 대한 관리와 교육시스템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취업 후, 이제는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기관 지방이전 정책으로 인해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사이버대학으로도 학위 취득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오프라인 교육의 수요가 많기에 혁신도시 인근에 있는 지방 국공립대의 재직자 전형 신규 개설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학에 다니는 동안 만큼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고졸 사원에게 교육과 직무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위 취득 후에는 대졸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승진시험과 같은 인사제도가 정비되어 나아가는 데 있어 걸림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졸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꼭꼭 해주고 싶은 말

취업한 후배들이 있는 반면에,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불합격 통보에 치진 후배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 몇 마디 조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취업의 문턱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 곳에 지원하기보다는 한 곳에 집중해서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2년 동안 노력했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자리가 어딘가에는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취업이라는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겁니다. 파이팅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1~2학년 후배들에게도 짧게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니다(상경계열 해당).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내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교외로 나가 다양한 대회 및 활동을 찾아 본인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경제신문 읽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어요. 아침잠 30분 정도만 포기한다면 나중에는 정말 큰 자산으로 돌아오리라 확신합니다. 더불어 모르는 경제시용어를 정리하여 노트로 만들어 놓는다면 더 큰 자산이 될 거예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

성공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

박○○/주택도시보증공사

‘내신등급 3.92, 자격증 2개, 토익 없음 등’이 제 조건이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는 IT계열과 공무원을 제외한 취업자가 전무한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조언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조건을 극복하고 끝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작의 계기를 열어주고,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제 여정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뭐? 특성화고? 거기 실업계잖아!

저는 중학교를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최종 내신이 200점 만점에 194점으로, 당시 인기있던 자율형 공립고나 외고 진학을 노려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국어에 흥미가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관심있던 경제학에 매료되어 상고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진로부장님은 제게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디미고)를 추천해주셨고, 인터넷카페를 통해 상담을 받은 결과 ‘아, 여기가 내가 갈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이 말을 꺼낸 순간 돌아온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특성화고? 거기 실업계잖아!’라며 부모님은 한참을 제게 뭐라 하셨고, 저는 곳곳이 부모님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윽고, 부모님을 모시고 디미고에 직접 방문하게 되어 상담을 받았고, 끝내는 진학을 허락하셨습니다. 면접은 무리없이 통과할 수 있었고, 그렇게 저는 특성화고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난 그저 경제가 좋았을 뿐인데—

상업경제는 제게 최고의 과목 중 하나였습니다. 인문계에서 배우는 경제와는 좀 더 달리 실생활에 더 접목되어서 그런지 훨씬 이해하기도 쉬웠고, 무엇보다 흥미있는 과목이다 보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기숙사에서 나와 교실에 들어가는 동안 아침 뉴스를 보고, 조식을 먹으며 친구들과 시사에 관해 토론도 하며 경제를 좀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찮게 주식에 대해 알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장별 종목의 특징, 선물옵션거래 등 흥미로운게 많이 있었고, 저는 이에 매료되어 모의투자과 실제투자를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쟤 뭘 학생이 주식이야?’라고 생각했을수도 있지만, 저는 실제로 이론을 접목시켜보고 직접 체득하는 과정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음.. 취업?

이렇게 근 1년 여를 보내고, 2학년이 됐을 때 상업 선생님은 제게 대회 출전을 권유하셨습니다. ‘경기도 상업경진대회’였는데, 경제골든벨이 제게 잘 맞을 것 같아 추천해 주셔서 얼떨결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규모가 큰 대회라며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저 또한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기출문제를 제본하여 반복학습하며 노력해 입상에 성공했고, 전국대회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방학 때도 남아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전국대회장에 도착하여 문제를 풀었습니다. 끝내 최후의 2인이 되었고, 마침내 장관상을 수상하였을 때의 그 기분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끝나고 다른 부스들을 돌며 인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었고 ‘넌 어디에 취업할거야?’라는 질문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취업보다는 진학하여 더 많이 배우고 싶어 ‘음.. 글썄. 생각을 안해봤는데?’라고 답했습니다.

취준생이 되어

학교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고 두루 칭찬도 받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라는 두 글자가 머리에 늘 맴돌았습니다. 그때 공공기관에 입사한 선배가 학교를 방문했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졸 취업하면 으레 ‘차별’, ‘진학 불가’ 등만 상상했지만 그는 제게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 해주며 괜찮은 선택이 될거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저는 한참을 고민했고, 끝내 부모님을 설득해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 준비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던 중에, ‘2015 고졸인재 JOB콘서트’라는 고졸채용 전문 박람회가 열린다고 하여 홀로 학교 팜플릿을 들고 박람회장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특성화고 학생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우르르 들어갔고, 저도 인파에 휘말려 들어가 관심있던 공공기관들의 부스를 찾아갔습니다.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대한주택보증(現, 주택도시보증공사, 이하 ‘HUG’)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인사팀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계셨고 약 20분간 이야기를 나누며 ‘아, 이런 곳이구나’ 하며 귀담아 들었습니다. KDB산업은행, 한국공항공사 등 많은 공공기관이 참가하였고, 많은 부스들을 돌았지만 ‘고졸채용에서는 내신이 중요하다.’라는 천편일률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내신이 안 좋은 제게는 매우 절망적인 말들이었지만, HUG를 비롯한 몇몇 기관은 ‘NCS를 전면 도입했으니 너무 기죽지 말라’라는 답을 해주어 조금 희망이 보였습니다.


칠전팔기

벚꽃이 흐드러질 무렵, 저는 대망의 고3이 되었고 처음 추천이 온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지원했습니다. 결과는 탈락이었고, 연달아 지원한 산업은행, 서울보증, 지역난방공사 등 6연패를 거듭했습니다. 심지어 지역난방공사는 ‘서류 전원합격’으로 공고했지만 자격증 취득일자를 잘못 작성하여 탈락했습니다. 정말, 속이 쓰라렸고 그간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때 HUG가 채용한다는 소식이 들렸고, 유일하게 서류 통

과에 성공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결과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1차 면접을 볼 때 ‘생활 기록부 지참’이라는 공고에 저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내신을 본다든 건가? 또 떨어지는 건가?’를 생각하며 면접장이 있던 부산으로 내려가는 제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면접장에 도착했을 때, 긴장과 적막이 흘렀고 숨도 못쉴 것 같았지만 ‘나를 팔아보자!’라는 마인드로 면접에 임했고,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하필 1차면접 발표일은 체육대회가 있던 날이었고, 저는 대회를 즐기기는커녕 긴장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친구가 확인해줬을 때, ‘부산 또 갔다와야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털썩 주저앉았고, 2차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에 들어가며 그간 노력했던 순간, 탈락만을 보여주던 기업들... 정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모님이 가기 전 해주셨던 말씀인 ‘더 많은 것을 보이며 하지 말고, 할 말만 다하면 된다.’라는 말을 되뇌이며 면접장에 들어갔고, 저는 당당하게 ‘대한주택보증을 보증할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면접관의 표정과 시선을 응시하며, 질문에 성실히 대답했고, 무엇보다 나를 포장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당당히 HUG의 17기이자 공사 1기로서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에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성적과 스펙을 보유하신 분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그 누가 되었건 이 말만큼은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성공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4점대의 내신, 금융자격증 없음... 이런 사람이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금융공공기관에 합격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NCS를 통해 성적과 스펙이 아닌, 개인의 능력을 높게 평가받아 입사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도래했고, 그 불가능을 극복한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단언컨대, 본인의 성적이 낮다고, 스펙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 눈에 무엇이 보이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대단하지는 않더라도, 본인의 능력 계발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배우고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할 일을 계산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담아내어 극복한다면- 단언컨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일의 대소를 불문하고 책임을 다하면 꼭 성공한다.

- 데일 카네기

끝없는 도전, 마침표는 없다

김○○/도로교통공단

중학교 3학년이었던 열여섯 살에 겁 없이 시작되었던 나의 도전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마냥 위태롭고 불안하기만 했던 그 시절,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신 부모님께 늘 감사한 마음이다.

고집쟁이, 인생의 첫 도전을 시작하다

“1지망은 어디로 쓸 생각이니?” 라며 엄마는 지역에서 제법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다는 인문계고등학교를 쪽 나열하고 내 눈치를 살폈다. 난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학교를 마친 후 신물나게 학원을 다니는 또래와는 달리 사교육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나로서는 중3 때 고2 수준의 과목을 선행하고 있는 친구들과의 경쟁이 두려웠고, 무엇보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으로 두 살 터울의 두 딸을 키우느라 늘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실업계고등학교는 전문계고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실업계고라 부르고, 학업성적이 뒤떨어지거나 문제아가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해 전문계고에 진학하겠다는 나를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고집불통이던 나는, 뽀뽀하는 엄마를 뒤로 하고 상업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계속되는 좌절, 기회를 잡는 실마리를 찾다

입학 후 내신성적 관리, 자격증 취득, 학급 임원 맡기,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 각종 대회/캠프 참가 등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하며 취업이라는 꿈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친구들과 선생님 사이에서 취업유망주로 불리기도 하며 앞날은 탄탄대로 일 것만 같았다.

3학년 1학기가 시작되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고졸채용 공고가 게시됐다. 그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어렵지 않게 써나갔다. 하지만 입사지원 하는 곳마다 줄줄이 불합격이었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의 노력이 이것밖에 안되나 하는 자괴감과 빨리 직장을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새로운 지원서 제출에만 급급했다.

11월, 학급의 절반 이상이 취업에 성공해 빈 책상이 가득한 교실을 보며 ‘도대체 취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뒤돌아보게 되었다. 그동안 내가 채용공고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건 연봉이었다. 연봉이 높으면 정확한 정보도 알아보지 않은 채 맹목적으로 지원하곤 했다. 이것이 지금까지 취업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였다. 그리고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라는 말이 스쳐갔다. 올라간 눈꼬리와 웃음기 없는 무뚝뚝한 표정 때문에 평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말을 자주 듣곤 했지만 나에겐 매일 같이 듣는 잔소리였기에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런데 문득 이것이 항상 최종면접에서 불합격하며 취업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일거란 확신이 들었다.

이즈음 도로교통공단의 고졸채용 공고가 게시되었다.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창립부터 현재까지 연혁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 공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 그리고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해 꼼꼼히 분석해 나갔다. 평소 겁이 많아 안전에 대한 인식이 남달랐던 나에게 ‘도로교통안전의 중심, 선진교통문화의 리더’라는 공단 미션이 썩 마음에 들었고, 입사 후 공단의 일원으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내가 힘을 보탤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양치 후 거울을 보며 웃는 얼굴 만들기 트레이닝을 실천하고, 모의 면접 상황을 만들어 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덕분에

에 모의면접에서의 표정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것이 느껴졌고, 일상생활에서도 “이미지가 전보다 많이 밝아졌네~ 훨씬 보기 좋아.” 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다.

열아홉, 햇병아리 직장인의 새로운 도전!

“축하합니다!! 김○○님은 2011년도 도로교통공단 직원 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내 소망이 드디어 실현되었다. 아직 고등학교 졸업도 하지 않은 나이에 취업한 행운이라며 다들 기뻐해주셨지만 직장생활에서는 마냥 어린 아이일수 없었다.

처음 맡은 업무는 민원실 창구였다. 규정에 맞게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옆 창구보다 느리다는 이유로 불만을 토로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고객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선배들이 자기 일처럼 나서서 고객을 상대해주고 누구든 처음엔 느릴 수밖에 없다며 격려해주기도 했다. 사회생활은 냉혹하고 혼자 헤쳐 나가야 하는 외로운 길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안도감을 느꼈고,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주어진 일은 확실하게 해내야겠다는 책임감 또한 커지게 되었다.

예정일보다 일찍 시작된 선배의 출산휴가로 업무 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예산지출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 일이다. 돈에 관련된 업무이다 보니 작은 실수 하나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고 막막하기만 했다. 생소한 단어에 규정집을 뒤져보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땐 다른 지부의 담당자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물어보기도 했다. 때때론 본부 담당자에게 귀찮을 정도로 질의 회시하여 아무 탈 없이 업무를 완수하여 보람을 느꼈다.

끝없는 도전을 통해 꿈을 그린다

도로교통공단은 2015년도 공공부문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을 만큼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는 곳으로, 나에게는 단순히 직장이라는 공간을 넘어 새로운 꿈을 그리는 소중한 곳이다. 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이버교육은 직무, 어학, 자격증, 리더십 등 세분화되어 있고 각 분야 안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강의를 제공되고 있어 틈틈이 여러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담당하는 회계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에 선 취업 후 진학 전형으로 입학하여 3학년에 재학 중이다. 고등학교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교과목의 난이도에 지레 겁을 먹었지만, 내가 필요로 하고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은 분야다 보니 흥미를 잃지 않고 진도를 나갈 수 있었다.

사이버대학 졸업 후에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스피킹 실력 향상을 위한 전화 외국어, 직장인에게 필요한 경영지식 학습을 위한 MBA과정 등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원하는 교육들을 더 누려볼 계획이다.

나는 이곳에서 새롭게 꿈을 꾸고 또 이루어가고 있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고졸취업캠프가 활성화되길!

입사 이래 처음으로 내가 일하는 전남운전면허시험장에 고졸 인턴이 채용되어 근무 중이다. 아직 앓된 얼굴로 민원인을 안내하는 모습을 보면 ‘와! 나도 저랬을까?’ 하는 마음과 함께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그 친구와 자연스레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합숙면접, 소셜 리쿠르팅 등 채용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자기소개서 쓰는 요령, 면접 보는 법 정도의 형식적인 교육과 기말고사가 끝난 후 외부강사 초빙을 통한 시간 때우기식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내가 취업 준비할 때와 비교해 별반 나아진 것 없는 환경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더욱 어려워져가는 취업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강사님이 진행하는 체계적인 틀을 갖춘 취업캠프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근무 중인 선배의 조언과 생생한 취업 후기를 들려줄 수 있는 시간이 더해져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다.

글을 마치며

떨리는 마음으로 첫 출근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도로교통공단에 입사한 지 4년이 다 되어 가네요. 독불장군처럼 고집을 부려 전문계고에 진학했던 말 안 듣는 딸이,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 빠тол어지지 않고 잘 자라준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딸로 불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아들, 딸인 여러분!

뜻대로 취업이 되지 않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가요? 혹은 취업이 됐다고 해서 처음의 의지와는 다르게 나태해져 있진 않나요?

“마침표를 찍지 마세요. 아직 끝을 내기엔 우리는 너무 젊습니다.”〈신준모의 ‘어떤 하루’ 中〉 

열아홉, 홀로서기

임○○/ 한국철도공사

다들 정장에 구두를 신었지만 홀로 교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은 학생이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제 별명은 ‘임똥’입니다. 식물에 좋은 거름이 되는 똥처럼 항상 헌신하는 저를 보고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저의 자기소개에 무거웠던 면접장의 분위기는 웃음소리로 가득해졌습니다.

평범한 시골 고교학생이 철도공사 직원이 되기까지의 저의 성장 과정을 소개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경찰관이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였던 저는 아버지를 데려간 세상이 너무 미워 친구들과 어울리며 바르지 못한 행동도 많이 하고 사고도 치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고, 미래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내년이면 고등학교를 성적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았고 방황하던 1,2학년 때에는 바닥이던 제 성적은 3학년 동안 상위권을 유지하여 중학교 바로 옆 고등학교 장학생으로 뽑혀갈 수 있었습니다. 장학생으로 뽑혔기 때문에 막연히 수능을 봐야 하고 대학교를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공부에 다시 흥미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나는 스스로 정말 하고 싶은 것, 바로 ‘꿈’을 찾으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길었던 고민 끝에 제 인생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목적 없이 대학을 가기 위한 수능공부가 아닌 제가 하고 싶은 공부

저만의 특성을 살려 사회에 빨리 나갈 수 있는 공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는 공부가 아닌 제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장소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공부도 잘 되었고 공부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기회와 도전 앞에 망설이기엔 나는 젊다!

상업계 비즈니스과에 재학 중이었던 저는 어느 날 부장선생님이 철도공사 인턴사원 모집공고를 공지해 주셨습니다. 인턴사원을 거쳐 상위 30퍼센트 인원을 채용한다는 내용에 기대감을 가졌지만 합격하게 되면 남은 학교생활을 뒤로 하고 바로 인턴사원으로 근무해야 하는 부분과 고등학교 재학생은 대학교 재학생과 같이 경쟁한다는 내용에 ‘만약 떨어져 돌아온다면 선생님과 친구들 얼굴을 어떻게 보지? 과연 내가 대학생 형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였고 선생님의 좋은 기회라는 말씀이 있었고 어머니 또한 실패해도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에, 무엇보다 이제 더 이상 어머니를 힘들게 하기 싫었고 저희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끊고 싶어 도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시작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까지의 과정은 사회의 분위기를 몰랐던 저로서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자기소개서 제출 일과 학교 시험 일정이 거의 겹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두 가지 모두 좋은 결과물을 얻어야 했기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잠까지 줄여가며 준비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과 노력이 통하였는지 학교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한국철도공사의 정식 인턴사원으로 입사하여 복잡하다고 소문난 천안역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첫 출근을 앞둔 전날, ‘절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천안으로 향했습니다. 청양이 집이던 저는 출퇴근이 불가능했기에 역 근처에 자취방을 꾸리고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인턴사원으로서 처음 출근하는 날에는 대전에 있는 철도공사 본사에서 모두 모여 같은 발령지를 받은 사람들과 같이 각자의 역으로 향하는 것으로 인턴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5개월간 한 달에 3개 정도 새로운 시험이 계속 있었고 말미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필기시험을 위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처음 보는 철도 규

정들을 매일같이 공부해야 했습니다. 항상 시험기간이라는 부담감도 있었고 저보다 나이가 적게는 4살, 많게는 9살이 많던 저의 동료들보다 똑똑하지도 못하였으며 가지고 있는 능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주눅도 많이 들고 미성년자였던 제가 집과 가족을 떠나 혼자 생활하다 보니 때로는 합격에 대한 부담감에 방에서 눈물을 흘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항상 저를 응원해주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절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하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떠올렸습니다. 천안에 처음 올라올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열심히해야 하는 목적을 다잡으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과 티는 나지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보였습니다.

집에서 출퇴근하는 동료들과는 달리 저는 천안역 바로 앞에서 자취를 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다른 동료들보다 일찍 출근하여 숙직방과 화장실을 청소하는 등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19살의 어린 나이로 주목을 받긴 하였지만 더 이상 그것이 저의 전부가 되는 게 싫었고 매사에 남들보다 먼저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느껴지도록 더 먼저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위축되고 출근해서는 긴장감에 웃음이 잘 나오지도 않고 인턴사원들에게 내려지는 업무에 주변 형들과 누나들의 시선에 나서지도 않았었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온 이유를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서 미소도 머금고 행동에 자신감이 붙게 되니 주변의 시선들도 바뀌었습니다. 인턴사원을 평가를 하던 선배도 보기 좋아졌다고 칭찬해 주었고 천안역장님도 제가 최근에 좀 바뀌었다며 기대된다고 해주셨습니다. 회사는 잘 하는 사람이 아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주목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길다고만 느껴졌던 인턴기간 5개월이 지나 최종면접을 마지막으로 평가가 모두 끝이 나고 인턴사원로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합격하든 안하든 저 스스로 많이 성장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뿌듯했습니다.

Proud Korea, Proud Korail

최종합격 발표 당일 어머니와 함께 자취방에 있는 짐을 다시 집으로 신고 왔습니다. 합격 여부 발표까지 기다리는 몇 시간이 너무 긴장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결과발표 시간


‘합격’이라고 나와 있는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를 보고 어머니와 형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보다 더 마음고생하셨을 어머니에게 마음의 짐을 털어드린 것 같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합격 후 저는 조치원역으로 발령을 받았고 승차권을 발권해주는 매표발권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철도공사의 직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벅찼습니다. 인턴사원으로 근무할 때 시청했던 홍보 동영상에서 봤던 ‘Proud Korea, Proud Korail’라는 구절을 매일 생각하면서 고객들에게 행복을 드리자는 마음으로 근무했습니다. 선배님들도 다들 잘 해주셔서 일하는 것이 즐거웠지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학교를 들어가지 못했다고 사내에서 무시받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꼭 대학교 학위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고 몇몇 고객들 중에서는 저의 조그만 실수에 큰 소리를 치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무 잘못이 없어도 휘방을 놓고 가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특히 제가 단지 젊다는 이유로 무시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당황도 하고 제 마음을 몰라주는 고객 분들에게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반드시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는 말처럼 시간이 지나서는 여유도 생겨서 ‘화를 내는 고객들에게 내가 좀 더 친절하게 웃어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 가지 실험도 해보았습니다. 고객들이 화를 내시면 커피도 타서 드려 보고 냉수도 드려 보고 하면서 더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불만사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불만을 토로하던 분들이 만족하시면서 금방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고객의 상황에 같이 아쉬워하는 마음과 작은 친절로도 불만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최근에 군 복무를 마친 후 천안역에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인턴 생활을 했던 천안역에서 근무를 한다고 생각하니 다시 스스로 조금 위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턴생활 중에도 잘 이겨냈던 것처럼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과 작은 생각의 변화, 그리고 내가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라는 생각이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고 차근 차근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올바른 목적과 목표는 바른길을 제시한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취업의 길을 가려는 여러분! 누구나 처음에는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나보다 남들이 가진 게 많아 보일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둠을 욱하는 것보다 촛불을 켜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남들이 다 가는 대학 진학의 길이 아닌 취업의 길을 가고자 하는 간절한 이유를 항상 기억하고 나의 경쟁력이 이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생각,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를 한다면 어려워 보였던 ‘취업성공’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 취업 후 진학의 길을 선택하였고 이 선택을 후회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고졸 취업에 도전하는 여러분. 더 큰 도약을 위한 빠른 도전에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땀과 열정을 믿는다면 고졸채용 신화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7

마라톤 출발선에 선 지금, 즐기면서 달려라!

최○○/국민건강보험공단

고3 시기를 약 석 달 정도 남겨둔 요즘도 문득 ‘만약 내가 인문계 고교에 입학했다면 내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질문을 가끔 한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 대답은 한결 같다. ‘나는 지금도 특성화고교에 진학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고졸취업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 이 시점을 즐기고 있다!’ 고.

열아홉 살 세상을 만나다

처음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생각난다. 나는 취업에 자신만만했다. ‘아무리 못 해도 중소기업은 들어가겠지.’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요즘은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뜻의 ‘이태백’도 모자라 10대들도 장차 백수를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의 ‘십장생’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그리고 아무리 고졸채용이 대세라고 해도, 고졸채용이 늘어난 만큼 고졸자에게도 취업의 문턱은 높고도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작년, 전국의 특성화고교 학생들이 고졸채용 취업설명회에서 설명을 듣고 상담을 받던 광경이 아직도 생생하다. 취업담당자에게 인사를 하며 고졸채용 취업설명회를 듣는 친구들의 모습에는 단정한 옷차림, 아름다운 미소, 내신성적, 자격증 등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멍해졌다. 세상에 나처럼 고졸채용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느낀 순간부터 왠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격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취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과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그냥 남들처럼

럼 대학이나 갈 걸'하는 생각이 순간 번쩍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간직해온 꿈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지금까지 취업을 위해 달려온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다. 나보다 잘난 친구들이 많다는 이유로 겁쟁이처럼 대학이란 곳으로 숨으려 했던 내 행동이 바보처럼 느껴졌고, 오히려 더 열심히 노력해서 꼭 원하는 곳으로 취업해야겠다는 더 큰 오기가 생겼다.

도전정신과 노력이 내 인생의 등대가 되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본격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을 무렵, 학교에서 선배와의 만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기회를 얻게 됐다. 사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휠체어와 같은 버팀목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 이런 내 관심사항에 대해 선배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선배는 나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을 소개해줬다.

선배는 모든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비전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이라고 설명해주었고 공단에서 하는 일, 제도 등에 대해 더욱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공단의 직무 성격은 웬지 내가 생각했던 봉사상에 가까웠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던 나에게 마침 딱 알맞은 적성을 찾은 느낌이었다. 나는 상담 후에도 공단에 관련된 뉴스와 정보를 찾아봤고, 결국 내 고민을 확신으로 만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 꿈과 목표를 동시에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이라고 말이다.

그때를 기점으로 나는 목표를 설정했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들도 세워갔다. 차별화와 다양한 경험. 두 가지가 바로 내 전략이었다. 물론 내신 성적과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했다. 기본을 갖춘 채로 새로운 도전을 통한 경험들을 쌓는 것. 그것을 나만의 강점으로 삼아야 했다. 그렇게 목표를 설정한 그 도전정신과 노력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베푼’으로 시작해 ‘배움’을 배우다

내 기억에 나는 어릴 적부터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 특히 내 욕심만 채우는 일보다, 나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종종 요양병원에 찾아가 어르신들을 도왔다. 어르신들을 도우면 도울수록 오히려 나 자신이 더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아마 그게 바로 베푼의 가치였던 것 같다.

어느 날, 이색적인 경험을 하고자 대외활동에 관해 검색하던 중 ‘꿈과 사람 속으로’라는 해외봉사활동 모집공고를 보게 되었다.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고민 없이 지원할 수 있었고, 다행히도 서류전형에 통과한 뒤 최종면접을 거친 후 최종합격을 하게 되었다. 봉사활동에 가기 전 출국할 때,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다짐했지만, 막상 봉사지에 도착하니 각오가 약해졌다. 특히 더운 날 재활센터에서 시설을 보수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게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출국하기 전 다짐했던 말들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 다짐들은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그렇게 8박 10일 동안의 봉사활동은 어려운 아이들에게 ‘베푼’을 주기 위해 시작했었지만, 오히려 아이들을 통해 내가 더 큰 ‘배움’을 얻었던 일로 기억에 남았다.

경험은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 줄 선물이다

철저히 목표대로 준비하고 있던 차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턴직원 채용공고를 보게 됐다.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고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색다른 경험이라고 생각해 꼭 합격하고 싶었다. 도전정신과 철저히 준비해온 실천 덕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턴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내딛는 사회생활의 첫발이었다.

인턴으로 덜컥 합격하니 내 목표를 이룬 것 같아 뿌듯함과 자부심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나의 실수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지 하는 막막함과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그 걱정도 잠시뿐이었다. 직원들은 나를 마치

가족과 딸처럼 애정을 갖고 항상 친절하게 챙겨주셨고, 업무와 관련해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땐 언제나 흔쾌히 알려주셨다. 이런 보살핌 덕분에 학교에서 이론만으로 배웠던 업무들을 직접 활용하면서 나는 공단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

전화상담실에서 아르바이트한 경험이 있어 전화로 민원을 응대할 때 상당한 자신감을 가졌었다. 하지만 계속된 실수 탓에 자신감은 한없이 떨어져 전화받는 것이 점점 겁이 나기 시작했고 급기야 전화가 올라도 전화받는 것을 피하기까지 했다. 과장님께서서는 내가 전화받는 것을 겁먹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셨는지 먼저 다가오셔서 애정어린 조언을 해주셨다. 과장님의 조언 덕분에 나는 다시 자신감을 얻었고, 업무에 순조롭게 적응하며 칭찬까지 듣게 되었다.

공단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었던 교훈은 내가 아는 업무라도 혹은 경험해 봤던 일이라고 해서 자신만만해 하면 안 된다는 것과 실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열아홉 살 고등학생이 업무현장에서 실수하는 와중에도 항상 격려와 따뜻한 말로 나를 다독여주셨던 직원들 덕분에 나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똑같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 더 성실하게 노력할 수 있었다.

단지 또 다른 경험을 쌓아 보자고 시작했던 청년인턴이 이제는 나의 10대 막바지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과 꿈에 한 발짝 다가갈 기회가 되었다.

고진감래(苦盡甘來): 고생 끝에 낙이 찾아오다

이처럼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인턴생활이었지만 성인이 되기 전 마지막 시기에 친구들과 추억을 쌓는 시간이 줄어들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딱 5개월 동안은 인턴생활과 학업에 조금 더 집중하기로 했다. 나는 고졸 예정자 인턴이라 학업 병행이 필수였고 인턴생활과 학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노력했다. 평소 어떤 일을 할 때 내 의지에 따라 가능과 불가능이 나뉜다고 생각해 왔고, 인턴과 학업 두 가지 다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인턴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갖고 있던 마음가짐은 사라졌고 인턴생활에 안주하

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연히 성적은 곤두박질쳤다. 그 순간 아차 싶었다. 5개월이 끝나면 다시 취업 준비생으로 돌아갈 텐데 마치 취업이라도 한 것 같이 안일하게 생활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렇게 위기감을 느낀 나는 다시 마음을 잡았고 일이 끝나면 곧장 학교로 가서 야간자율학습을 했다. 친구들에게 교과서를 빌려 정리하기도 했고,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는 담당 선생님께 여쭙보았다. 각오와 다르게 몸이 지칠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하나’ 싶었지만, 다른 친구들보다 뒤쳐지는 건 더 싫었기에 이를 악물고 끝까지 버텼다.

다시 성적을 올리는 과정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다. 현실에 안주한 채 나태한 사람은 결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나 역시 나태해지고 싶은 순간이 많았지만, 나태함을 버리고 오직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니 그것을 달성할 수 있었다.

마라톤 출발선에 선 지금, 즐기면서 달려라!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라는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을 고졸 취업준비자 친구들이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한다. 학교라는 좁은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와 같다. 우물 안 개구리의 세상은 한 뼘의 하늘이 전부이다. 하지만 사회는 우리가 학교라는 좁은 세계에서만 생각했던 이상으로 훨씬 넓고 복잡하며,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아직 열아홉 살이라는 나이가 많은 것들을 접하기 어려운 나이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새로운 것을 누릴 기회와 가능성이 많은 나이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고졸 취업 준비자 친구들이 앞으로 단순히 취업과 학업에만 초점을 맞춰 학창시절을 보내기보다는 한 권의 자서전처럼 나만의 이야기를 하나씩 만들고 마라톤 출발선에 선 지금 이 순간들을 즐기면서 달리길 바란다. 

우리는 고졸 마라토너입니다

강○○/한국수자원공사

아직 어린 나이라고 취업에 대한 절실함이 적은 것은 아니다. 한창 취업이 되지 않고 힘들었을 때 감명 깊은 문구를 읽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란 책 중에 ‘그대 좌절하는가? 친구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대만 잉여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가? 잊지 말아라. 그대라는 꽃이 피는 계절은 따로 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대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이다.’라는 구절이다. 이 글을 읽고 ‘나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자 결과가 달라졌다. 불안감에서 자신감으로 바뀐 결과는 바로 K-water 입사라는 결과이다.

또 다른 스타트라인을 향해

내가 중학생일 때, 아버지께서는 회사를 그만두시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지만 쉽지 않았고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평범했던 가정형편이 그 때부터 많이 달라졌다. 어려워진 형편에도 아버지는 어머니와 우리 3남매를 책임지고자 여러 가지 꾀은일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부모님께 최대한 물질적으로 부담을 드리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였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진학을 선택할 때 이 생각이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최대한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지 말자는 내 생각과 맞아떨어졌다. 중학교 때 상위권의 성적

을 유지하였던 내가 특성화 고등학교를 진학하겠다고 하자, 담임선생님과 주변 선생님들이 만류하셨다. 그러나 나는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상승궤도에 올라가 있었고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취업이 목표인 내가 어렵게 대학을 나와도,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먼저 대학을 나올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정부가 ‘스펙을 줄이고 직무능력 위주로 채용하자’라는 취지로 추진한 정책인 고졸 채용이 활성화되고 있었고, 나는 담임선생님께 “내 전문성을 키워 취업 후에 직무와 관련된 분야로 대학 진학을 하겠다.” 라고 말씀드린 후에 인문계 진학을 포기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하였다.

스타트 라인에서의 우여곡절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 탄탄대로를 달렸다. 고등학교 내내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고 학교에서 학생회, 반장을 도맡으며 학업과 학교 일에도 열심히 하여 선생님들께서 총애하는 학생이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나를 보고 우스갯소리로 “다른 회사에 취직하지 말고 학교에 취직하는 게 어때?”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학교 일도 열심히 하고 사회성이 좋은 학생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생활도 탄탄대로를 달릴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었다. 2014년 당시 공기업, 대기업 고졸채용 규모는 국내경기 악화 때문에 2012년, 2013년에 비해 확연히 줄었다. 채용공고도 확연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내가 다니던 학과는 학교 내에서 성적이 제일 좋은 학과였지만 기업에서 선호하지 않는 흔히 말하는 ‘취업 비주류’ 학과였다. 취업에 성공한 친구들은 3학년 2학기부터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학교에 나오지 않는 대신 회사로 출근하였고, 점차 학교 내에 3학년들은 자리를 비워갔다. 학교에 빈자리가 많아질수록 나의 마음도 공허해지고 좌절하고 점점 더 의기소침해져 갔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꾸준히 자기계발을 하였고, 한 줄기 빛이 보였다. 내가 목표로 하였던 회사 K-water에서 고졸채용공고가 졸업 바로 전에 게시되었다. K-water는 수자원과 수도시설을 운영하는 직종으로 고졸자 제한 공개채용을 실시해 왔었고, 정보통신과 프

로그래밍 등 전기, 전자통신 기기 전반에 대해 배우는 우리 학과의 특성까지도 직무역량이 잘 맞아 이미 선배들도 많이 취업한 기관이었다. K-water에 취업한 학교 선배가 한 학기에 한 번씩 와서 회사의 장점과 직무 등을 소개해주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목표로 설정하고 준비를 한 공기업이었다. 특히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회사의 비전이 나 역시도 행복하게 해 줄 것 같았다. 직무에 맞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3년을 준비했었기에 망설임 없이 K-water에 지원하였다. 1차 KACT(직무능력·역량검사) 전형,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으로 합격하였다는 홈페이지 화면을 보았다. 합격했을 당시 기분은 20년 살아오면서 느꼈던 기분 중 최고였고 나는 집 방바닥이 무너질 듯 방방 뛰어다녔다.

스타트 라인을 떠나서

합격 후 K-water 교육원에서 9일간 교육을 받았다. 전국 각지에서 합격하여 모인 25명의 동기를 만났고, 대전 K-water 교육원에 모여 교육이 진행되었다. 9일간의 교육이 끝나고 동기들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전국 각지에 있는 사업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뿔뿔이 흩어졌다. K-water 수도권관리처로 발령을 받고 첫 출근날, 아침에 교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운동화가 아닌 구두를 신고 집을 나섰다. 아직 학생티를 벗지 못했던 나는 정장을 입은 모습과 구두 신은 모습을 보니 어색했고 사무실에 들어가 내 자리에 앉은 첫 느낌은 교무실에 선생님들 사이에 앉아 있는 학생이라는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잠깐일 뿐이었다. 우리 부서 선배님들이 나에게 장난도 쳐주시고 말도 많이 걸어주셔서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5개월 동안 현업 OJT를 실시하였는데 부서 내의 전문성을 가진 여러 분야의 선배들이 나를 지도하여 주셨다. 여러 직무교육과 현장점검 등 학교의 공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분야의 일을 배우면서 흥미가 있었고 보람찼다. 내가 맡은 직무는 수도권 광역상수도의 통합운영이었고, 용수공급 체계의 운영 특성과 위기대응 역량을 터득하였다. 부서 내 멘토님들과 현장에 직접 나가 점검정비 현장실습을 하였고, 실습을 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두고, 특이사항과 느낌 점을 빼곡이 기

록해두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기존의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모식도를 직접 제작하기도 하였다. 열정으로 가득찼던 현업 OJT 5개월 중, 마지막 달에 청년인턴 성과 발표회가 있었다. 권역별로 상반기 입사한 대졸, 고졸 청년인턴이 함께 청년인턴 때 성과를 공유하는 발표회였다. 고졸채용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보통 사람들은 ‘고졸은 대졸에 뒤처진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런 편견을 깨고 싶었다. 이 성과발표회는 그 편견을 깰 아주 좋은 기회였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몇 시간이라도 남아서 발표자료를 만들었고, 발표 연습을 하였다. 노력한 사람을 알아주는 것인지 결국 나는 수도권본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부서 선배들이 다들 놀라는 눈치였다. 최우수상을 받았을 때 나는 굉장히 뿌듯했고 보람찼다.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일찍 취업한 고졸 선배들과 여러 회사의 고졸 선배들, 고졸들은 이 편견을 깨려고 더욱더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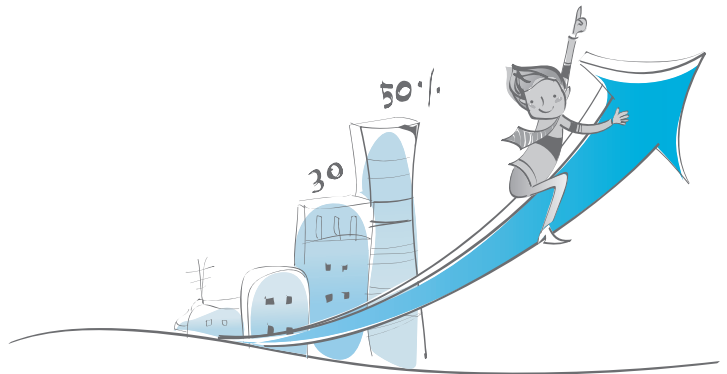
고졸 마라토너들에게

취업 후 일 때문에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길 나누었다. 선생님께 “운이 정말 좋아서 붙은 거 같아요” 라고 말을 하였는데 선생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이 그 행운을 잡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 행운을 잡는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 고졸들은 분명 남들보다 일찍 취업하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은 많을 것이다. 그러나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많은 것처럼 얻는 것도 많다. 안 가본 길에는 분명 미련이 남고 후회가 남는다. 우리는 먼저 취업하는 것을 선택을 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길을 선택을 하였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나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한 후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모든 사람에게 취업이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니다. 나의 최선의 선택은 먼저 취업하는 것이었고 아직 난 20살이다.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다. 이제 달리기 시작을 했고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도 멀다.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고 평탄하고도 쪽 뺨은 길이 될 수도 있다. 학교생활을 할 때는 선생님께서 만들어주는 길로 나아갔다. 그러나 학교생활은 이제 끝났고 이

제부터 나의 길은 이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고졸, 고졸 예정자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아직 우리는 젊다. 아직 실패해도 될 나이다. 인생을 하루로 치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 씻고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겪었던 것처럼 취업에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 그렇다면 다시 일어나서 출발해라. 끊임없이 도전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 10대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한다. 10대에는 도전할 많은 기회들이 있고 도전 자체는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불안감 때문에 도전조차 하지 못한다면 실패조차 없고 실패에서 나오는 경험조차 없는 것이다. 내가 살아온 길은 아직 길지 않고 경험도 부족하다. 그러나 비슷한 길을 걸어오고 있는 고졸예정자와 고졸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글을 읽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나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서 기나긴 마라톤을 완주할 것이다. 고졸 마라토너들이여! 포기하지 말고 완주해라! 🏃‍♂️

PART **IV**

청년인턴



1

Miss, Ghana

강○○/한국국제협력단

떨리던 첫 출근길, 가나에는 우기의 시작을 알리는 장대비가 내렸다. 한국과는 사뭇 다른 비 냄새가 낫설었다. 대학 생활과 취업 준비 과정, 인턴십을 결정하던 순간,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서 인사를 나누던 가족들의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는지 함께 파견된 인턴 동기들도 저마다 창밖을 바라볼 뿐 말이 없었다. 침묵을 깬 것은 레게머리의 택시 기사님이었다.

“All right, Sisters. We’re here, KOICA Office!”

나는 2014년 5월 25일 KOICA(한국국제협력단) 해외사무소 청년인턴으로 서아프리카 가나사무소에 파견되어 1년을 근무했다. 나의 주 업무는, 개발도상국 정부 인사들을 KOICA 본부에 초청해 국가 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연수사업’이었다. 주가나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가나 정부부처로 초청 레터(공문)를 보내고 해당 부처에서 연수생을 추천 받아 비자 발급 및 출입국 과정을 지원하는 업무다. 1년 동안 160여 명의 가나 공무원들이 KOICA 가나사무소를 통해 한국으로 연수를 떠났다.

연수사업은 사람을 다루는 일인 탓에 매뉴얼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한 번은 지방에 살고 있는 연수생이 직접 지원서를 제출하러 트로트로(tro-tro, 가나의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14시간 거리를 이동하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발이 묶였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출국 당일 연수생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항공편에 문제가 생겨 입국 일정을 급히 조정하기도 했다. 한 번은 연수생을 추천해달라는 레

터를 보낸 후 기한이 한참 지나도록 회신이 없어 해당 부처 사무실로 찾아가보았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2013년 우편함에 레터가 봉투째 암전히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허탈함을 금치 못했던 해프닝도 있었다.

연수사업을 지원하며 가장 보람 있었던 업무는 2014년도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가나에 돌아온 귀국 연수생들을 위한 워크숍을 기획한 일이다. 교육, 에너지, 공공행정 등 주제별 6개 과정에 참여했던 100여 명의 연수생들이 모여 한국에서의 연수 성과와 현업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1주 1과정씩 6주에 걸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1년간의 연수사업 성과와 개선방안을 공유할 수 있었다. 그 때 느꼈던 업무만족도와 보람은 평생 간직할 소중한 순간이 되었다.

두 번째로 뿌듯했던 경험은 2014년 서아프리카를 강타한 에볼라바이러스 때였다. 발병국가는 물론, 서아프리카 역내 연수생들의 출입국 문제가 불거졌다. 본부에서는 사무소 측에 가나 에볼라바이러스 발병 및 대응 현황 공유를 요청해 왔다. 당시 가나는 발병국가가 아니었고 의심환자조차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연수사업 담당자로서 주재국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한 후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본부에서 별도로 협조 요청한 ‘에볼라바이러스 일일보고’ 업무를 맡았다. 국제보건기구(WHO) 가나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가나 내 에볼라바이러스 상황, 가나 정부의 대응 정보, 현지 언론자료 등을 취합해 본부와 연수기관, 대학에 송부했다. 반기문 UN사무총장 지시로 가나 수도에 설치된 유엔에볼라긴급대응단(UNMEER) 본부 주간 회의에 참석 후 회의 결과를 본부에 알리기도 했다. 동시에, 가나에 파견 중이던 KOICA 협력의사 선생님들의 협조를 얻어 출국 전 모든 연수생들이 에볼라바이러스 검사를 받도록 했다. 진단서류는 본부와 연수기관, 대학으로 보내 질병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연수사업을 지원하며 우여곡절이 참 많았지만, 위의 두 가지 경험은 기획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다.

KOICA 해외사무소 인턴경험을 통해 ODA 전문가의 꿈을 굳히고 본부에 입사하게 된

이유를 꼽자면 아래 네 가지다.

첫째, 인턴 이상의 ODA 실재를 경험하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었다. ODA 사업에는 여러 갈래(프로젝트, 연수, 봉사단 및 전문가 파견, NGO 지원, 기자재 지원, 인도적 지원 등)가 있는데 해외사무소는 한국 정부와 수원국의 접점으로서 위의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 직접적인 주체다. 따라서 사무소 파견 인력은 ODA 현장의 범분야를 경험할 수 있다. 감사하게도 사무소장님과 부소장님께서 인턴들의 커리어 개발을 적극 지원 해주셔서 각종 사무소 자체 교육과 출장은 물론 외부 세미나, 회의 등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1년 남짓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나는 가나사무소의 거의 모든 사업에 참여했다고 자신한다.

1년 동안 업무 대상 국가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는 것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커리어다. 해당 국가와 사람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돕는 자의 자세’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가나 사람들과 같은 기후, 언어, 음식, 공간, 화폐, 놀이를 공유하면 현지 문화를 몸으로 배울 수 있다. 이는 현지 주민들과의 유대관계 형성은 물론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촉매제가 된다. 수원국을 존중하는 자세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 문화의 우위를 가리는 일 방향적 사고에서 탈피하는 데서 출발한다. 개발 현장을 직접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떠올리는 경제적 성장·사회적 개발이 주민들의 행복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 대목을 지나야만, 비로소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다. 해외 파견 근무는 이제 막 경력을 시작하는 주니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출발점이다.

둘째, 현지 사정에 따른 변수가 많은 해외사무소는 나의 장점인 주인의식을 발휘하기에 적합한 근무환경이었다. 나는 문제 상황에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성취해 가는 과정을 좋아한다. 현지에서 돌발 상황이 닥칠 때마다 필요한 것은 언제나 주인의식과 책임감이었다. 장점을 심분 발휘하여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나는 원석 같은 장점을 강점으로 다듬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내 모습을 지켜보며 누렸던 행복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다.

셋째, 해외사무소 연수업무 경험을 살려 KOICA 본부 연수사업의 비전에도 기여하고 싶었다. 올해 UN은 2015년까지 세계가 달성하기로 한 MDGs를 대체할 새로운 개발 목표를 제시했다. 나는 가나사무소에서 연수사업을 지원하는 동안, 개발 목표의 달성 여부는 인적자원 투자에 달려있다고 믿게 되었다. 가나 공무원들이 KOICA 연수사업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불과 50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돕는 나라가 됐고, 개도국에 전수할 수 있는 개발 경험이 한국처럼 많은 나라는 없다고 믿는다.

넷째, ODA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개발협력분야에는 KOICA 외에도 NGO, 국제기구,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있다. KOICA 해외사무소에는 대(對)가나 원조에 관심이 있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교류할 기회가 종종 있다. 한국에 있었다면 만나 뵙기 어려웠을 분들과 함께 일하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다.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교육을 전공했다고 자기소개를 할 때면 현지 사람들로부터 종종 받았던 질문이 있다. ‘대한민국 인재 교육의 어떤 점이 개발의 직접적인 성과로 이어졌느냐? 그것을 이 나라에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느냐?’다. 나는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올 5월 귀임 직후, KOICA 연수사업을 담당하는 역량개발총괄팀 채용공고를 접했다. 내가 더 배우고 싶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바로 그 직무였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제출했다. 지원서에는 가나사무소에서 청년인턴으로 연수사업을 담당하며 겪었던 에피소드와 느낀 점을 사례 중심으로 적었다. 면접에는 3분 자기소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인턴 경험을 해당 직무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발표자료를 작성해 갔다.

합격 통지를 받고 오늘로 정확히 입사 3달이 된다. 아직 일이 익숙하지 않고 실수도 잦지만, 작은 장점도 칭찬해주시고 단점은 덮어주시는 팀장님과 팀원들을 만나 하루하루 꿈을 이루어나가는 회사생활을 하고 있다.

가나에서의 인턴 경험이 없었다면 나의 오늘은 사뭇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내겐 마

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마음의 빛을 갠아나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려 애쓰고 있다. 이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뿌듯함으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오늘도 가나가 참 그립다. 

2

청년인턴제도? 취업의 연결고리!

이○○/도로교통공단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무슨 진부한 멘트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턴 출근 첫날 회사 앞에 서서 혼자 나지막이 읊조린 제 진심 어린 다짐이었습니다.

여기에 왜 왔니?

스물여덟. 여자. 비상경계. 사범대학 출신. 졸업한 지 약 3년. 어느 곳에 가나 첫 질문은 “교사가 되지 않고 왜 지원했죠?”였습니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에도 보람을 느꼈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저의 힘으로 주변의 불편한 점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또한, 조금 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일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공공기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저는 관심 밖의 지원자였고 이런 저에게 공공기관과의 연결고리가 필요했습니다.

인턴 면접을 보게 되다

2015년 뜨거운 햇볕이 작열하는 여름. 면접을 보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TBN 울산교통방송을 찾았습니다. 꽤 많은 지원자 사이에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나이도 많았고,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초조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가서는 정말 진솔하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과 봉사활동에 대해 어필하며 경험은 없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어찌 보면 꽤기 넘치지만 답답한 친구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는 대로

인턴 발표가 나던 날, 너무나도 안 가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뻑뻑한 일정을 잡고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합격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기다려왔던 합격 전화였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디를 가야 하는지 고민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연결고리를 찾아서

첫 출근 날. 나는 어떤 부서에서 어떤 분들과 함께 일하게 될까,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간단한 인턴 교육을 마친 후에 저는 편성제작부에 배치받아 교통방송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간마다 방송되는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하며 각종 교통안전 캠페인과 민원 제로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통방송은 교통정보를 제공해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역할도 하지만, 교통관련 보도나 사고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해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교통안전교육방송’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에 제 손으로 발견한 불편사항을 제보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현재는 민원 제로 프로젝트를 하나 맡게 되어 경찰청과 협력하여 제보를 접수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교통방송 속 코너에 게스트로 초대되어 방송에도 직접 참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입사한 지 채 2개월도 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남은 3개월도 처음 마음가짐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음 공단 채용에서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며 노력하고 있습

니다.

연결고리를 찾다

“인턴 할 시간에 그냥 공부를 더 하는 것이 낫지 않아? 나이도 있는데 이제 시집이나 가~.” 인턴 합격 전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꼭 합격해서 더는 서럽지 않아야지’하고 공공기관 입사를 희망하는 저에게 청년인턴제도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첫째로, 최근 스펙을 타파하고 경험을 중시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로 채용 경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도입을 시작하여 내년부터는 대부분 공공기관이 NCS로 신입사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NCS 채용부터는 자기소개서 항목부터 지원자의 스펙보다는 경험을, 지원자의 이력보다는 직무적합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보았을 때, 청년인턴제도를 통해 기관의 분위기와 전반적 업무,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의 에티켓 등을 몸소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홈페이지의 조직도와 회사소개를 살펴보며 입사지원을 했을 때는 막연한 마음에 지원동기를 쓰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인턴으로 근무하며 실제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회사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게 되니 한결 자기소개서 쓰기가 수월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일하면서도 취업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인턴제도는 청년층의 취업 및 고용을 촉진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입니다. 그래서 취업박람회나 채용설명회 등과 같은 취업과 관련된 행사나 일정이 생기면, 참석할 수 있게 최대한 배려해 주십니다. 저는 이번에 울산에서 열리는 취업박람회에 참여하여 저에게 맞는 직렬을 다시 한번 탐구하고, 현직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최종 목표인 공공기관 취업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에 골인하기 위해서

저 역시 아직 현직자가 아닌, 청년인턴이지만 청년인턴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취직하고 싶은 한 명의 '취준생'으로서 이 땅의 모든 취준생과 힘을 나누고 싶습니다.

5개월간 있다가 가는 인턴이지만, 그래도 이왕 떠나야 하는 사람이라면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턴 생활 시작 후 저만의 수칙이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인사 잘하기'입니다. 인사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주치는 누구든, 언제든 환하게 먼저 인사를 건네면서 항상 이 회사에 처음 출근하던 그때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서든 몇 번을 마주치더라도 예외 없이 인사드렸고, 지금은 '참 인사성 밝은 인턴'이라는 평가를 들으며 직원분들의 관심 어린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노력하시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을 지속적인 회의와 상담을 통해 해소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청년인턴제도가 청년층의 취업을 조금 더 쉽게 도와주는 '수단'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청년인턴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 역시 인턴을 하기 전까지는 청년인턴제도가 채용과 연결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고 또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잠깐 단기로 하는 일' 정도로만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취업으로 갈 수 있는 최대의 연결고리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관별로 근무성적이 우수할 때는 정규직 채용 가산점 부여 또는 서류전형 면제 등 우대사항이 있고,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울산교통방송에 와보니 청년인턴제도를 통해 정규직 입사의 꿈을 이룬 분들이 존재했고 그 분들을 보면서 청년인턴제도는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자 저의 미래라고 스스로를 더 격려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턴 하는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 말고 인턴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을 통해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다면 어느 곳에서나 뽑고 싶어 하는 만능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청년인턴제도를 통해 막연히 환상을 가졌던 방송 업무에 직접 참

여하여 저만의 경험으로 저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청년인턴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취업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여 저만의 '청년인턴, 정규직 채용 합격 성공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최종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날까지, 저와 공공기관의 연결고리인 청년인턴제도와 함께 오늘도 힘차게 달려나가겠습니다. 고고고~! 

3

10개월, 독배기가 끊기 위해 필요한 시간

김○○/한국언론진흥재단

“좋은 일로 꼭 다시 뵙겠습니다.”

10달 동안 일했던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떠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작별인사였다. 나는 올해 1월 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내게 주어진 1년의 계약기간 중 2개월을 남겨놓은 시점이었다. 물론 남은 계약기간을 모두 채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선택했다.

흔히 연인과 결혼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사계절을 겪어보라는 말을 한다. 다양한 상황에서 미래의 배우자를 살펴보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턴으로 일한 시간은 마치 결혼을 결심하는 과정과 같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면서 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정식으로 입사하는 꿈을 키우게 되었다.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내 삶의 가치관이 일맥상통했기 때문이다.

사실 인턴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재단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면서 재단의 미디어연구센터에서 발간한 연구 보고서와 월간 『신문과 방송』이라는 잡지를 가끔 보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회사 업무를 경험하면서 내가 담당하는 업무와 같은 작은 조각부터 회사의 미션과 비전이라는 큰 그림까지 이해하게 되었다.

미디어진흥실 읽기문화팀. 내가 난생 처음으로 인턴으로 일했던 곳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과 함께 국민의 정보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는 곳이고, 읽기

문화팀은 활자 매체와 멀어지고 있는 시대에 국민들에게 신문이나 책 읽기를 장려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는 부서였다. 부서의 특성상 ‘읽기’를 주제로 삼는 명사 특강, 공공 블로그 운영, 중고등학생 멘토링 활동 등 대민 활동이 주요 사업이었다. 이런 다양한 업무 중에서 내게 주어진 업무는 ‘좋은 읽기 콘텐츠 보급’이었다. 이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누어지는데, 한 방향은 신문사를 통한 보급이고 다른 한 방향은 공공 블로그를 통한 보급이었다.

신문사를 통한 보급은 ‘기획보도 취재지원 사업’을 통해 진행되었다. 기획보도나 특집보도는 일반적인 기사보다 독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훨씬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재단은 다양한 기획취재 계획을 공모하고 선발된 신문사에 취재비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업무에 있어서 나는 각 신문사들의 취재 계획을 받아 심사 자료집을 만들고, 심사 회의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결산과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는 것과 같은 마무리 단계까지 다양한 일을 보조했다.

신문 지면을 통해 읽기 콘텐츠를 보급하는 일이 사무적인 성격의 일이었다면, 블로그를 통한 보급은 활동적인 성격의 일이었다. 재단은 ‘다독다독’이라는 공공 블로그를 통해 인터넷 유저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 필진과 대학생 기자단을 꾸려 꾸준히 좋은 소재의 글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는 직접 글을 쓰진 않았지만, 매달 기획회의에 참여해 지난 글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앞으로 준비할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에 참여했다.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고,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글감을 찾기 위해 꾸준히 신문과 방송을 모니터링했다.

재단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내가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회사의 1년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옆에서 지켜봤다. 이전까지는 회사 업무에 관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내게 이런 경험은 어렵듯이나마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인턴 일을 하면서 회사의 미션을 경험하고 이해한 것도 큰 수확이었다. 한국언론진흥

재단은 언론 환경의 발전을 돕고, 국민의 정보복지(Media Literacy) 향상을 위한 공공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다. 이런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가 지향하는 길이 내가 평소 꿈꾸던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세상에 조금이나마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다. 성과를 내고,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기업에 입사하기보다는 큰 부를 얻지는 못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재단에서 인턴으로 있으면서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고, 미래에 정식으로 입사하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10개월의 인턴 생활은 내가 회사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나를 회사에 보여주는 시간이기도 했다. 나는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다. 말을 하기보다는 아끼는 편이고,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 믿음과 신뢰를 주고 싶은 사람이다. 대학 시절 한 친구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마워.”라는 말을 해줬고, 이 말은 내 인생 최고의 칭찬으로 기억에 남았다. 그만큼 나는 ‘뚝배기’같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취업시장에서는 ‘뚝배기’가 온전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류전형, 인적성 시험과 면접이라는 일반적인 채용 시스템에서 뚝배기는 충분히 테워지고 꿀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다. 2년 가까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질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번 가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면접을 보면서는 그런 아쉬움이 없었다. ‘10개월 동안 보여드린 내 모습이 인상적이라면 붙을 것이고, 부족했다면 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재단에서 동고동락하면서 나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애썼다. 업무에 임하는 태도, 대인관계에 대한 예절,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등 좋은 모습은 좋은 대로, 부족한 모습은 부족한 대로 보여드렸다. 그렇게 보여드린 뚝배기가 마음에 드셨는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는 단순히 임시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진국을 꿀일 수 있는 뚝배기인지, 잠깐의 허기를 해결할 수 있는 라면을 꿀일 냄비인지 판별할 수 있는 시간과 자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신입사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상황이 사회적으로 큰 낭비가 되고 있다고 한다. 잦은 이직은 회사와 신입사원 사이에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지는 인턴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당장의 비용은 인턴제도를 통한 정규직 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제도가 훨씬 효율적이다.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보여드린 그 모습, 그 마음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하며 회사 선배들께 드렸던 인사말이다. 최종합격은 끝이 아니다. 믿고 샀던 독배기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영원한 숙제가 남아있다. 내가 계속 끊어야 나와 같은 좋은 독배기들이 후배로 들어올 수 있다.

독배기는 계속 끊어야 한다. 

배달중인 나의 꿈

한○○/우체국물류지원단

안녕하십니까? “안전, 신속, 정확한 우편물류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우체국물류지원단 일반사업팀 ‘청년인턴’ 한○○”입니다.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난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소속이 불명확한 그저 대학을 졸업한 ‘취업 준비생’이었다. 2014년 8월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내 꿈인 물류기획을 할 여러 회사를 지원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시며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금년 4월 나의 어떤 점이 부족한지 곰곰이 생각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중 기회가 찾아왔다. 군 입대 전 이모의 소개로 동서울우편집중국 소포계에서 3개월간 소포 구분 작업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청년인턴 채용공고가 나온 것이었다. 비록 정규직 신입채용이 아닌 청년인턴 공고였지만 더 이상 부모님의 용돈으로 생활할 수 없다는 생각과 물류전문가의 꿈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이라 생각하고 지원을 했다.

물류전문가의 꿈, 드디어 배달접수

예전의 동서울우편집중국 아르바이트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 쓴 결과 서류합격을 맞출 수 있었다. 3일 뒤 면접을 봤고 나의 열정과 패기, 경험을 앞세워 당당히 최종합격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다. 드디어 5월 4일 첫 출근날,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우체국물류지원단에 출근을 했다.

청년인턴 동기 3명과 함께 임원진, 각 부서장과 인사를 하며 8개월간의 여정을 시작

했다. 우리 동기들은 모두 아직 부서배치를 받지 않고 4일간 각 팀에 대해 업무 및 사업 현황을 교육받았다. 그 이후 외부교육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실시하는 신입사원 능력개발과정을 3박 4일간 가게 되었다. 솔직히 난 청년인턴 신분으로 이런 외부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비싼 위탁교육비를 내주면서 진정한 프로직장이 되는 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었다. 또한 우체국물류지원단이 나에게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이 신입사원 능력개발과정은 다른 회사 신입사원들과 같이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외부위탁교육이 끝난 다음날 나는 인재경영팀과 면담 후 사업운영실의 일반사업팀으로 발령을 받았다. 일반사업팀은 소포위탁배달사업을 필두로 주유소사업, 방문접수사업의 수익사업을 하고 비영리재단인 만큼 목적사업인 편지쓰기대회와 우편송달품질 조사를 위한 QTS사업을 하고 있는 팀이다. 이렇게 여러 사업을 맡고 있는 점에서 매력적인 팀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 팀의 중점사업인 소포위탁배달사업은 연간 약 9,000천통의 소포배달관리 업무를 국민에게 한다는 점에서 나의 꿈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일반사업팀에 내 자리가 생겼다는 설렘과 함께 ‘과연 내 업무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있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기우에 불과했다. 일반사업팀으로 첫 출근날 팀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팀원들이 나를 환영해주었다. 그날 내 생애 첫 회식을 하였고 팀원 모두가 사회로의 첫 걸음을 축하해주었다. 그다음날엔 내 첫 명함과 명패가 생겼고 이제는 ‘정말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일반사업팀 일원이구나’하는 소속감과 책임감이 들었다.

청년인턴제는 내 꿈을 싣고

나의 바로 위에 선임 멘토인 이○○ 대리님에게 본격적인 업무내용을 배우면서 일을 시작했다. 업무의 필수인 그룹웨어를 설정하고 사용법을 배우면서 앞으로 내가 할 일을

알아나갔다. 교육받느라 5월 중순이 지나 팀을 배정받은 상황이라 5월은 업무파악 및 팀 분위기 파악에 힘을 쏟았다.

6월에는 본격적인 임무가 주어졌다. 나의 첫 임무는 현재 우리팀이 맡고 있는 서울지역 위탁국 지도에 소포위탁배달원 구역을 나누고 경로를 설정하는 일이었다. 이 업무의 목적은 소포배달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위탁구 경로조사 및 신규계약 배달원 배달지역 투입 전 교육 자료 활용에 있다. 워낙 지도가 크고 200여명이 넘는 배달원들의 경로를 설정하는 일이라 2개월 정도 걸리는 프로젝트였다. 매일 이 업무만 하면 배우는 것이 부족할 수 있으니 5일 근무 중 3일 오후에만 프로젝트에 힘을 쓰라고 멘토님이 조언해주었다. 그리고 남은 근무일에는 대부분 팀원들의 지원업무를 맡았고 가끔씩 보고서도 써보면서 하나하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배울 수 있었다. 그렇게 2개월간 프로젝트를 마감하였고 이 업무를 통해 소포위탁사업의 물류기획에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앞으로 물류전문가가 꿈인 나는 미리 전문 업무를 겪어보면서 이 일이 나와 잘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통 인턴이라고 하면 별다른 임무 없이 지원 정도만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는 나에게 장기프로젝트를 맡기고 지원업무를 하게 되니 '정말 이곳은 나를 필요로 하여 채용했구나'하는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게 했다.

지원업무 또한 내가 생각했던 단순 서류 정리가 아닌 보고서 작성부터 기안까지 해야 하는 업무였다. 가장 중요했던 배달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계획안부터 배달원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획안까지 직접 업무를 해보면서 사업업무를 자세히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어플리케이션 개발업무는 용역업체와의 협의부터 견적을 내서 업체 선정까지 모두 직접해 보면서 몸으로 업무를 느낄 수 있었다.

물류를 이론으로만 배운 나는 이러한 실무가 벅찰 때도 있었지만 여기서 청년인턴으로 일하는 것이 나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장 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리고 워크숍, 회식, 체육대회, 봉사활동 등 각종 회사 행사에 참여를 독려해주면서 나를 청년인턴이 아닌 신입사원처럼 대하여 주시니 업무에 열정을 가지며 일을 할 수 있었다.

더 이상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아닌 우리 회사라는 애사심을 느끼게 해주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 정규직이 아닌 올 12월까지 계약기간이 정해진 청년인턴이란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단에서 인턴이 아닌 신입직원으로 내 역량을 마음껏 펼쳐 보고 싶다.

꿈과 희망을 배달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인턴으로 4개월간 일하면서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에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몸소 배달원들의 고충을 느낀 일이 기억에 가장 남는다. 우리 단은 명절기간 2~3주 전부터 급격히 물량이 늘어나면서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을 계획해 일을 한다. 올해는 추석 전인 9월 7일부터 26일까지 설정하였다. 이 기간에 우리 팀은 아침 6시에 출근하여 소포배달원 현장 지원에 나선다. 아르바이트 하던 시절과 비슷한 업무였지만 인턴직원으로 물류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해 보니 책임감이 남달랐고 사무실에서 못 느꼈던 배달원 복지에 신경을 더 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또한 실무 현장업무를 해보면서 소포위탁배달사업의 운영방법이나 물량재고관리 등을 보면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런 좋은 경험이 물류전문가란 꿈을 이루기 위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

여름이 시작되기 전 인연을 맺게 된 우체국물류지원단, 벌써 날이 쌀쌀해지면서 가을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제는 꿈이 반 정도 나에게 배달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직 배달 중인 꿈을 받기 위한 나의 준비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을 주고 싶다. 청년인턴으로서 우체국물류지원단에 적응을 잘 해냈고, 업무도 맡은 바 임무를 수행했기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 조금 아쉬웠던 점은 물류전문자격증 취득이나 국제물류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도움이 될 만한 외국어공부가 소홀했던 점이다. 이런 아쉬운 점을 보완해야만 이번 기회를 통해 배달중인 물류전문가의 꿈을 좀 더 빨리 수취할 수 있을 것이다.

추석 우편물 특별소통이 끝나고 남은 인턴기간엔 경영실적보고서, 소포위탁배달 일괄수탁 계획, 편지쓰기대회, 우정봉사원 교육, QTS사업보고 마무리 등 앞서 한 업무보다

더 굵직한 일들이 남아있다. 업무와 내 자신의 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내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조금 더 힘을 내 꿈을 위해 준비한다면 이번 청년인턴은 희망을 밝혀준 불빛이자 꿈을 배달해준 고마운 배달원이 될 것이다.

많은 청년들이 인턴이라고 하면 배울 것도 없고 정규직 전환이 아닌 이상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여러 공공기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업무적으로나 대인관계, 회사문화, 직장생활 등 학생일 때 보지 못 했던 것을 보면서 충분히 자기개발이 된다고 생각한다. 취업하기 힘든 시기에 직장 실무 경험도 쌓고 공공기관 취업 시 우대조건도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경험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아직 인턴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도록 기회를 준 우체국물류지원단에 감사드리며 많은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를 추천하고 싶다. 

인턴, 20대의 또다른 배움의 전당

박○○/농업기술실용화재단

조회 수 하나하나에 떨려했던 첫 지원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시작하려는 막막한 제게 청년인턴은 저의 23년 가치관을 뒤 바꿔준 새로운 전환점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성적우수자, 고학력자 등 ‘취업’이라는 거대한 관문을 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해온 학우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저는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4학년이 막 다가오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고부터 4,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일주일 내내 아르바이트로 분주했던 저는 친구들에게는 그저 열심히 사는 친구로 인식되기 마련이었지만, 취업의 문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었던 저는 자신이 항상 작게 느껴졌고 이 길이 맞는 것인지, 과연 공백이 없이 사회에 바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및 회의감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도서관에서 시험공부를 하던 중,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청년인턴 공고모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자 같이 있던 친구는 웃으며 저에게 어울리는 분야가 아니니 시험공부에 몰두하라고 부추겼고 망설이는 동안 조회 수가 올라갈수록, 고민은 커지면서도 동시에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말처럼 저는 회계학도로서 농업과 접목시킬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아, 친구들 입장에서 제가 이곳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의아해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기술평가팀’은 현재 전문연구원 회계사 2명이 있는 곳으로,

경영 계통의 같은 과였던 저에게 매우 매력적인 팀으로 다가왔고 ‘농업’이라는 커다란 숲보다는 ‘회계’라는 작은 나무에 포커스를 맞춰, 후에 숲을 보는 안목까지 키우고 싶었습니다. 쟁쟁한 다른 경쟁자들에게 밀릴 것도 같았고 지원 분야와 재단을 연결짓기에는 아직 부족해서 새로운 분야를 공부할 기회가 과연 주어질지에 대해 많은 걱정이 들었지만 당당하게 지원을 해보자고 결심하여 기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결과 당시 인턴 1명을 뽑는 저희 팀에서, 과외 아르바이트라는 조그마한 경력밖에 없었던 저였지만 비관련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내안의 가장 큰 원동력, 배움에 대한 도전

“남자이름이지만 여자입니다. 남성의 씩씩함과 여성의 섬세함을 동시다발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를 외친지 어느덧 세 달이 되었고 떨리는 첫 사회생활을 좋은 기억으로 연구원님들께 남기고자 끊임없이 앞을 향해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은 나이로, 일을 하면서 필요한 많은 자격증을 눈여겨봤습니다. 때마침 노리고 있던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자격증의 교육 공고가 떴을 때, 혼자서 스케줄 체크를 하며 들떠있었지만 그것을 본 다른 분께서는 말리시며 제 나이 때 가장 해야 할 다른 것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겨주셨습니다. 첫 번째 교육공고는 이렇게 이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0월달에 있을 이번 년도 마지막 교육공고에 대해서는 전보다 더 철저하게 미리 알아놓고 준비를 한 끝에, 팀장님께 허락을 맡아 결과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만치 않은 교육비였지만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신분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도전이 쌓이고 쌓이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23살을 소위 말하는 ‘취업을 위한 스펙’을 다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 인턴 경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분야에 대한 정식 교육을 받고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었습니다. 반드시 취득하여 노력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턴 사회생활의 미학: 사회생활 Preview

열정 하나만을 가지고 사회생활에 발을 디디는 순간, 베일에 싸여있는 새로운 영역을, 배울 것이 많은 신비스런 공간으로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주옥같은 한 마디 한 마디가 경험 없는 저에게는 귀에 착착 감기었습니다. 인턴 생활을 하면서 놀라웠던 점은 무수히 많은 길목에서 다른 방향을 선택한다 해도 그 길이 결코 틀린 길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무수하게 많은 방향으로 뻗어 있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처음의 저는 어느 방향을 선택해야 할지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간 지켜보면서 남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 해도 그것은 틀린 선택이 아니니 굳게 자신을 믿고 도전 그리고 긍정을 바탕으로 묵묵히 나아가면 꼬인 실타래도 풀려 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박사님들의 삶을 통해 장차 남은 저의 일생을 제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농업분야의 전문가들만 모인 저희 재단에서도 각자의 세부 전공분야가 각기 다르듯, 거시적 관점 뿐만 아니라 미시적으로 인생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 또한 느꼈습니다.

백번 듣는 것보다는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뜻을 가진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은 저와 같은 청년인턴 친구들에게 가장 적합한 이 시대의 관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초년생인 저의 서투른 부분을 다정한 말투와 무언의 인정으로 저의 마음을 헤아려주셨던 박사님들을 통해 다양한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이자, 해야 할 것이 많은 시기에 많은 것을 갈등하며 포기한 가치가 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턴생활 5개월이라는 결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저에게 기회의 문을 제공해주고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먼저 걸어가서 등불을 밝혀주시는 연구원님들이 있어 더욱 생산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3달을 채워가고 있고, 남은 2달 동안 또 다른 배움을 통해 비전을 얻고 저 자신의 기대효과를 믿어서 인생이란 긴 여정에 대해 묵묵하고 끈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곧 100일을 맞이하는 사회초년생의 인턴에 대한 정책제언

저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인턴으로 부름을 받은 지 오늘부로 약 100일이 되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농촌진흥청 산하기관 중 하나로 준정부기관인데 2009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아직 역사가 오래된 기관은 아니지만 튼튼한 기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를 도입한 지는 7년이 지났고 저희 기관은 작년 2014년부터 ‘채용형 청년인턴’을 모집하였습니다.

저희 재단은 ‘채용형 고졸인턴’과 ‘체험형 청년인턴(대학생)’을 이번 2015년 하반기에 모집하였고 저는 ‘체험형 청년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형 청년인턴’은 대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으며, ‘체험형’이기 때문에 채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정식으로 공채시험을 봐야 합니다. 반면에 ‘채용형 고졸인턴’은 고졸 친구들만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정규직 전환율이 50%에 달합니다.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사실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는 인턴이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들지만, 두 부류의 청년인턴을 쳐우마져 같게 한다면 다른 인턴 친구들의 만족감 역시 상승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 복지 측면에서 청년인턴만의 객관적인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기관은 주관적으로 연차 및 교육수당 등 각종 비용 지불 여부가 유연하고, 어느 기관은 엄격한데 같은 청년인턴으로서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어느 기관이든 함께 대우를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하반기 신용보증기금 공개채용 공고가 10월 5일 발표가 났는데 신용보증기금 인턴과 일반 공공기관 인턴을 따로 체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부분들이 변화가 되기까지 오래 걸리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공공기관을 위해 노력하는 인턴 친구들인 만큼 다양한 부분에서 공평하게 누구하나 서운함 없이 다 같이 공존하며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만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공공기관들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

실 정책제언이라기보다는 인턴들, 연구원님들, 그리고 정부기관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자 저의 작은 바람이기도 해서 마지막 구절에 넣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열심히 주어진 위치에서 노력해서 대한민국 여러 곳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회의 문을 항상 두드리고 인생을 설계하자

세상을 보는 시각에 따라 본인에게 주어지는 기회 역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계라는 저의 전공분야만 봤더라면 저는 공기업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취업이라는 관문을 어떻게 통과할지에 대해 급급해 하며 필요한 자격증들만 골라 준비하기 바빴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들에겐 생소한 ‘농업’이라는 분야, 농업관련 학과 학우들만 취업할 수 있는 거리감 드는 업종에 대해 용감한 선택을 함으로써 새로운 분야에 대해 배경지식과 역량을 쌓을 수 있게 됐고, 대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결단력 있게 도전한 것 같습니다.

아직 역량이 부족한 저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누구에게나 와 닿을 것 같고 힘이 되고 싶어 수기를 작성하였습니다. 저처럼 ‘무스펙자’도 항상 기회가 있는 것처럼 저를 보며 이 글을 읽는 제 또래의 많은 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인생을 짧은 기간의 인턴을 통해 미리 배워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멀고도 험한 사회생활을 이번 인턴생활을 통해 경험한 것을 토대로 당당하고 다채로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 인생이라는 한 폭의 커다란 그림에 예쁜 수를 놓고 싶습니다. 

청년인턴으로 꿈꾸게 된 내일

김○○/국민건강보험공단

절망 속에서 찾은 삶의 희망

대학교 1학년 때 엄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 후유증으로 엄마는 왼쪽 팔과 다리의 마비증세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임이 불가능하셨다. 나는 엄마를 간호하기 위해 학교를 휴학했고, 매일 병원에서 생활하며 거동이 어려운 엄마의 손과 발이 되어드렸다. 엄마는 힘든 재활치료를 잘 견뎌내셨고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실 정도로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다.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만 보던 기적이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났던 것이다.

그렇게 한숨 돌린 것도 잠시 우리 집에서 가장 믿음직스럽고 나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던 오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오빠는 하루에도 여러 번 고열로 심하게 앓았고 계속해서 기침을 했다. 대학병원에서 여러 차례의 정밀검사를 받고 결국 오빠는 악성림프종 4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당시 하루하루가 무척 힘들었고 내일을 꿈꾸기에는 당장 앞에 놓인 현실이 너무나 버거웠었다. 나는 또다시 학교를 휴학하고 오빠를 간호해야 했고 다른 또래 친구들과처럼 어학 실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유학을 갈 수도 없었고 공모전이나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부족한 스펙을 쌓으며 취업을 준비한다는 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 같았다.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취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남들에 비해 너무 뒤처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엄마와 오빠를 간호하면서 보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고 삶에 대한 자세와 마음가짐이 변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나는 엄마와 오빠를 간호하면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몇 년 늦어진다 해도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나는 국민들이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건강보험제도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청년인턴제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는 곳인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은 나의 꿈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해 28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턴사원에 지원하였고 설레는 마음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내가 근무하게 된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시사는 보험급여부, 자격징수부, 노인장기요양센터, 행정지원팀 등 다양한 부서로 이루어져 있고, 나는 그 중 장기요양 1파트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다. 사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나에게 꽤 친숙한 제도였다. 뇌경색으로 몸이 편찮으신 이모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셨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 당시에도 중풍이나 치매 등으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센터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원했던 업무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다.

멘토이신 차장님께 업무를 하나씩 배우면서 이런 절차를 통해 이모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셨구나 하는 생각에 업무 하나하나가 뜻깊게 느껴졌다.

2,500여 건의 서류, 20회의 출장

장기요양 1파트에 배치되어 주로 맡은 업무는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되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등의 각종 서류를 전산입력하고 관리하는 것이었다. 하루 평균 약 25건의 신청서를 입력하였고 인턴 재직 5개월 동안 총 2,500여 건의 신청서를 입력하였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었다.

특히 장기요양 1파트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인정조사 및 이용지원, 복지용구 추가급여 확인 등으로 출장을 나갈 때 동행하여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턴 기간 중 약 20회 정도 출장업무를 수행하면서 파주시 관내 가정집, 장기요양시설, 요양병원을 방문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신 어르신들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인정조사를 위해 신청인에게 여러 가지 조사항목을 물어보는데 어떻게 몸이 아프게 되었고, 지금은 어떠한 상태인지 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건네면서 눈물을 보이는 보호자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간병을 하면서 많이 지쳐있던 모습을 보고 엄마와 오빠를 병간호할 때의 내 모습이 떠올라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하였고, 그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미 많은 사람에게 여러 방면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에 반해 이러한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악용하는 경우를 봤을 때에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다. 한번은 인정조사를 할 때에는 분명 걸음도 잘 못 걸으시고 건강이 매우 안 좋으셨던 할머니가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이 나왔고 이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및 복지용구 혜택 또한 많이 받으셨는데, 불편함이 없는지를 확인하러 한 달 후 재방문했을 때에 조사 당시의 모습과는 달리 혼자 걸음도 걸으실 수 있고, 무리 없이 생활하고 계신 모습에 약간의 배신감이 느껴졌었다.

출장을 나가 보면 생각보다 장기요양 등급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질병의 정도를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담당자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경우 허위로 진술된 사항에 따라 그대로 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조사 담당자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 수급자의 등급 또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정말 장기요양 등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정작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이러한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웠다. 이러한 사실 또한 인턴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것이고 이러한 점은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발전하고 계속 진행되면서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5개월의 선물 같은 시간

28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인턴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셨다.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인턴보다는 안정적인 정규직을 다시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언도 많이 해주셨지만 나는 5개월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했던 5개월은 나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소중한 시간이었다. 새로운 환경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했으며, 이러한 경험들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5개월의 인턴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업무의 제한이 많고 전문적인 업무를 배우고 익히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기간이라 아쉬움이 컸지만, 인턴을 경험해 봄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슨 일을 하고 업무 분위기는 어떠한지 전반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만약 청년인턴제도가 없었더라면 이 모든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인턴 경험을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고, 그러한 꿈에 자신감을 심어준 청년인턴제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마운 마음이 든다.

더불어 매일 출근하는 것이 기다려지고 하루하루 즐겁게 웃으면서 일 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직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딸처럼 때론 동생처럼 챙겨주시고 진심 어린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시사 전 직원들에게 이 글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청년인턴으로 취업난 뛰어넘기

이○○/한국기상산업진흥원

돌아보기: 진흥원과의 조우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경험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간다. 대학 4년을 나름 열심히 생활해왔다고 자부했었다. 하지만 처음 구직준비를 하면서 “아, 여태까지 나 뭐했지”란 생각이 매 순간 들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시작이 반이라고들 하지만 그 시작이 엄두가 나지 않았다. 당면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답 없는 물음에 사로잡힌 나날을 보냈다.

그때,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청년인턴 공고문을 보았다. 전환형 청년인턴으로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해당 공고문을 보고 하나의 도전이자 기회라는 확신이 밀려왔다. 인턴으로 시작하여 업무에 대하여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싶었다. 이력서를 작성하고 자기소개서를 거듭 수정하였다. 우편으로 지원서를 보내면서 좋은 결과로 다가오길 끊임없이 바랐다. 그 결과 면접을 볼 수 있었고, 정식으로 청년인턴으로 발령받아 업무를 배울 수 있었다.

나아가기: 업무시작 전, 교육과 면담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구체적으로 기상 기업을 지원하거나 연구개발 업

무 등 기상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서에 배치되기 전 5일 동안 청년인턴 교육을 받았다. 부서별 업무 소개 교육, 그리고 기관장 및 본부장님 면담의 기회를 가졌다. 인턴이면 기관에서 가장 말단인데 원장님과 본부장님과 따로 대면할 시간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에 고마움이 느껴졌다.

면접과 교육, 인턴을 부서에 배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진흥원이 인턴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면접에서 간사가 있어 면접관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질문만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여러 곳에서 면접을 보다 보면 다른 지원자들 앞에서 신상이나 민감한 질문이 쏟아지기 일쑤다. 거절하고 싶은 질문도 난감함을 감추고 대답해야 했고, 이미 누가 합격했는지 느껴질 만한 말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진흥원은 간사가 입사지원자를 보호해 준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인턴의 부서배치는 인턴에게 근무 희망 부서를 조사하여 원하는 부서에서 일을 배울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나는 인사, 노무, 회계를 비롯하여 기관 운영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인 경영지원실에서 청년인턴 생활을 시작하였다.

도움닫기: 멘토, 업무와의 만남

업무에 투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들의 자율적 기부로 운영되기 시작한 도서관 업무를 맡게 되었다. 70권 정도의 소규모였으나 혼자서 운영한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는 뿌듯함과 책임감이 밀려왔다.

진흥원은 청년인턴이 기관과 업무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같은 부서의 선배를 멘토로 지정하여 진로 조언 등을 비롯한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시점에서 멘토로부터 받는 이야기들은 한 마디 한 마디가 마음을 울렸다.

처음 맡은 도서관 업무와 관련하여 멘토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도서관에 대한 홍보지를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그렇게 시작한 도서관 홍보지는 매주 화장실에 게시하였다. 멘토는 바쁜 업무 중간 중간에도 홍보지 초안을 여러 번 검토해주고 게시도 도와주었다.

매주 읽고 소감을 적거나 최다 대출자, 신규대출자 등 이벤트성의 홍보 문구도 덧붙였다. 홍보지를 보고 도서관의 존재를 알게 된 직원도 있었고, 홍보지에 실린 책을 빌리러 온 직원도 있었다.

이외에도 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례 조사를 하였다. 인턴과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 개선방안, 법인카드 포인트 기부 방안 등 타 기관의 도입사례와 활용사례 등을 조사하여 문서로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해당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였다. 소속을 밝히고 질문을 하면서 긴장하여 버벅대곤 했다. 그럴 때면 스스로가 답답했지만 통화를 끊으면서 정확한 정보를 얻었다는 사실에 다행스러웠다.

동계 직원 근무복 구매 추진과 관련하여 담당자와 평화시장으로 출장을 가기도 하였다. 다양한 옷 사이에서 후보로 가져온 옷 중 하나가 최종 선발되었을 때 내심 뿌듯하였다.

국문학과라는 전공을 살려 기관 행사 시나리오 초안과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검토와 수정을 거친 후 이용한 자료들이지만 그 속에 남아있는, 작성한 부분을 발견할 때면 혼자서 감격하고 자랑스러웠다.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업무였다. 홍보지 제작은 경영지원실 인턴을 다른 부서와 직원에게 인식 환기의 계기가 되었다. 사례조사 업무는 기초적인 문서 작성법을 알려주기 위한 수단이었다. 동계 근무복 구매와 관련한 출장은 하나의 체험학습이었다.

업무 이외에도 인간적으로 많은 교류와 공감을 받을 수 있었다. 점심시간에 멘토와 함께 바람을 쐬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중간중간 앞으로 하고 싶거나 맡고 싶은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물어봐주시는 분도 있었다.

요즘 나오는 뉴스를 보면 인턴을 을(乙)중의 을(乙)로 묘사한다. 쉽게 뽑고 버린다고 티슈와 같다는 문구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진흥원에서 겪은 청년인턴은 을(乙)도 티슈도 아닌, 사회 초년생 이○○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었다. 취업, 진로와 인생에 대한 조언도 많은 사람들에게 얻을 수 있었다.

높이 뛰기: 정규직 전환 시험

2015년 2월에 접어들고, 인턴의 정규직 전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인턴 간 필기시험과 면접, 그리고 인턴 활동 발표의 평가를 거쳤다. 그동안 준비한 시험, 면접 준비 그리고 5개월 동안 행하고 느낀 것을 모두 담은 발표를 하였다.

필기시험은 시중의 인적성 시험 문제집을 구입하여 반복하여 풀었고, 활동 발표는 PPT로 제작하여 면접관들 앞에서 진행하였다.

맡은 일, 진흥원에서 즐거웠던 일들, 앞으로의 계획을 그리면서 지난 5개월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 많은 것을 배웠지만, 많은 것을 배워야 함을 느꼈다.

평가 결과 나를 포함하여 두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처음에는 어안이 병병하였다. 집으로 돌아가며,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려면서부터 안도감과 함께 감격이 밀려왔다. 그동안을 기다리고 가슴 졸였을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웠다. 서툴고 부족한 청년인턴 이○○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진흥원이 고마웠다.


달려가기: 이제는 앞을 향해 나아갈 때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나서 처음 맞는 월간조례 때의 일이다. 원장님께서 주신 기회로 같이 전환된 친구와 나란히 전 직원 앞에서 소감을 발표하였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긴장감이 밀려왔다.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다 전환이 결정되고 나서부터 잠들기 전, 항상 다짐했던 말을 꺼냈다.

“인턴일 때보다 책임감도 더 크게 들고,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가신 선배님들께서 하신 것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연히 접한 공고문에서 시작되었던,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하반기 공채 시기에 시작한 청년인턴에 남들은 돌아갔다고 여길지 몰라도 나에게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다. 생각과 경험을 확장하고 미래를 달려 나가는 데 도움을 준 길잡이였다.

종종 마음을 다잡을 때 항상 지난 5개월과 많은 직원들 앞에서 밝힌 다짐을 되된다. 청년인턴의 5개월은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도와준, 값진 기회이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성취

맹○○/자동차안전연구원

대학졸업을 눈앞에 두고...

2013년의 나는 기계공학과 재학 중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두고 있었다. 그간의 대학 생활을 돌아보며 이것저것 정리하던 중 내가 원하는 자동차분야에 지원하기 위한 관련 직무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미 관련 경험을 쌓기에는 늦은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청년인턴을 채용한다는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진행하던 취업준비를 조금 미루고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청년인턴을 지원해서 관련 직무경험을 쌓아보기로 결정했다.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청년인턴

자동차안전연구원 청년인턴으로 지원을 한 후, 서류전형을 통과해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첫인상은 충격적이었다. 시내에서 동떨어진 위치, 그리고 어마어마한 규모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을 때 면접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더 의외였던 것은 면접에서의 분위기였다. 이게 과연 청년인턴을 뽑는 면접이 맞는가 싶을 만큼의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갔고, 마지막에는 영어면접까지도 진행했다. 실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면접보다는 마음 가볍게 답변을 할 수 있었지만, 청년인턴 한 명을 뽑는데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동차에 이런 분야가 있었다니!

면접까지 통과한 후, 마침내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청년인턴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다. 광학&시계범위시험실... 처음 들어보는 분야였다. 기계공학과를 4년간 다니면서 자동차와 관련하여 배운 것은 고작해야 엔진, 조향, 연비뿐이었던 나는 자동차의 새로운 분야에 눈을 뜨게 되었다. 비록 청년인턴이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업무는 한정적이었지만,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이 시험실에 배정받은 후 처음으로 했던 직무는 자동차의 등화장치 시험이었다. 자동차의 등화장치는 그냥 어두울 때 불만 들어오면 되는 줄 알았던 나였다. 하지만, 등화장치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나 주변 차량에 신호를 보낼 때 쓰이며 도로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등화장치라는 분야는 나에게 무척 생소했지만, 반복되는 시험과 안전기준 검토 등으로 점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다.

‘연구원’이라는 직함과 자존감의 상승

호칭이 애매한 청년인턴에게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었다. 나 또한 한 명의 ‘연구원’으로 대우받게 된 것이다. 비록 사소한 것이지만, 똑같은 사람을 ‘청년인턴’이라고 부르는 것과 ‘연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등화장치 분야의 ‘연구원’이라고 불리는 것은 먼저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고, 그 영향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 ‘청년인턴’이라고 불렸으면 느껴보지 못했을 ‘여기는 내가 근무하는 회사다’라는 자부심이 나를 더욱 노력하게 만들었다.

다양한 업무와 그로 인해 얻은 것

시험실에 있으면서 등화장치 시험업무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계범위 시험, 차실내장재 내인화성 시험 등 다양한 자동차 관련 시험의 보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운전자의 시계범위 시험을 진행하면서 3차원 마네킨, 좌표측정기의 사용법과 운전을 할 때

필수적인 요소인 후사경의 시계범위 측정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차실내장재 내인 화성 시험을 진행할 때에는 차체 내부의 구성품에 대한 재질과 연소특성 같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시험 준비나 뒷정리였지만, 궁금증을 가지고 관련 자료를 찾고 기준을 검토하며 열심히 호기심을 채워나갔다.

이런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필연적으로 다가온 것이 관련업계의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었다. 흔히 말하는 대형 자동차제조사에서 중소기업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만나게 되면서 인맥이 넓어지게 되었고, 등화장치, 운전자 시계범위 시험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

‘청년인턴’으로 재직하는 목적은 역시 관련 직무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그 생각은 확고했기에 지금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등화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여기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던 중 자동차공학회 학술발표대회를 알게 되었고, 인턴으로 같이 근무하던 동료 2명과 발표논문을 제출하기로 했다.

발표논문의 주제를 선택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했다. 첫째는, 시험 장비를 이용해서 새로운 등화장치를 시험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각 등화장치별 소비전력 등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발표논문의 주제를 3개로 정해서 각자 한 개씩 맡아서 발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과 새로운 시험을 병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일과시간에는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등에 장비를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업무가 끝난 후에 남아서 시험을 진행했다. 각종 시험데이터를 분석하는 일 외에도 참고할 만한 논문을 검색하고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하지만, 이제 고작 등화장치 분야를 접한 지 6~7개월밖에 안 된 우리는 시

시대때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었다.

논문이 마음대로 안 돼서 거의 포기하려고 할 때도 있었다. 바로 그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사람들이 있었다. 시험실 직원분들이었다. 그들은 우리의 어려움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에, 시험에 대한 조언 및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며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그 결과 연구원에서 예비발표를 마친 후 자동차공학회에서 발표를 무사히 끝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나는 교통안전공단에 2014년도에 입사를 해서 벌써 2년차로 근무하고 있다. 운 좋게도 인턴생활을 했던 시험실에 배치되어 그때보다도 더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중이다. ‘청년인턴’일 때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져서 지금은 현실이 되었다. ‘청년인턴’에서 ‘정직원’ 현실이 되기까지는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겪으며 도움이 된 것들이 있었다.

첫째로, 마음가짐이었다. ‘청년인턴’으로 근무할 때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내가 일하는 곳이고 여기는 내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며 했다. 그 결과 시험업무, 분석업무 등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열심히 했다. 그 결과 담당할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이 생기게 되어 즐겁게 근무할 수 있었다.

둘째는, 근무를 하며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이었다. 생소한 분야를 처음 접해서 점점 알아갈 때까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청년인턴’을 일정 계약기간만 채우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닌, 함께 일하는 직원으로 대우해 준 것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함께 근무한 ‘청년인턴’ 동료들이다. 같은 위치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 외에도 서로 다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함께 노력했었다. 과연 이들이 없었다면, 내가 혼자였다면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것은 나에게 정말 좋은

기회였다.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들, 그리고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의 경험은 힘들기도 했지만,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교두보 역할을 해냈고 아직도 내 가슴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



1

지역소의 극복 경험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긍정적 영향

박○○/한국주택금융공사

1. 과거 지역적 소외를 극복하고 공공기관에 취업 성공사례

물리적 제약: 지방대생의 입사를 위한 부대비용은 얼마일까요?

부산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고향에서 다니던 시절, 인턴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기업에서 인턴 월급 100만원 초반대를 받으며 6개월 인턴십을 하는 동안 저는 서울출신의 인턴 동기들은 느끼지 않았을 경제적 부담을 안고 생활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부담을 무릅쓰고 경험했던 저의 인턴 경험은 다행히도 최근 NCS 직무능력평가가 도입되어 실무 관련 경험·경력 부문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대학 4학년이 되었고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공과 연계된 금융권 입사를 희망했던 저는 관련 회사나 공공기관의 채용박람회나 입사설명회를 듣기 위해 서울을 몇 번씩 방문하곤 했습니다. 주로 서울에서만 주요 설명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교통비 및 숙박비는 학생인 제게 큰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비단 채용설명회뿐 아니라 채용과정에서 대개 서류전형 이후 실시되는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서울을 매번 방문했습니다. 특히 상·하반기 채용 시즌이 되면 서울 방문 횟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비용 부담 측면에서 지방대 학생들은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불어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일생에 한번 뿐인 중요한 필기시험과 면접을 앞두고 다른 지역을 방문해야 함에 따르는 시간적, 심리적 부

답 또한 존재했습니다.

주요 공공기관 및 기업이 서울에 위치했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서 채용 필기전형 등을 여러 차례 치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사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산 이전 공공기관인 만큼 부산에서도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이 실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간적,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이 경험을 통해 여태까지 제가 서울에서 치렀던 많은 채용전형에서 서울권 지원자들은 지방학생들에 비해 유리한 입장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지방학생들의 경제적 비용과 더불어 시간적, 심적 부담 등 취업을 위한 부대 비용은 서울권 학생들에 비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학생들의 경우 취업시장에서 소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방학생들의 주요 공공기관 입사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소외: 취업정보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인맥을 활용하다

부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서울에 비해 채용 정보가 부족하고 이는 분명 공공기관 입사를 희망하는 지방 대학생들에게 취약점으로 작용합니다. 저 또한 취업 준비생 시절, 제가 서울·경기권 학생들에 비해 취업정보 및 준비 과정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이는 저를 포함한 지방에 있는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채용일정 등 단순한 1차원적 정보를 넘어 희망 공공기관의 자기소개서 작성 및 피드백, 모의 면접 등의 실질적 정보가 부족한 현실에서 지방 대학생들은 취업정보의 부재에 놓여있습니다.

지방 대학생으로서 저는 취업정보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선배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채용일정과 같은 1차원적 정보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그 외에 각 공공기관의 전형별 세부적인 정보는 저의 대학 선배를 통해 얻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주변에 있는 금융공기업을 준비했거나 실제 입사한 선배나 친구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이 덕분에 채용 전형을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2.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긍정적 영향

1. 개인적 측면

지방대학생이 바라본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개인에게 취업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초·중·고교 및 대학생할까지 부산에서 마친 저의 경우를 살펴보면, 부산은 제조업이나 금융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관광산업, 마이스산업(MICE: Meeting · Incentives · Convention · Events and Exhibition), 해운항만산업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학에서 경영학부 금융공학을 전공한 제계 금융권 혹은 금융공공기관 입사는 고향을 떠나야지만 이룰 수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이 부산 이전을 한 결과, 저 또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기회로 삼아 이렇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고향 부산에서 가족과 헤어지지 않고도 그동안 꿈꿔왔던 좋은 일자리를 얻었다는 것은 제계 정말 큰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서울에서만 진행되었던 공공기관의 채용설명회 등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기점으로 지방에서도 개최되는 점은 취업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지역 소재 대학생들에게 큰 혜택으로 작용될 것이 분명합니다.

취업 준비생으로 참석했던 주택금융강좌에 이제는 강사로 서다

저의 취업 준비생 시절,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현재 공사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 분기마다 개최하는 ‘재밋지예(才美之例) HF주택·금융강좌’ 덕분입니다. ‘재능(才) 기부를 통한 아름다운(美) 사회를 꿈꾸는 공기업의 본보기(例)’라는 의미를 가진 이 강좌에 저는 올해 4월에 개최된 제1회 때 대학생 신분으로 참석했습니다. 당시 강좌 후반부에 진행됐던 채용설명회는 물론, 공사를 방문하고 직원을 만나봄으로써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피부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공사 입사를 꿈꾸기 시작했고, 이때의 경험은 결과적으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첫 발판 이 되었습니다.

‘재밋지예(才美之例) HF주택·금융강좌’는 지금까지 부산지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금융공기업이 직접 개최하는 강좌로서 부산과 경남 지역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들에게 강좌 개최 장소인 공사 방문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는 비단, 강좌에서 끝나는 것 이 아니라 장차 이 경험을 바탕으로 강좌에 참석한 많은 학생들이 저처럼 공사 입사를 꿈꾸고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러한 바람을 담아 주택금융공사인으로서 제2회 ‘재밋지예(才美之例) HF주택·금융강좌’ 기획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저는 강좌 2부 ‘신입직원의 취업 노하우 천기누설-자기소개서’ 코너의 강사로 서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과거, 취업 준비 생으로서 참석했던 강좌에 공사인이 되어 그 강좌를 직접 기획하고 강의까지 하게 된 것 은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이며 강의에 참석한 많은 학생들이 제가 그랬듯 꿈을 찾고 이 루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 학교 및 지역사회 측면

부산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해당 지방 소재 대학은 우수 인재 유치 측면에서 이점을 발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을 선택함에 있어 좋은 일자리가 많은 서울·수도권 소재 대학 에 진학하는 것이 장차 취업시장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학 소재지 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실제로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의 많은 동문들이 이러한 이유로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주요 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설명회가 서 울에서 개최되는 것에서부터 서울 소재 대학생들은 취업에서 많은 이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이러한 격차가 차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바,

지방 소재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데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졸업한 모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어엿한 공사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부산 이전 공공기관은 부산대, 부경대 등 14개 대학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부산대학교 수학과가 체결한 산학공동 산업수학 문제해결 프로그램 업무협약(MOU)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안한 ‘주택저당증권(MBS) 콜옵션 가격결정모형 수립’ 과제를 부산대학교가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공사는 부산대의 과제 수행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연구진 및 재학생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무특강과 방학기간 실무경험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공공기관 부산 이전은 지역인재 육성 지원활동 측면에서 해당 대학은 물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MBS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부채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국가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인으로서 저의 모교와 맺은 이 업무협약(MOU) 체결식과 업무설명회에 참석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갓 대학을 졸업한 제가 4년간 몸담았던 부산대학교 학생 신분이 아닌 어엿한 사회인의 신분으로 업무협약(MOU) 체결에 참석한 것은 무척 자랑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산학 공동 업무협약(MOU)이 지방인재 채용 활성화 측면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실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그 의미 있는 한 걸음

김○○/교통안전공단

졸업, 그리고 취업을 꿈꾸며

언젠가부터 대학의 본질이 학문의 상아탑이 아닌,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는 취업훈련 양성소로 변모해가고 있다고들 한다. 대학 입학이 곧,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던 시대는 이제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오로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승리한 자만이 취업이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시대가 되었다. ‘서울의 봄’을 외치던 대학의 낭만과 지식인으로서의 면모는 이제는 더 이상 대학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현실이다. 어쩌면 치열한 경쟁사회가 대학생들에게 주변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게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어쩌면 이상을 꿈꿔왔을지도 모르겠다. 막연하게 내 꿈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진로를 찾던 낭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해왔다. 유럽으로 배낭여행도 떠나보고,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해보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남들이 하는 ‘스펙 쌓기’를 부정하고, 홀로 도도한 선비인냥 나만의 대학생활을 즐겼다. 어쩌면 그것은 동시에, 이 사회가 내게 준 치열한 현실을 외면하고자 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준비되지 않은 자를 반기지 않았다. 취업 대신 대안으로 선택한 대학원 생활은 내가 꿈꿔왔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결국 나도 적지 않은 나이에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뛰어들면 취업전선은 내게 녹록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을 바라보며

나는 내가 가진 이 소소한 능력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다. 그것이 비록 내가 꿈꿔왔던 인문학이 아닐지언정, 나만의 방식으로 나의 삶과 지식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고, 자연스럽게 내 취업의 방향성은 공공기관으로 향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취업시장은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 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체된 취업 준비생이 많았고, 취업준비기간도 훨씬 긴 곳이었다. 더군다나 고용시장과 취업시장이 불안할수록,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취업 준비생이 늘면서 공공기관의 취업시장은 갈수록 더욱 치열해져 가고 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구분해야 할 만큼, 치열한 경쟁이 도사리고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정치·문화·경제·교육 등 모든 부문들이 수도권에 편향되다 보니, 소위 지방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이른바 취업시장에서의 ‘인서울(수도권 소재 직장으로서의 취업)’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나온 학생과 지방대를 나온 학생들 간의 사회 진입의 첫걸음이 마냥 같을 수만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대학의 경쟁력인지, 개인의 경쟁력인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대학에 대한 선입견의 문제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이다.

운이 좋게도, 내가 취업시장에 뛰어든 때쯤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수도권의 과밀화를 완화하고,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에 있던 여러 기관들이 지방으로 분산되었고 해당 지역의 인재 채용을 늘려가기 시작할 때였다. 지방대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생겨났다.

취업을 위한 필기시험과 면접 전형을 치르기 위해 솔하게 서울로 새벽같이 오르내리던 내게,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치르는 취업 전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느껴졌다. 지방 중에서는 대도시인 대구에서 거주하던 나로서도, 대구에서 원하는 직장 혹은

좋은 직장을 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원하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당연시되던 일들이었다. 그러던 와중에 나는 대구·경북 지역에 이전하는 ‘교통안전공단’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이제는 꿈꾸던 그 회사에서 새로운 나의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2003년 참여정부 시절 계획되었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이제 마무리 작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전은 하였지만, 아직 지방의 여러 혁신도시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 또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까지 10여년의 오랜 시간이 걸린 데에는 일각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의 과밀화는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방의 중·소도시는 침체의 길을 걸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었던 것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었던 것이다.


지금 당장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해당 지역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친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직 도시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탓에 많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원래 살던 집과 혁신도시를 오고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활성화되고 혁신도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서서히 많은 것들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에 과밀화되었던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상당수 부문들 역시, 이전한 공공기관을 따라 지방으로 분산될 것이다.

고졸채용과 지역인재채용은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에게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것이다. 취업 준비생들이 대졸자와 고졸자, 인서울(수도권 대학 졸업생)과 지방대로 나눠 서로를 비방하는 모습은 어찌보면 우리 사회의 단면과도 같은 것이다. 계층 간의 갈등과 지역 간의 갈등이 좁은 취업시장의 문 앞에서도 발현되는 것이다.

한때 스크린 쿼터제가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다. 자국의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극장의 국내 영화 상영일수를 법적으로 제어하는 제도인 스크린 쿼터제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일각의 논의가 있었다. 이는 그만큼 한국영화와 문화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반증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스크린 쿼터제가 일정 부분 긍정적 역할을 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역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본연의 목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인재 채용의 의무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동시에 지방의 대학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이란 말이 있다. 각 개개인의 역량과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출발선상에 위치하여 경쟁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는 절대 수도권 대학 졸업생과 지방대학 졸업생들을 일률적으로 재단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니다. 고리타분한 대학의 서열문제는 논외로 치더라도, 대학생 개개인의 역량은 소위 대학의 '네임벨류'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다만,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이 '지방대'라는 꼬리표에 묻혀, 출발할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인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러 사회적 갈등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갈등을 풀어 나가는 하나의 작은 실마리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라고 생각된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바로 그 실마리를 찾아 나가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었으면 한다. 

3

대학생활 Road Map, 이제 전문가로 Leading하라

정○○/도로교통공단



기회가 없는 곳에서 기회를 찾아라!

울산에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자란 20대 청년의 취업수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다른 수도권 인재보다 뛰어난 무엇의 스토리를 준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그 노력으로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안전조사검사부에서 현재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많은 부분을 배우고 한층 더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광역시이지만 서울이나 큰 수도권 학교와 비교하면 대학생으로서 경험해야 할 어떤 기회를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의 분야를 정하고 그와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대학생활에 임하였습니다. 울산이라는 지역특수인 산업체가 많은 점을 이용하여 관련 교육, 세미나, 등 많은 기회를 찾으려 노력하였고 저만의 스토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만의 스토리를 5감에 비유해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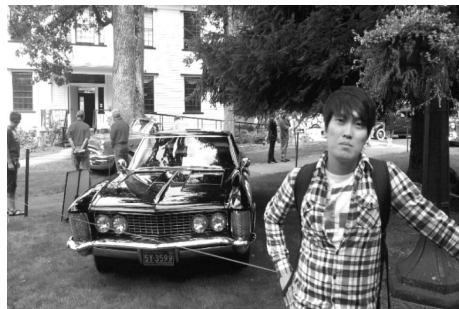
1. 시각

‘보는 것의 가치를 알게 해 준 헬렌 켈러에게 감사드린다’라는 광고의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참석한 모터쇼를 통해 세계 자동차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신기술들과 디자인을 실제로 눈으로 보며 세계 자동차시장을 제 눈에 담았습니다.

[그림 1] 서울국제 모터쇼 참석



[그림 2] 미국 자동차전시회 관람



부산국제모터쇼는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게 한 소중한 경험입니다. 서울국제모터쇼는 부산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참가한 회사들도 많았습니다. 인상 깊은 차종으로 첫째, 이론으로만 배운 전기차 내부 구조를 실제로 볼 수 있었던 쉐보레 볼트, 둘째, 하이브리드의 선두주자인 도요타 프리우스의 시승, 셋째, 차체 모든 것이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절정체 아우디의 A8 등 최고 자동차 기술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린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해 교내에서 실시되는 친환경 자동차 인재양성센터에 지원하여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런 그린카를 보면 과연 언제 나중에 시장에 나올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지만, 실제로 미국 포틀랜드로 연수를 갔을 때 도로에는 이미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 여러 차종이 상용화될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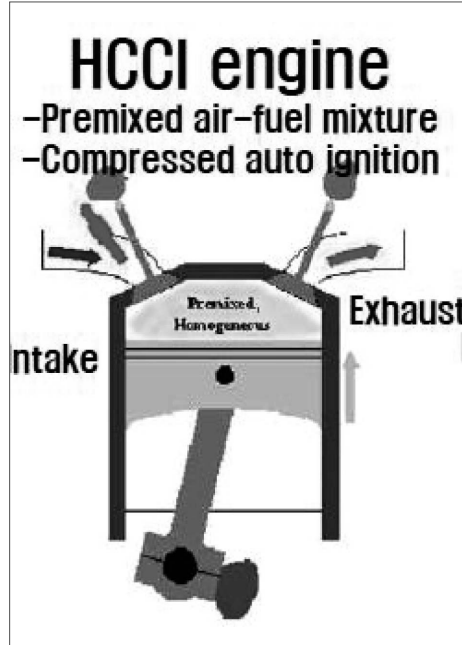
2. 후각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코를 막고 먹으면 그 맛을 느끼는 감각은 상당히 무뎠지거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자동차에 대한 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 교내 그린카 인재양성센터에서 친환경 자동차 교육을 1년 6개월 동안 이수하였습니다. 교육이수를 통해 GDI, HCCI 등 차세대 연소기술과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도 익혔습니다.

[그림 3] 친환경 자동차 교육 이수증



[그림 4] GDI 및 HCCI 연소기술



3. 청각

세 번째로 청각입니다. 약 20여 회의 세미나에 참석하여 국내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그린카, 또는 신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자동차 산업에서 종사하시는 실무자, 대학교수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방향과 앞으로 어떤 기술이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부산 모터쇼에서 보았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GDI 같은 연소기술은 필수적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림 5] 세미나 참석 기념사진



[그림 6] 세미나 참석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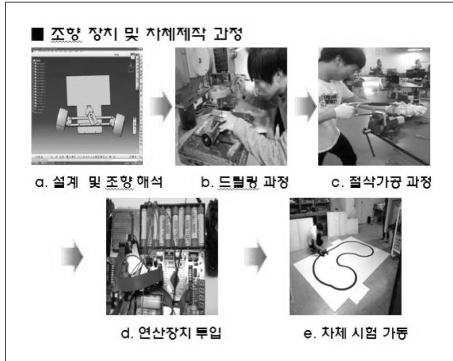
4. 미각

전공심화 프로젝트로 ‘인공지능 RC카’를 제작하는 것이 전공인 자동차 공학의 마지막 시험대였습니다. 이는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간접적으로 자동차를 맛본 열정적으로 임했던 일입니다. 이런 열정으로 저는 프로젝트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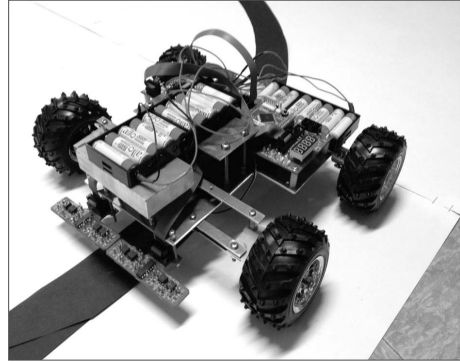
저는 하나의 팀으로 만들기 위해 월간 작업목표를 설정하고 작업진행 상황을 간트차트로 표시하여 각 조의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작업속도와 팀워크를 동시에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난관은 배터리 관련 안전문제였습니다. RC카에는 알카라인과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되었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폭발력이 강해 충전 및 보관 시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에 고무 재질의 장갑을 작업실에 배치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작업하였습니다.

[그림 7] 인공지능 RC카 제작과정



[그림 8] 인공지능 RC카 완성사진




세 번째, 시간 효율 문제입니다. 차체결합 작업에서 볼트너트 체결 시 같은 부품과 형상이라도 각 파트의 위치와 조립순서에 따라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작업시간을 단축하고자 작업절차서를 만들었고, 절차서에 맞춰 작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도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1년간의 프로젝트 경험은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 할 것입니다.

5. 촉각

마지막은 촉각입니다. 현재 저는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안전조사검사부에서 사고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교통의 전문가로서 성장을 위해 손으로 만지고 발로 뛰고 있습니다. 우선, 공단에서 지원하는 교통사고조사관 교육을 3주간 이수하였습니다. 결과도 우수하여 이사장님 표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11월에 있을 교통사고조사 연구원으로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고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자동차 정비기능사 같은 공단에서 지원하는 교육을 차례로 이수할 계획입니다.

자동차공학을 전공하며 친환경 자동차 교육이수, 울산이라는 지역 특수성을 이용한

수많은 세미나 참석, 모터쇼 참석, 인공지능RC가 제작 등 많은 경험을 하면서 울산이라는 지역 특수를 많이 찾아보고 이용하려 애썼습니다. 그 결과 지금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흔한 자격증은 하나 없지만 저만의 스토리를 이용에 합격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도 자신의 지역에 맞는 수많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데 힘쓰다면 취업에 성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시간선택제 일자리 · 직무능력중심 채용 · 고졸채용
청년인턴 · 지역인재 채용

2015년 11월 16일 인쇄

2015년 11월 19일 발행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1924

TEL : 044) 414-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인쇄 상일인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